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38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7월 1일(음력 윤5월 9일) 수요일(주간)

"큰 가르침따라 세상 밝히겠습니다"

전국비구니회포럼… 스승들 가풍에 '경탄', 포교 대안 제시도



전국비구니회는 6월 24일 서울 법룡사에서 '제2차 한국 비구니 수행 전통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제1부 사회를 맡은 송운 스님(전국비구니회 기획국장),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 성정 스님(보륜사), 혜정 스님(봉녕사).

근현대 한국 비구니 승단에 큰 족적을 남긴 선지식의 조명과 함께 수행과 포교적 대안을 모색하며 21세기 비구니 수행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열렸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6월 24일 서울 법룡사에서 개최한 '제2차 한국 비구니 수행 전통에 대한 포럼'은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의 수행담과 사찰음식, 사회복지 등 비구니 스님들의 대사회적 활동을 연찬하는 야단법석이었다.

진오 · 쾌유 · 월혜 · 세등 · 법일 · 혜춘 · 만성 · 장일 스님의 수행담이 이어질 때마다 좌중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행자가 삭발하는 날이면 큰방에 대중을 모아놓고 집도를 관장하며 법문 했던 진오 스님(1904~1994). 스님은 "삭발하는 날은 모든 번뇌를 다 벗어버리는 1날이고, 족두리를 쓰고 시집가는 날은 팔만사천 번뇌를 이고 시집으로 들어가는 날"이라며 출 · 재가의 길이 생사와 열반과 같이 다른 길임을 일렀던 선지식이다. (봉녕사 승가대 적연 스님 발표)

1968년 '전국비구니 우담바라회' 충북지회장을 역임하며 '전국비구니회'의 토대를 마련했던 쾌유 스님(1907~1974)은 "도반을 잘 만나서 만행을 잘하면 그것이 성불의 절반은 된다"며 만행을 수행 방편으로 삼았다. (보륜사 성정 스님 발표)

비구니계의 본분납자로 선풍을 드날렸던 월혜 스님(1895~1956)은 42세에 윤필암으로 늦깎이 출가했다. 판사 아들을 두고 남부럽지 않게 살던 중년 부인이던 월혜 스님은 청담 스님의 법문에 단박 출가를 결심하고 삭발염의 했다. 월혜 스님은 용맹정진을 거듭하며 당시 출가자들의 귀감이 됐다. 만공 스님이 비구니 납자들을 제접할 때면 "중노릇 잘하려면 월혜 한테 가라"고 말할 정도였다. (봉녕사 승가대 혜정 스님 발표)

세등 스님(1926~1993)은 고봉 스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법호를 받았던 스님이다. 세등 스님은 대전에 세등선원을 세우고 전강 · 송담 스님과 '세등법문'을 펼쳤다. (세등선원 정우 스님 발표)

지리산 동국제일선원을 중창한 법일 스님(1904~1991)은 민족적 자주불교와 자주종단 건설이라는 현실적 인식을 실천적 의지로 삼아 정화불사에 참여했다. 스님은 1956년 지리산 대원사 중창불사의 원력을 세워 일구면서도 '무(無)'자 화두로 30안거를 성만하며 대원사의 가풍을 이뤘다. (대원사 혜성 스님 발표)

전국비구니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던 혜춘 스님(1919~1998)은 1985년부터 10년간 전국비구니회 회장직을 맡으며 지금의 전국비구니회관을 세웠다. 후학들에게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살라"는 가르침으로 유명했던 혜춘 스님은 청정한 계행과 불퇴전의 수행력으로 한국 불교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다. (정업선원 선주 스님 발표)

만성 스님(1897~1975)은 만공 스님의 제자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법으로, 법 답지 않은 말을 않던 스님은 덕숭총림 가풍을 몸소 실천한 선사다.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일법 스님 발표)

비구니 대표로 한국불교를 이끌었던 장일 스님(1916~1998). 스님은 출가한 다음해인 23세에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전강 스님의 "네 주인공을 찾아라"는 법문을 듣자마자 용맹정진을 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자신의 등에 올라탄 기백을 경험했다는 장일 스님이 삼매에 든 것을 염려해 다른 스님들이 성철 스님께 인도했다는 일화를 남긴 선사다. (운문사 운산 스님 발표)

비구니 선지식에 대한 수행담 발표가 끝나자 문화 · 복지 · 포교 분야의 발제도 이어졌다.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을, 목동청소년수련관 정관 스님은 사회복지를, 신흥사 성일 스님은 어린이 · 청소년을, 한국연화꽃꽂이협회 보명 스님은 꽃꽂이 예술에 관해 각각 발표했다.

선재 · 보명 스님은 각각 사찰음식과 꽃꽂이를 활용해 일반인 포교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정관 · 성일 스님은 각각 노인복지와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내용에서 소개되지 않은 비구니스님들의 활약과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한국불교에서 관음과 보현 미륵 등 보살의 화현으로 대행(大行)을 펼쳐 온 비구니스님들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사찰 경내지 공원에서 해제하라"

조계종 본말사 주지 2일 통도사서 결의대회

조계종 1500여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통합종단 출범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자연공원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조계종은 7월 2일 오전 11시 양산 통도사에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 도립 · 군립)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등 1500여 스님과 신도 등 2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결의대회에서 조계종 사부대중은 40여 년간 지속된 정부의 일방적 공원정책 폐기와 관련 법을 개정해 사찰을 수행과 문화유산 공간으로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회에 앞선 1일 오전 11시부터는 결의대회와 연계해 본말사주지연수가 열린다.

본말사주지연수에는 ▲한국사회의 종교지형과 불교의 과제 ▲개신교의 국가복음화전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연공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안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같은 날, 중앙종회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종회의원 연수를 개최해 자연공원법과 종교편향에 관해 토론한 후 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조계종 대변인 장적 스님은 "정부가 10년마다 한 번씩 진행된 공원구역 조정에서 종단은 철저하게 소외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공원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확실하게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선지식을 찾아서 ▶14 설우 스님



인터뷰 ▶8 우송 스님

법구경

삶에서 나보다 낫거나
동등한 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가라.

현대불교 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 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 1370년의 시공을 넘어 우리곁에 다가오다!

www.mireuksa.org

익산 미륵사지 출토 **부처님 사리 친견법회 및 윤달 삼사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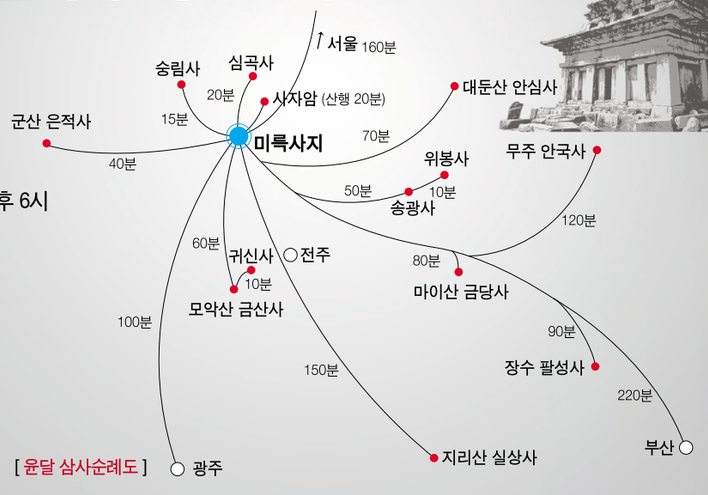


[불사리12과]

2009. 6월 27일(토) ▶ 7월 26일(일)

- 장 소 : 전북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호남고속도로 익산 IC에서 15분) / 개관 오전 9시~오후 6시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본·말사(전북사암승가회)
- 문 의 : 금산사 063) 548-4441~2, 전북불교회관 063) 251-4942





【미륵사지 부처님 사리장엄기 중에서】 가만히 생각하건대, 法王(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따라 감응하시고, (중생들의) 바람에 맞추어 몸을 드러내심은 물속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왕궁에 태어나셔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8곡(斛)의 사리를 남겨 삼천대천세계를 이익되게 하셨다. (그러니) 마침내 오색으로 빛나는 사리를 7번 요잡(오른쪽으로 돌면서 경의를 표함)하면 그 신통변화는 불가사의할 것이다. …〈하략〉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존엄사, 관심 없는 불교계

국내 처음으로 6월 23일 연명치료 중단 방식의 존엄사가 공식 시행된 김 모(77)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호흡을 유지하면서 존엄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해 종교계, 특히 불교계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어 아쉬움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8월 말까지 초안을 마련해 종교계, 시민각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도 이에 맞춰 기존 2건의 존엄사 법안 외에 3건의 존엄사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조계종은 종단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2004~2006년 불교생명윤리관에 관해 연구를 진행한 불교생명윤리연구위원회(위원장 미산) 연구결과가 존엄사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불교생명윤리연구위는 안락사의 경우 '자살을 도와주는 살인'으로 정의한 반면, 존엄사는 "행위 판단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치료불가능한 경우) 살아있을 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사로서의 존엄사는 안락사의 대안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뇌사나 의식 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식이 있을 때 환자의 의사표명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존엄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생전에 유언장 등을 통해 의사표명하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연구상황보다 현재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데 있다. 존엄사를 단순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봐야 할지,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 과정으로 봐야할지, 자연사 기준과 더불어 연명치료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사용, 호스피스, 종교의식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불교는 타 종교와 다르게 대중 합의에 의한 원융 살림을 꾸리는 것이 미덕으로 자리했다. 사회 현안에 불교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칼에 정리하려는 성급함을 버리고 철저히 대중공의에 따라야 한다.

불교계 안에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이를 토대로 존엄사에 관한 사회적 담론에 당당히 참여하는 불교계의 모습이 필요한 때다.

'사찰 관광지화' 위험수위 넘어

조계종 전국 20여 개 사찰 피해 사례 조사… '문화유산지역' 지정돼야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거행될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앞두고 일부 공원지역 사찰의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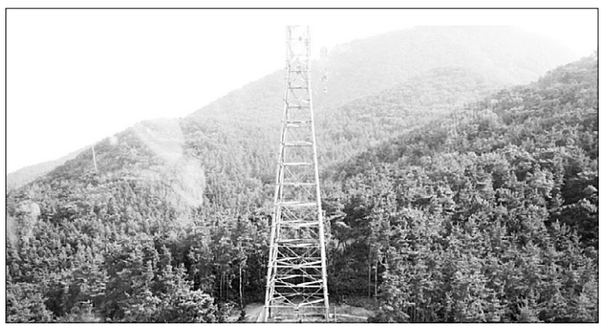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이 6월 19일부터 4일간 전국 20여 개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교적 성지이자 국민들의 정신적 휴식처인 사찰의 피해는 심각했다.

합천 해인사는 '문화유산지역'이 아닌 국립공원 등산로 중심으로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서울 화계사는 사찰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안내판을 해당 지자체가 철거 요청하기까지 했다.

보은 법주사는 홍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벌목조차 불허돼 매년 계곡이 범람하는 피해를 겪고 있는 한편, 영천 은해사와 합천 해인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해당 지자체가 손을 놓아 수 천 년간 지켜져 온 숲이 파헤쳐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경산 선본사 등 케이블카 설치로 몸살을 겪는 곳도 많았다.



통영 미래사 앞에 세워진 송전탑.

사찰의 관광지화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서울 진관사는 진입로 초입에 불법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고, 북한산 금선사는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로 수행환경 침해가 심각했다. 합천 해인사는 집단시설지구 내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20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여타 사찰까지 조사하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종교적 성지이자 국민들의 정신적 휴식처인 사찰이 하루 속히 공원지역에서 해제돼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軍 무단점유 사찰 토지 원상복구 '약속'

40여 년 군부대에 무단점유됐던 사찰 토지가 원상복구를 약속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공군방공포병사령부(담당부서 감찰과, 이하 방공사령부)로부터 양산 내원사 소유지 중 군사부지로 사용되며 훼손돼 온 토지를 2010년부터 원상복구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6월 25일 발표했다.

방공사령부는 1960년대 군사정권시절, 천성산 정상부에 위치한 내원사 소유 토지를 일방적으로 점유해 군사기지로 사용해왔다. 이 토지는 2003년 12월 기지 일부가 철거되고, 2006년 2월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군사목적 사용이 종료됐음에도 소유권자인 내원사로 반환되지 않았다.

특히 고속철도 관통문제로 사회이슈화됐던 천성산 화엄늪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해 화엄늪 생태계와 내원사 수행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곳임에도 최근 양산시가 해맞이공원(문화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종단과의 마찰마저 우려됐었다.

주무부서인 조계종 사회부와 환경위원회는 "이번 방공사령부의 공문은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라며 "내원사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사찰 수행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포교원 직영 포교당 운영이 해답"

포교원 · 종평위 '종교편향과 도심포교' 토론



6월 25일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종교편향과 도심포교' 토론회를 열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과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종교편향과 도심포교' 토론회를 열고 불교계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1부 성시화운동과 도심전도 전략, 2부 불교계 도심포교 대응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정웅기 종자연 사무처장과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 교수가 각각 발제를, 종회의원 정범 스님,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제2발제에서 김응철 교수는 "1990년대 신도시 개발 지역에 대규모 도심 사찰이 부재했다. 불교세가 열세인 서울 등 대도시와 영남을 제외한 중소도시 지역에 대한 종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1종교의 지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극복방안으로 "목동, 용산 등 신도심에 포교원이 직영하는 포교당을 신설하고, 갓바위나 봉정암 등 주요 기도사찰도 도심기도원을 건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더불어 각 교구본사 주지 임기 내 직영 도심포교사찰을 1개 이상 건립하는 종법을 제정한다면 10년 내 50여 개 이상의 도심포교사찰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도심사찰 확대안 외에 △도심사찰 운영모델 개발 △전문 도심포교인력 양성 △특별법 제정 및 포교기금 조성 △다양한 포교프로그램 개발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정웅기 종자연 사무처장은 "개신교 성시화운동은 정교분리, 종교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이를 모방한 공격적 · 배타적 포교는 종교간 경쟁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덕현 · 이상언 기자

조계종 승려의식성향 조사해

종회 교육분과위 · 교육원 7월 한달간 실시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정묵)와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7월 1~30일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을 위한 조계종 승려의식성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전국 조계종 승려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현장방문 또는 우편발송을 통해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8월 10일 보고서 발간에 이어 10월 9일 학술세미나를 통해 실질적 대안 등이 모색될 예정이다.

현종 스님은 "정화 이후 시대가 급변하면서 승가가 이를 뒤따르지 못한 탓에 막연하게 승려생활을 하고 있다"며 "승려 의식과 지향점 등을 탐색해 많은 승려들이 지향하는 승려상을 정립하고자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東大 이사장 영배 스님 사퇴 의사 밝혀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이사장과 이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영배 스님은 6월 23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가진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동국대 이사들간에 합의 · 추대로 차기 이사장이 선출될 것"이라며 "이사장직과 이사직 모두 내놓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해 두 명을 제외한 이사를 모두 만나 간곡히 당부했다. 총무원장 선거와 연관됐다는 소문이 많은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이사장 거취와 정치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영배 스님은 확답을 피했지만 차기 이사장은 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이 합의 추대될 예정이다. **전문은 붓다뉴스에**

조동섭 기자



군종특별교구 · 군불총 호국영령영가천도법회 봉행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와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태영)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21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호국영령영가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교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군불총회장 김태영 합참의장,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정인악 군불교후원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영가 이운을 시작으로 천도의식과 국군장병 무운장구 및 국운융창 기원 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선지식 도량 건립을 위한
보명사 땅한평사기 및 천일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천안(天安) 성거산(聖居山) 보명사,
옛 지명은 도솔(兜率).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바세계 출현하시기 전에 주석하셨고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보살의 몸으로 현재 설법하시고 계시는 곳, 현재는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땅이란 뜻으로 天安이라 합니다.
고려를 건국하신 태조 왕건 대왕께서 이 산의 신령스러움에 이끌려 산 정상에 이르러 선지식의 가르침과 가피를 입은 후 삼국을 통일하고 건국의 대업을 성취하게 되었다 해서 성거산이라 이름짓고 매년 성대히 재를 올렸고 역대 왕들도 봉행했으며 조선 왕조에까지 이어오던 신령스러운 성지입니다.
이 성거산 요지에 다른 인연으로 보명사가 창건되어 유지 되었고 소납의 특별한 인연으로 53 선지식 법회를 통하여 선지식 도량, 정법 도량으로 거듭 나고자 노력 정진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확보되어있는 5만여평의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항구적으로, 정법 선지식도량으로, 종단의 공적 재산으로, 삼보정재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많은 중생들이 편안함과 만족을 성취하는 도량.
이 땅에 남북의 분단이 소멸되고 통일대국 성취를 기원하는 도량으로 더 나아가 선지식을 친견할수있고 선지식을 육성하고 우리 모두가 선지식이 되는 선지식 도량을 굳건히 건설하고자 발원합니다.
많은 사부 대중들의 원력과 신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 거룩한 선지식 도량 건립 땅 한평사기 불사와 천일기도에 동참하여 무량복덕, 무량공덕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성거산 보 명 사
선 지 식 도 량 주지 靑虛 성문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2리 117-1
TEL.041-522-3362 FAX.041-523-3361
www.bomyungsa.org
보명사

※선지식도량 성거산「보명사」전경

미래를 여는 선지식 도량 성거산 보명사
53 선지식 초청대법회

불사에 마음내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일기도 및 땅한평사기 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가정에
화목함이 샘솟고
일터와 인연들은 원만하게 성취되며
불보살의 가피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세세생생 좋은 곳에 태어나 좋은 스승 만나 뵙고
환의로서 성불하길 바랍니다.

• 1구좌(10평) : 50만원 • 1평 : 5만원
• 총면적 : 5,000구좌(5만평)
• 계좌번호 : 농 협 351-0001-7235-63 대한불교조계종 보명사
우체국 311993-01-002169 대한불교조계종 보명사

천일기도

	기 도	양 력	음 력	요일
입재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	09년 2월12일	09년 1월 18일	목
2차	아미타경	09년 5월23일	09년 4월 29일	토
3차	금강경	09년 8월31일	09년 7월 12일	월
4차	자비도량 참법	09년 12월 9일	09년 10월 21일	수
5차	발심수행장 3독	10년 3월19일	10년 2월 4일	금
6차	관세음보살 보문품	10년 6월27일	10년 5월 16일	일
7차	원각경 보안보살장	10년 10월 5일	10월 8월 28일	월
8차	보현행원품	11년 1월13일	10년 12월 10일	화
9차	금강경	11년 4월23일	11년 3월 21일	금
10차	108참회	11년 8월 1일	11년 7월 2일	월
회향		11년 11월 8일	11년 10월 13일	화

• 천일기도 : 200만원(분할납부 가능) ※각 백일기도는 20만원

불사에 동참하신 분은 사적비에 이름을 새겨드리며,
동참하신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의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리산 댐·케이블카 등 건설 재추진

지리산 인근 실상사 등 5개 사찰 '불교연대(가칭)' 결성 · 공동 대응 결의

4대강 정비사업의 여파가 지리산까지 밀어닥쳤다. 2001년 백지화됐던 지리산 댐을 비롯해 케이블카 등 지리산 개발사업이 MB정부 하에 다시 궤도에 오름에 따라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 중앙하천 심의위원회는 6월 18일 '지리산 댐'이 포함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가결했다. 국토해양부 등 건설당국은 경남 함양댐(지리산 댐) 등 3곳에 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리산 댐'은 지난 1997년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2000년대 초 백지화된 바 있다. 실상사 수몰 등으로 도법, 수경 스님 등의 주도로 불교환경운동이 본격화 된 계기가 됐다.

이번에는 4대강 정비 사업과 부산과 대구 등의 새로운 식수원 확보 문제와 맞물려 추진 강도가 더욱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월 9일 4대강 정비사업으로 줄어드는 부산시 식수원 해결 문제에 대해 "경남도와 TF팀을 구성, 지리산 물 이용 원칙으로, 수량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10일 함양군을 방문해 "함양댐 건설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하나이며, 군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한 남강댐 치수 증대사업이 경남 서부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치자 다른 방안으로 재추진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리산 댐이 건설될 경우 실상사 1.5km 전방까지 물에 잠겨 국보 제10호인 백장암 3층석탑과 보물 10여 점 등 보유 국보급 문화재의 훼손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실상사와 쌍계사, 화엄사, 벽송사, 대원사 등 인근 5개 사찰도 10일 실상사에서 첫 모임을 가진데 이어 26일 쌍계사에서 불교연대(가칭)를 결성하고 지리산댐 백지화를 위해 범불교적 대응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한편, 댐 건설과 더불어 관광수익을 위한 케이블카 건설도 본격화되고 있다. 산청군은 2011년 착공을 목표로 제석봉부터 중산리까지 5km에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이며, 전남 구례군도 온천관광지에서 노고단까지 4.5km에 케이블카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도 백무동에서 제석봉 3.9km 구간에 대해 최근 용역 조사에 들어갔으며, 전북 남원시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뱀사골에서 정령치 3.4km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종걸 스님, 연관 스님 등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5월부터 천왕봉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설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조계사, 故 노무현 前 대통령 5재 봉행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은 6월 26일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5재를 봉행했다. 5재에는 영가법문을 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노 前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한명숙 前 총리, 선진규 원장, 김병준 前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임채정 前 국회의장 등 정상균 민주당 대표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49재 봉행에 앞서 노건호씨는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노씨는 스님에게 고인의 49재 행사를 매주 사찰에서 봉행하고 범불교적인 참여와 지원을 보내는 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 前 대통령의 비문을 써줄 것을 청했고, 지관 스님은 이를 수락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북한 주민 구호활동 지속돼야"

평화재단 심포지엄서 법륜 스님 강조



"앉아서 강경이니 햇빛이니 하는 것은 소용없다. 직접 가서 보면 북한 주민 고통을 알 것이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사진)은 6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 ·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여는 말로 이렇게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주변국들의 강경노선, 남한의 PSI 참여 등 연일 악화되는 한반도 긴장 속에 북한 주민을 위한 구호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재단이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남북통일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마크 치멕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 소장, 이부영 국회의원, 이수혁 전 독일 대사 등 통일 및 정관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륜 스님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동 · 서독 통일 과정과 서독 내부 갈등 수렴을 재조명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유르겐 아레츠 투링겐주 경제부 차관은 독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하게 두드러진다고 강조했으며, 한운석 고려대 교수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남남갈등 해결과 북체제변환을 위한 북한전문 엘리트 양성 △NGO 교류 및 통일 연구 활성화를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서불대생 '임시이사 파견' 촉구

6월 24일 교육부 방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불대 학생 54인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촉구했다.

서불대 학생회는 6월 24일 교과부 후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학생을 볼모로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하는 이사회는 필요없다! 임시이사 파견하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서불대 학생회는 "교과부의 황윤식 총장지위를 인정하는 계고가 있자 이사회는 황 총장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정식교수들을 모두 해임했다"며 "이사회의 난맥핵정이 끝없이 치달으면서 학생들의 고통은 끝없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회는 "학교측이 고용한 용역을 피해 음식점을 전전하거나 월세방을 얻어 수업을 들어야 했다.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사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불대 학생회는 △교과부의 즉각적인 임시이사 파견 △김명권 교수 등의 징계를 취소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 △교내 CCTV 철거 △법인의 학사행정 관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70년대 1만원권 도안 석굴암 불상될 뻔

종교계 반대로 무산

6월 23일 5만원권의 출현으로 화폐의 상징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36년 동안 최고액권 역할을 담당해온 1만원권 원주인공이 '석굴암 부처님'이었다는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1970년대 경제 성장에 맞춰 박정희 정부는 1만원권이라는 고액권 도입을 추진했다. 1972년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의 선정위원회는 1만원권 앞면에 국보 제24호 석굴암 본존석가여래좌상을, 뒷면에는 불국사 전경을 싣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쇄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종교계 반대로 석굴암 1만원권은 무산된다. 기독교측이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일'이라며 반대했으며, 불교계도 '신성한 부처님에게 불경죄를 저지르는 처사'라며 반대했다. 시쇄까지 마치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승인도 받았지만 결국 이듬해 세종대왕과 경복궁 근정전으로 바뀐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회관 문 활짝

안양 한마음선원 준공법회 봉행



6월 21일 문을 연 안양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이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각 신도단체들의 봉사와 문화강좌 등 신행활동의 구심이 될 불교문화회관을 열었다.

한마음선원은 6월 21일 오후2시 선원 인근에 위치한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 준공 화합재와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한 전국 지원장스님과 사중 스님들, 박원식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 등 1500여 명이 동참해 회관 준공을 축하했다. 화합재는 삼배와 <뜻으로 푼 반야심경> 봉독 등으로, 준공법회는 경과보고와 주지스님의 인사말씀, 박원식 신도회장의 축사, 공로패 증정, 축가, 사홍서원에 이어 테이프 절단과 현판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주지 혜원 스님은 설계 및 감리를 맡아 불사를 이끌어 온 김기상 수석부회장(건화종합건축회사 대표)과 공사를 맡아 열과 성을 다해 온 예림건설 이명규 대표에게 각각 공로패를 증정했다.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은 1,075㎡의 넓이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은 1998㎡다. 지하층은 교육연구시설로 150명 이상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과 교육실 모임방 창고 기계실 등이 들어섰다. 지상1층은 천정 높이 8m의 대강당으로 대규모 장엄물 등 시설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육관과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지상 2층과 3층은 사무실과 각종 모임방으로 꾸며져 교육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임연태 기자**

"기독교 학계에 비해 불교계 타종교 연구 안해"

참여불교재가연대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불교인은 기독교를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한국 불교는 교학과 수행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가? 종교차별과 편향의 현실을 타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신교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은 아닌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가 6월 20일 창립 10주년 기념 '종교권력의 시대, 불교의 상상력'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는 현 정부의 잘못된 종교 전략에 대한 비판 못지 않게 불교계의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토론에 참석한 최준식 교수(이화여대 한국학)는 "불교 종단이나 학계에서는 기독교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없는 반면 기독교 학계는 불교나 동양 종교에 해박한 학자들이 많다"며 "상대를 모르고 기독교의 엄청난 파상공세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단법인 씨알 백찬홍 홍보위원장은 "불교계가 현 정권의 친 기독교적 행보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불교계 역시 오랫동안 권력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기독교가 권력화 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인철 교수(한신대 종교문화학과)가 '현대 한국의 종교화 국가권력'을, 조은수 교수(서울대)가 '불교운동을 위한 창조적 상상력'을 각각 발표해 불교계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망했다. **이상언 기자**



어린이포교 도량서 새싹불자 키워요

조계종 포교원, 중심도량 61곳 발표

어린이 지도교사 부족, 스님들의 무관심, 빈약한 재정 등의 이유로 기피됐던 어린이 포교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6월 23일 어린이 법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포교 중심도량 61곳을 발표했다.

포교원은 전국 어린이·청소년 포교중심도량 신청 143곳 중 서울 조계사 등 10곳, 경기도 화성 신흥사 등 10곳, 경상도 17곳, 강원 7곳 등 61곳을 포교중심도량으로 선정하고 종단차원의 전폭 지원을 통해 어린이 포교의 활성화에 전력한다.

포교 중심도량에 선정된 사찰 중 양양 무산사, 평택 명법사, 경주 기림사, 부산 보림사, 부산 부곡암, 창원 천주암, 밀양 무봉사, 진도 향적사는 현재 법회 개설을 준비 중으로 어린이 법회에 강한 의지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도 3곳, 대전 1곳, 충남 1곳이 중심도량으로 선정됐으며 충북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아 포교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포교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교 중심도량으로 선정된 사찰은 포교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며 지역 어린이포교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밖에 각종 교구교재와 프로그램 및 포교사업과 관련한 종단 사업시행에 우선적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포교 중심도량은 어린이청소년 법회 상시 운영의 의무와 함께 △법회 유지를 위한 공간 마련 및 인력 편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불교 프로그램 운영 △관내 파라미타 분회 학교 및 특정학교와 장학결연 △포교사업 추진을 위한 정례회의 참석 △운영현황 및 평가서를 포교원에 알려야 하는 기본의무가 주어진다.

포교원은 7월 11일 어린이포교전진대회 때 어린이청소년 포교 중심도량 제도 시행 선포식을 봉행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사찰	연락처	사찰	연락처
서울 조계사	02-732-2183	영천 선재정사	054-336-1575
서울 관음사	02-582-8609	영천 신영포교당	054-335-0271
인천불교회관	032-442-9910	경주 기림사	054-744-2292
서울 영화사	02-444-4321	진해 대광사	055-545-9595
김포 금정사	031-984-3235	경주 분황사	054-742-9922
서울 화계사	02-902-2663	영덕 옥천사	054-732-3888
서울 금장사	02-395-0042	산청 포교당	055-973-1108
서울 개운사	02-924-3841	함양 보현암	055-963-6984
용인 용담사	031-336-9714	사천 염불암	055-854-0118
서울 옥천암	02-395-4031	통영 두타사	055-854-0118
서울 백운암(상도선원)	02-815-3391	남해포교당(법흥사)	055-864-3243
서울 봉은사	02-511-6070	서울 보리사	02-562-9939
강화 법왕사	032-933-2959	하남 동명사	02-427-7088
화성 신흥사	031-357-2695	부산 광명사	051-633-5900
수원 수원사	031-255-2692	부산 보림사	051-501-0049
의왕 용화사	031-452-1603	부산 부곡암	051-518-6150
수원 청련암	031-255-1020	창원 천주암	055-295-0108
홍천 지장선원	033-432-3123	울산 월봉사	052-251-4602
이천 영월암	031-635-3457	밀양 무봉사	055-354-3296
양양 무산사	011-9899-1084	부산 금화사	051-582-3042
평창 극락사	033-332-2308	마산 정법사	055-246-8393
동해 삼화사	033-534-7661	부산 홍법사	051-508-0345
영월 법흥사	033-375-9177	영주 영전사	054-636-2328
강릉 관음사	033-643-2958	대구 삼보사	053-768-5220
강릉 백운사	033-661-6222	나주 심향사	061-334-2880
대전 광제사	042-627-8600	광주 원각사	062-223-3168
평택 명법사	031-655-3215	진도 향적사	061-544-2628
논산 석림사	041-741-0414	제주 불탑사	064-755-9283
성주 관운사	054-931-7777	정읍 성불암	063-536-4247
대구 화성사	053-323-6021	광주 약사사	031-765-1047
경산 하양포교당	053-851-2315		

‘청소년 발원문 선집’ 봉헌

전국교법사단, 교법사 창설 63주년 기념법회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전국교법사단(단장 유동호)이 교법사 창설 63주년을 기념해 <청소년 발원문 선집>을 발간했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은 6월 20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열린 교법사 창설 64주년 기념법회에서 <청소년 발원문 선집>을 봉헌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 불교교육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용표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전국 종립학교장과 명예교법사, 교법사, 불교청소년 단체지도자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계성 스님은 축사에서 “자본주의, 물질·황금만능 시대에 학교와 가정에서 생명, 인성 등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발원하는 삶을 사는 자세 교육이 절실하다”며 교법사를 격려했다.

이에 앞서 유동호 단장은 인사말에서 “불교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발원문의 올바른 의미를 알려주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 발원문 선집>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불자들이 불교 신행 현장에서 신심과 보리심을 고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 발원문 선집>은 <청소년 법요집>(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종립학교, 파라미타 행사 현장에서 사용됐던 각종 발원문들을 수합 정리한 것이다.


계성 스님과 유동호 교법사 단장.

<청소년 발원문 선집>에는 △정기 법회 △특별법회 △행복한 가정, 사랑의 완성을 위한 발원문을 게재해 청소년들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김제 금산중학교 박기남 교법사의 신입법사 품수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상언 기자

가산 스님, 남북방 강맥 전해

7월 19일, 대원 문재현 거사에게 전강

북방의 대강백인 금강산 장안사 화엄종주 회광 사선불(晦光 師璿佛)의 강맥과 남방의 대강백인 해인사 용성진종(龍城震鐘) 스님의 양대 강맥을 함께 이은 가산 스님의 전강의식이 봉행된다.

가산 스님은 7월 19일 오후 2시 포천 국제정맥선원에서 대원 문재현 거사에게 남·북방의 강맥을 동시에 전하는 전강식을 거행한다. 이날 가산 스님은 사형인 대원 거사에게 금강산 강맥의 신표(信標)인 불자(拂子)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도 함께 전한다.

가산 스님은 미리 발표한 전강송을 통해 “석가께서 일찍이 전한 바가 없고 나 또한 일찍이 전한 바가 없는데, 용성은 다함 없게 전했으니 능초(能超, 대원 거사)여 뜻과 같이 전할진저”라고 밝혔다.

국제정맥선원은 “굳이 사제인 가산 스님에게 전강 받는 것을 감수한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전강의식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031)531-8805

비만은 질병 다각도로 해결해야

조계종 포교원, 8월 1~14일 비만치유학교

아동 비만은 질병이다. 어린 시절 비만은 성인이 되기 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은 2배 이상 높다. 신체적 질병 외에도 정서적인 영향이 더 큰 문제다. 사회적응, 정서발달이 떨어지면서 자신감 결여와 학업 수행능력이 떨어짐은 물론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인스턴트 음식과 스트레스 등 각종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아동 청소년의 비만 문제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해결하고자 8월 1~14일 대구 유가사(주지 계성)에서 ‘인성형 아동·청소년 비만치유학교(The Less The More)’를 연다.

다도명상, 108배, 요가, 자아존중감, 숲체험, 우리몸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인 변화와 조절력 향상을 유도하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식습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방학 숙제 및 개인 학습 지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참가비는 70만원. (02)2011-1903

이상언 기자

“어린이 변화에 지도자 따라가야”

불레협 강습회

불교 어린이 지도자들이 바쁘게 여름불교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불교레크레이션협회(회장 송묵, 이하 불레협)는 6월 21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제43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서울 경기권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부처님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습회에서는 운동회, 찬불가 지도법, 찬불가 율동 및 레크댄스 등이 진행됐다.

앞서 봉행된 입재식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등이 참석해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혜총 스님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들이 변하듯 지도자들도 변화에 따라 강습을 통해 배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어린이 들이 참다운 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

불레협 김석두 사무총장은 “1박2일 과정 프로그램을 압축 구성하고 진행해 지도자들의 참여율도 높고 지난해에 비해 더 활기찬 느낌”이라며 “불교의 미래가 어린이 포교에 있는 만큼 종단과 전국 각 사찰의 스님, 지도들의 원력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상언 기자

인체공학 특성 고려한 성불화 ‘인기’

기능성 전문구두 메이커 (주)아미타사업본부(대표 조현규)에서 불자들을 위한 신발 ‘아미타’를 내놓아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인체공학적 특성을 고려해 디자인된 이 신발은 특수공학 스프링을 신발에 접목시켜 오랫동안 걸어도 발이 피곤하지 않으며, 통풍성이 뛰어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 준다. 특히 무릎보호와 척추보호에 효과를 가진 설계와 최첨단 신소재, 방수기능의 액션 누벅소재, 산악지대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 바닥창 구조, 비나 눈 올 때를 대비한 특수 돌기구조에 의한 미끄럼 방지기능 등이 탁월하고 내마모성 또한 강하다.

(070)8200-1417



명원 김미희 선생 한국차문화대상 추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의 어머니 명원 김미희 선생(사진)이 한국과 세계 차문화 선구자로서 공적을 인정받았다.

대구세계차문화축제위원회는 6월 18일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구세계차문화축제에서 故 김미희 선생에게 한국차문화대상과 세계차문화대상을 추서했다.

대구세계차문화축제위원회는 “명원 선생은 한국차(茶)문화 산업 교육의 선구자다. 궁중다례 계승을 통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차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공적 사항을 발표했다.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호두마을 집중수행=천안 호두마을은 8월 3차례에 걸쳐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8월 1~5일, 7~16일, 21~25일 능혜 스님, 우또다나 스님이 지도한다. 동참금은 4박5일 12만 5000원, 9박10일 25만원으로 선착순 55명 접수. (041)567-2841, www.vmcwv.org

●사마타 위빠사나 집중수행=명상선원은 7월 10~19일, 8월 7~16일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사마타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아나빠나사띠 <안반수의경> 좌선 수행으로 진행되며 하루 한 차례 스님과 개인 인터뷰를 통해 수행점검 할 수 있다. 교재는 <숫타니파타> (한국 빠알리성전협회 刊) 1일 참가비는 1만 5000원. (033)333-8429

●마음바꾸기 명상클리닉 염지관 수행=한국명상치료학회 명상상담연구원은 7월 18~19일, 7월 31일~8월 2일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평택 동녕사에서 마음바꾸기 명상클리닉 염지관(念止觀) 수행을 실시한다. 인경 스님이 지도하는 염지관 수행은 ‘알아차리고(sati, 念)’ ‘머물러(samatha, 止)’ ‘지켜보기(vipassana, 觀)’ 명상법으로 명상 수행의 기초다. 동참금은 20만원이고, 선착순 15명 접수가능하다. (02)2236-5306

큰스님과 함께하는 생전예수재 및 백중 영가천도대법회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팔공산 은해사는 미타도량으로서 기축년 개산하여 1200년을 맞이하는 기축년에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행복한 삶을 발원하는 **생전예수재**와 소중한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천도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법회일시 및 초청법사

	일 시 (양 력)	일 시 (음 력)	법 사 스 님
입재	7월 17일 (금요일)	음(윤) 5월 25일	돈관 큰스님 (은해사 교구장)
초재	7월 26일 (일요일)	음 6월 5일	원학 큰스님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2재	8월 2일 (일요일)	음 6월 12일	지안 큰스님 (종립은해사 승가대학원장)
3재	8월 9일 (일요일)	음 6월 19일	정우 큰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교구장)
4재	8월 16일 (일요일)	음 6월 26일	묘허 큰스님 (단양 방곡사 회주)
5재	8월 23일 (일요일)	음 7월 4일	혜국 큰스님 (충주 석종사 회주)
6재	8월 30일 (일요일)	음 7월 11일	월파 큰스님 (조계종원로수석부의장)
7재 (회향일)	9월 3일 (목요일)	음 7월 15일	혜인 큰스님 (제주 약천사 회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여름 별빛 템플스테이

은빛 여행 은해사 여름 수련회

★ 일정

· **1차 중·고등부** – 7.25(토) ~ 27(월) (2박3일)
모집인원 100명 / 회비 40,000원

· **2차 초등부** – 7.29(수) ~ 31(금) (2박3일)
모집인원 200명 / 회비 30,000원

· **3차 대학생·일반인** – 8. 7(금) ~ 9(일) (2박3일)
모집인원 100명 / 회비 50,000원

· **4차 대학생·일반인** – 8.14(금) ~ 16(일) (2박3일)
모집인원 100명 / 회비 50,000원



■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09년 6월 1일 부터 7월 20일 까지** (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은 은해사 홈페이지(www.eunhaesa.org)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 접수 및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 시 간 : 입산 – 입재일 오후 2시
하산 – 회향일 오전 11시
4) 문 의 : (054)335-3318~9



현실의 종교, 불교가 제시하는 정치리더십이란?

"오직 '상구보리 하화중생'뿐"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갑)



1970년대 한국의 정치는 파행의 길을 걷고 있었다. 혈기왕성한 대학생 강창일의 화두는 '데모'였다. 출가를 꿈꿨던 젊은 시절 사회와 대중을 위해 불교가 해야 할 일을 골몰했다. 송광사에서 긴 참선 끝에 얻은 답은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었다.

예산 · 법안 처리 등을 놓고 사사건건 날선 대립만 하고 있는 국회는 탐(貪) · 진(瞋) · 치(痴)로 병든 사바세계의 축소판이었다. 이 속에서 불자로서 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넘어 함께 하는 이웃과 국가를 위한 희향의 삶을 살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부처님의 가피를 갚기 위해 난 지금 이 자리에 서있다.

정쟁의 대립 속에서는 부처님의 자비와 관용으로 너그럽게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하화중생의 투철한 사명감과 초발심을 성찰해야 한다. 불자정치인의 리더십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등, 자비, 용서를 되새기며 하심의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종으로 국민의 편에 서있는 데서 비롯된다.

정치를 위해서는 종교, 학연, 지연, 혈연, 명분 등 다양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지어놓은 공덕이었음을 절감한다. '3대가 선업을 쌓아야 스님 하나를 만든다'는 말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해 끊임없는 인연공덕을 지어놓음은 정치 입문의 바탕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을 부처님처럼 공경해야"

김진선 강원도지사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기상해 10분 명상, <반야심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민선 3선의 신화와 함께 올해로 11년째 강원도 지사로 몸담고 있으면서 '운이 좋았다'는 말들을 듣곤 한다. 하지만 당선은 절대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공덕을 쌓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고 바로 효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공덕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자 정치인이라면 거짓과 환심이 아닌 성실과 신뢰, 지역민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시민을 부처님처럼 공경해야한다. 불자 정치인으로 겸손과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성실과 신뢰, 열정과 애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 또한 끊임없는 공부와 수행의 자세로 언제 어떤 사항에서도 대처할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강원도를 11년간 지자체로 끌어가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는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유권자, 곧 '지역의 주인은 지역민'이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 민선제는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고 이행하기위해 지역실정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지역의 실정에 맞게 4년간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각 지역의 안정적인 분산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특별행정기관 이전 등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자치입권 확대 등 개선할 점이 많다.

민선 3선으로 강원도 지사를 마치고는 지방의 자치권 강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서원을 이루겠다.

불교인재원, '불교정치리더십' 강의

한 나라의 왕자였던 부처님은 불평등한 사성계급사회의 모순을 깨고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깨달음을 이뤘다. 부처님은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중들을 매료시켰다. 아쇼카왕 등 위정자를 비롯한 정치가와 장자들이 불자로서 불법을 외호했던 것은 현실과 밀착한 가르침 때문이었다.

현대에 이르러 불교는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격리돼 왔다. 미래불교의 근간인 인재불사는 고사하고 산 속에서 자족하는 수행에만 안주해 왔다.

사회 활동 중인 재가불자 가운데 특히 불자 정치인들은 '불자로서 정치하기 힘들다' 고 입을 모은다. 세상 모든 이치와 해답이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이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일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원(이사장 허경만)이 6월 23~24일 불교역사문화박물관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정치권에서 불교와 불교의 가치 실현을 위한 '불교정치리더십' 강의를 개최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될 듯하다.

행사에 참여한 재가불자 리더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치리더십과 현실정치 속에서 어떻게 불심을 발휘하는지 불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리=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정치는 무상하다는 것 명심해야"

김응철 불교인재원 원장



<금강경> 속에 정치가 있다? <금강경>속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야기들이다. 특히 <금강경>에 나타난 정치사상은 현실지향적인 세간과 출세간, 종교와 사회를 넘어 화합과 통합의 형태다.

수보리가 정치인이라면 '세존이시여, 국민을 위해 최선의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라고 물었을 것이다. 부처님은 '만약 정치인이 자신이 이념이나 생각에 집착하거나, 국민들을 내 편과 네 편 등 이분법적으로 분별해 생각하거나, 국민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정치권력과 영향력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다면 이미 정치인이 아니다' 고 대답하신다.

정치는 국민의 괴로움의 근원을 파악해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제시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불자 정치인은 응공, 공양을 받아도 허물을 짓지 않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아상, 아견, 아취에서 벗어나 육바라밀을 행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냉철히 꿰뚫어 보고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참불자 정치인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찾아 올바른 방법을 모색해 제시해야한다. 정치인은 정치는 무상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한다.

정치인은 팔정도의 자세로 민정에 임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바른 말과 행동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국민의 안락과 행복 속에서 환희심을 느낄 것을 설하고 있다.

"불자 정치인은 보살돼야"

최병국 국회의원(한나라당 남구갑 3선)



어머니는 늘 아들을 위해 사찰에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시나브로 불연을 맺어 지금은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정각회 회장직까지 맡게 됐다. 정치계 입문 10년, 법조계 생활 30년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리더십은 2600년 전 설한 부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음에 놀라고 있다. 앞으로의 정치는 우주 삼천대천이 내 몸같이 하나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사상과 이타행의 실천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즘 정치는 '이미지 정치' '감성 정치'의 경향이 뚜렷하다. 감성과 이미지에 호소하는 정치는 국민에게 허상을 보이며 펼치는 위험한 정치다. 국민의 바른 판단과 정치인들의 바른 정치가 절실하다. 현실 정치는 비굴, 야비, 부패, 잔인성으로 물들어 최대다수를 위해 최대행복으로 이끄는 이상정치를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 현실정치가 부패되고 감성정치가 판을 치지만 불자로서 하심의 자세로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민심은 자연스럽게 진심을 바라보게 된다.

불가에서는 해물지심(害物之心), 작은 미물도 자신을 해치려는 마음은 안다고 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과 행동은 민심이 판단한다. 재력과 권력, 언변으로 산 민심은 일시적인 것이다. 불자로서 정치에 입문을 하고 싶다면 불교교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하라.

특히 불자 정치인은 보살이다. 민심을 읽고 민심이 원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는 상생공존, 현실참여의 불교를 표방하길 바란다.

천년동안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계신 은진미륵 (보물 제 218호)

미륵성지 기도영험도량

은진미륵 관촉사로 초대합니다

일천년 동안 한 곳에 서서, 수많은 중생들을 안아준 은진미륵!

은진미륵은 서기968년 조성을 시작하여 장장 38년간 불사를 진행. 서기1006년(목종 9년) 완성하였는데 찬란한 서기가 삼칠일 동안 천지에 가득하여 찾아오는 사람으로 저잣거리를 이룰 만큼 북적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진미륵의 백호에서 나오는 황금빛이 너무 밝아 송나라의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예배하고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빛나는 미륵불이구나!"하고 감탄했다하여 사찰 이름이 관촉사(灌燭寺)로 명명됐다고〈관촉사사적비명〉은 적고 있습니다.



기축년 윤달 생전 예수재 및 성지순례 안내

생전 예수재의 내력과 원력

부처님의 대공덕주인 '밤비사라' 왕은 명부를 체험한 후에 다시 깨어나 전생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생전 예수재를 무려 5번이나 열어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무제 역시 매년 봉행하여 인연도리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관촉사에서는 생전 예수재 및 가사 불사를 봉행코저 하오니 나와 조상 그리고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생전 예수재와 가사불사를 통해 전생, 금생 인연 법문을 듣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수행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가피 입으시길 바랍니다.

■ 생전 예수재
· 기도입재 : 2009년 6월 5일 (음, 5월 13일) / 천도재 봉행 : 매주 목요일 대웅보전 오전 10시 30분
· 기도회향 : 2009년 7월 23일 (음, 6월 2일) / 동참금 : 예수재 1인 5만원 / 가사불사 성의껏 동참

■ 성지순례
· 일 정 : 2009년 6월 30일 (윤 5월 8일) / · 순례사찰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 출발장소 : 관촉사 주차장 오전 7시 / · 동 참 금 : 1인 3만원 (점심 제공)
· 입금계좌 : 우체국 310086-01-000089 / 국민은행 453201-04-164635 (예금주 : 관촉사)

■ 1029일 영가 천도 12번째 회향
· 기도일정 : 2009년 6월 7일 (음, 5월 15일)

■ 2009년 수능 100일 기도 입재
· 2009년 8월 4일 (음, 6월 14일)

* 관촉사 은진미륵 부처님께 좋은 성적 성취 발원 수능 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대중스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축원 및 기도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산 관촉사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번지 ☎ 041)736-5700~2 / 팩스 041)733-4169

이웃 종교 RELIGION

아웅산 수치 생일 맞아 각지 구명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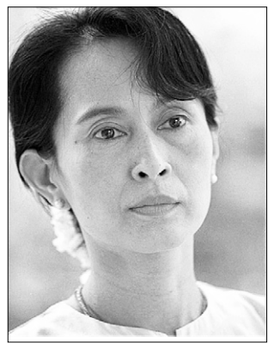
세계각국 유명인사 비롯 정치수들 탄원활동 이어져

지난 6월 19일 아웅산 수치 여사의 생일을 앞두고 세계 각지에서 구명운동이 일어났다. 100명 이상의 前 정치수들과 유명인사들은 수치 여사를 석방할 것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를 상대로 무기금수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버마 ·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의 핵심인물이자 정치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버마 · 미얀마 정부의 인권탄압과 이에 맞서 싸우는 민중들의 상징이다.

현재 수치 여사는 최근 가택연금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군부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연금이 재연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등지의 20개 이상 국가의 전(前) 정치수들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64번째 생일이자 그


아웅산 수치 여사.

녀의 14년 째 구금을 기념해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www.64forsuu.org 사이트를 중심으로 탄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이 캠페인은 수치 여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64단어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폴 매카트니, 오노 요꼬, 보노, U2, 드류 배리모어, 데이비드 베컴, 산드라 블록 등의 유명인사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었던 매리 로빈슨,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의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등록됐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치 여사의 구명운동에 동참해 눈길을 끈다. 김 전 대통령은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 AI)의 요청을 받아 특별 메시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김 전대통령은 특별 메시지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 계속되는 구금은 아시아의 수치이며, 버마 민주주의를 향한 평화적 정권이양과 정치개혁은 반드시 국제사회와 아시아가 우선순위에 두어야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달라이 라마 민주주의 물결 필요 주장

티베트 다음 지도자 투표로 뽑을 것 제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다음 지도자를 투표로 뽑을 것을 제안했다.

로이터통신 6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스님과 신도들을 위한 비디오 연설에서 "한 사람의 달라이 라마에게 정신적 · 정치적 지도력을 맡기는 것은 너무 버거울 뿐 아니라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면서 민주적인 지도자 선거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적 체제는 더 넓은 세계와 보조를 맞추고, 정부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달라이 라마 한 명에게 정신적, 정치적 지도력을 모두 맡기는 것은 더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달라이 라마 체제는 지난 400~500년 동안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왔고 꽤 유용했지만 이제는 끝났다.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최고의 체제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티베트 망명정부에도 민주주의 물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전에도 자신이 죽은 뒤에 지금의 제도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는 티베트인들에게 달려 있다며, 자신이 티베트인들에게 선거제도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나은 기자

캐나다 교도소 불교 교화서비스 활용

캐나다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선(禪)불교 상담서비스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 통신(CP)의 6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교정국 관리들은 재소자들에게 앞으로 3년간 불교를 바탕으로 한 정신적 가르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약 연장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연방 교정국 관리들은 "킹스턴의 쿨루타 불교센터(Kuluta Buddhist Centre)는 앞으로 3년간 40명의 불교도 수감자들에게 상담과 종교교육, 불교의 가르침을 제공하고 7만5천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불교센터의 한 교사는 "재소자들을 방문한 뒤 불교의 가르침이 중범죄자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빨리 나아서 한국인 불자들 돕고 싶어요"

미얀마서 수천 명 한국 불자 가이드 해온 진미한씨 급성골수성백혈병 앓아

"미한씨가 마음 굳게 먹고 치료를 잘 받아 병마를 이겨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지켜보는 강미금(42)씨는 오늘도 부처님 전에 남편의 쾌유를 빈다. 지난 5월 강씨는 미얀마인 남편 진미한(Myinthan · 49)씨가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더군다나 미얀마 출신인 미한씨는 외국인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억 원에 가까운 치료비는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남방불교를 체험하고자 미얀마를 찾는 한국 수행자들을 도우며 생활해 왔던 진미한 · 강미금 부부. 남편은 투병하느라 부인은 간병하느라 여념이 없는 지금, 수입원이 끊긴 이들은 치료비까지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엎친데 덥친격이랄까? 6월 17일부터 고려대 안암병원 무균실에 입원해 혈소판 주사를 맞으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진씨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단기의 체류가 허가된 방문비자로 한


백혈병을 앓고 있는 남편 진미한씨를 돌보는 강미금씨

국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돈도 연고도 없는 진씨가 입원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신교계 선교단체의 도움이 컸다. 하지만 이 단체에서도 3주간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부부의 두 눈에서는 고마움의 눈물 한 켠으로 서러운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미얀마에서 남방불교 수행을 하러오는 외국인들을 돕던 진씨는 위빠사나 수행 1세대인 거해 스님과의 인연으로 1990년부터 한국인 수행자들을 도왔다. 공항 픽업과 선원안내, 수행지도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그저 수행삼아 물심양면으로 도운 진씨가 만난 한국 스님과 불자만해도 연간 수백 명, 20년 동안의 인연을 합하면 수천 명에 이른다. 미얀마에서 수행한 한국사람이라면 진씨를 모르는 사람이 드물다. 그의 노고가 없었다면 수천 명의 한국수행자가 미얀마에서 겪었을 고초가 대단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04년 진씨는 위빠사나 수행을 하러 미얀마를 방문한 강미금씨와 만나 2006년 극적으로 결혼, 미얀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 도반이자 부부로 함께 수행하며 한국 불자들을 도왔다. 그러던 지난 5월 강씨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한국에 방문한 진씨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종합검진을 받았다. 검진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전전긍긍하다 법산 스님(아태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현재 이들을 돕고 있는 지훈 스님(인도 녹야원 주지)은 "두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하다. 한국불자를 위해 무주상보시를 행하던 미한씨를 이제는 한국 불자들이 도울 때"라며 불자들의 도움을 당부했다. 스님은 "더군다나 개신교계가 나서 진미한씨의 의료비를 돕는 소식에 죄책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병상에서도 가족들 걱정만 하던 착한 마음씨를 지닌 진씨는 "병이 완치되면 미얀마에 돌아가 수행하면서 계속 한국 불자들을 돕고 싶어요"라며 간절히 발원한다. 진미한 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불자들의 관심과 정성이 절실하다. 국민은행 MYINTHAN(예금주) 823701-04-198550/ 진미한씨 010-6656-8048 이나은 기자

맞춤형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복지사업 실시

한국체류 문제 · 여권갱신등 다양한 문제 해결해줘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6월 21일 구미 마하붓다센터에서 맞춤형 인도네시아 이주민 복지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니콜라스 딴띠 담멘 인도네시아 대사, 민병조 구미부시장, 이홍희 구미시 경제통상국장, 박순이 구미시의원을 비롯한 마하붓다센터 관계자와 경북지역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주민 행사에는 매월 3째주 일요일 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는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내과 구현철 교수와 간호사들이 함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니콜라스 딴띠 담멘 대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인도네시아도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 도와주는 구미시와 마하붓다센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오 스님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상호 발전을 위한 노력이 구미에서 출발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무료진료를 체험한 인도네시아 여성근로자 띠아(32세)는 "뜨리마까시(감사합니다의 인도네시아 표현), 이런 행사를 통해 친구도 만나고, 고국음식을 먹어서 좋다. 대사관에서도 내려와 한국체류 문제나 여권갱신, 고국 송금 등도 해결해 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약 2400명으로 구미시에는 650여 명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구미시



꿈을이루는사람들의 이주노동자 상담 모습

이주민 노동자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직장폭력, 임금체불,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54)458-0755 혜철 충청 지사장

모금캠페인 전략 지속가능 길 모색

"기와불사, 탁발, 연등 달기는 불교에 오래 전부터 모금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6월 24일 제3회 6월 정책포럼 '비영리조직의 모금캠페인 전략기획'을 개최했다. 포럼은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비영리조직의 운영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김재춘 정책국장(아름다운 가게)이 영리와 비영리의 현장을 넘나들며 쌓아온 노하우를 들려줬다. 이나은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42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오후5시 까지)
▶개 강: 2009년 7월 6일(월)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200만원
▶특 전: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개화사상 근간 무불 스님 등 개화승이 이끌어

보조사상연구원 학술대회서 진관 스님 '무불 스님의 생애와 사상' 첫 조명

조선 500여 년은 억불의 시대다. 오랜 억압에 불교는 산중불교로 위축됐지만 외침이 있을 때면 승병으로 호국불교의 기치를 드날렸다. 조선 후기 초의 스님 등은 여러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불법의 가치를 알렸다.

이런 가운데 쇄국과 개화가 대립하며 갈등하던 조선 말기, 개화승으로 분류되는 무불 스님 등이 개화파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조선말 개화사상의 근간을 이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장,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은 6월 20일 제86차 보조사상연구원 정기 월례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개화승 무불 연구'를 통해 무불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처음으로 조명했다.

무불 스님(?~1884, 속명 탁정식)은 백담사 강사 출신으로 건봉사 만일염불회의 미타염불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개화사상을 갖게 된 개화승이다. 당시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와 교류했으나 부실한 자료로 생몰연대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진관 스님은 "무불과 이동인 등 개화파 승려들이 개화파들에게 영향을 줬고 개화파들은 불교의 정신으로 조선을 바르게 개혁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개화사상이 불교계에서 태동한 이유는 유교적 치국이념이 와해되면서 소외받던 불교가 새롭게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학이 전래되면서 초래한 가치체계의 변화에 유학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족적인 색채가 강하고 사회적 평등이념을 담은 불교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진관 스님은 "인조 이후 승려의 도성출입이 금지됐다. 불심이 지극했던 정조 대왕 때도 안되던 도성출입이 고종 때서야 가능했던 것은 개화승의 역할이 남달랐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무불 스님 등 개화승의 활약은 개화파였던 재가불자의 활약으로 이어졌다.

스님은 "무불과 이동인은 승려로서 개화사상의 실천에 뛰어들었다"며 "개화사상의 시조로 일컫는 오경석, 유대치 등에게 불교사상은 평등과 민권의 이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6월 20일 보조사상연구원이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개화승 무불 연구'를 발표한 진관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

개화파의 대표주자였던 김옥균 역시 불교의 평등사상을 수용한 재가불자였다.

진관 스님은 "김옥균의 불교적 관심은 유대치의 권유로 시작됐다"며 "김옥균은 건봉사 만일회의 염불결사 정신을 전승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스님은 "1881년 설해져 1908년 회향한 제4회 건봉사 만일염불결사는 사부대중이 하나로 삶의 사회적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자각의 결사인 동시에 불교의 바른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한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건봉사 만일염불결사는 신라 경덕왕 17년(758) 건봉사 중건과 함께 설해진 것을 시작으로 조선 순조 2년(1802)과 철종 2년(1851) 제2, 3회 결사가 행해졌다.

진관 스님은 무불 스님과 함께 이동인에게도 주목했다. 이동인은 일본 개화사상에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일본에 건너가 개화에 필요한 서적들을 가져온 인물이다.

스님은 "이동인이 일본 동본원사에서 정토진종의 승려가 됐다는 설이 있으나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도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수차례 일본에 밀항해 개화에 필요한 책들을 유대치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에게 전달했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진관 스님은 "무불 스님을 비롯해 이동인 등 개화승의 출현으로 고종시대 배불정책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개화파가 불교를 중심으로 계몽됐다"면서 "개화파의 지도자로 김옥균 등과 뜻을 함께 했던 무불의 가르침은 만해 한용운 등에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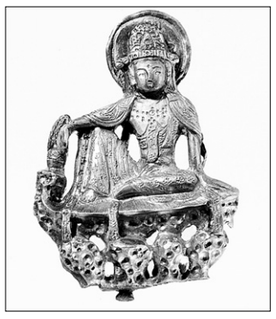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조선후기 송광사의 전적 간행과 사상적 경향'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조선 전기 관을 중심으로 간행된 불서는 교학적으로 중요한 경전과 주석서가 대부분이었다"면서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찰을 중심으로 신앙 · 의식과 관련한 불서가 주류를 이뤘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의식구 정병 한 자리에

국립중앙博 10월 11일까지 '정병과 관음신앙' 전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 '정병과 관음신앙'에 전시 중인 몸에 지니는 작은 관음보살상(위)과 물가풍경무늬 정병.

정병(淨甁)은 부처와 보살에 공양할 물을 담는 물병이다. 관세음보살이 든 정병에는 감로수가 담겨 있어 그 물로 중생의 고통과 갈증을 해소해 주고, 무주고혼을 천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세지보살의 화관에도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륵보살 제석천 등의 지물로도 나타난 불교의식구 정병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6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미술관Ⅱ 백자실에서 테마전 '정병과 관음신앙'을 개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음 고려시대 금속기와 도자기 정병이 한자리에 선보이는 행사에는 '물가풍경 무늬 정병(국보 제92호)'을 비롯해 '청자 물가풍경 무늬 정병(보물 제344호)' 등 10여 점의 정병이 공개된다.

특히 정병이 어떤 과정을 거쳐 관음신앙에 수용됐는지를 짐작케 하는 '관음보살'(국보 제127호)과 2.6cm 크기의 금제 고려시대 보살상도 함께 전시된다.

정병은 중국 북송의 서긍이 1123년 고려를 방문한 후 저술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물을 담는 주구(注口)와 물을 따르는 첨대(尖臺)로 이뤄진 독특한 형태의 물병을 '정병'이라고 한다"는 기록에서 유래한다.

한국의 정병은 주로 고려시대에 금속기와 도자기로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금속제 정병에는 문양이 없지만, 문양이 표현된 경우에는 고려만의 독특한 문양인 '포류수금문(蒲柳水禽文)'을 띄고 있다.

포류수금문은 버드나무가지가 늘어진 물가에서 헤엄치는 새들과 배를 탄 사람 등을 묘사한 서정적인 문양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채해정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정병이 같은 시대에 제작된 같은 기형(器形)의 공예품이 재질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며 "다양한 장식 무늬를 확대한 그래픽 자료를 통해 그동안 작품이 작거나 무늬가 뚜렷하지 않아 잘 볼 수 없었던 공예품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시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전시품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가풍경 무늬 정병'의 주구 뚜껑과 병목 윗부분을 덮은 은제 장식에는 금도금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또 "전시품 중 신안에서 발굴된 정병은 그동안 은제로 알려졌는데, 분석 결과 은이 아니라 주석과 납의 합금이었다"고 분석했다.

조동섭 기자

"낙태아 천도재, 일본불교 수자공양서 유래"

종교문화硏, '한국사회 죽음의례' 심포지엄서 우혜란 교수 주장

최근 천도재의 특징은 전통적인 선망조상 영가를 비롯해 낙태아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천도재가 봉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낙태아 천도재는 불교계 사찰과 원불교 등 신종교에서도 유행하며 죽음의례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이런 가운데 낙태아 천도재가 일본 불교의 수자공양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이사장 정진홍)는 6월 20일 경복궁 인근 출판문화회관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죽음의례'를 주제로 2009년 상반기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혜란 외래교수는 주제발표 '천도재의 새로운 양태: 낙태아를 위한 천도재'에서 한국 사회에서 행해지는 낙태아 천도재의 기원을 일본의 '수자공양(水子供養)'이라 밝혔다.

'수자공양'은 일본불교 문화로 자연유산을 포함한 낙태아를 위한 위령제를 일컫는다.

우 외래교수는 "낙태아 천도재에 불교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5년 발간된 석묘각 스님의 <아가야 용서해다오>다. 석묘각 스님은 일본불교를 견학하면서 '수자(낙태아)'에 관한 일본서적을 번역해 여성 불자들에게 소개했다"고 말했다.

석묘각 스님은 책에서 참회 사경 사불 불공 지장보살모시기 등 일본불교의 수자공양 의례를 참고해 서울 국청사에서 낙태아 천도재를 봉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금강사 강자우 스님도 '태아영가 천도재'를 시작했다. 1993년 보성 대원사는 태안지장보살(胎安地藏菩薩)을 봉안하며 한국 최초 낙태전문 도량이 됐다.

서울 사천왕사 성덕 스님과 포천 구담사 지율 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도 낙태아 천도재를 행하면서 의식을 정비하고 <장수멸죄경(長壽滅罪經)> <타태경(墮胎經)> <아귀보응경(餓鬼報應經) 등을 중심으로 경전적 근거를 보완해왔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우혜란 외래교수는 "다수의 일본 사찰이 경내에 재단을 조성하고 그 중앙에 대형 수자지장상(水子地藏象)을 봉안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진단했다.

우 외래교수는 "현재 낙태아 천도재는 한국 불교계를 비롯해 원불교 등 신종교, 일부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며 "서울 소재 사찰의 절반 정도가 낙태아 천도재를 따로 봉행할 만큼 낙태아에 대한 죽음의례가 자연스럽게 행해질 뿐만 아니라 의례날짜의 간격도 점점 짧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혜란 외래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낙태아 천도재가 유행하는 것은 낙태를 '살인'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불교계의 경제적 접근의 영향"이라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강진 청자 도공 원찰 정수사 한글사적기 강진군문화재硏 발간

신라 애장왕 원년(800)에 도선 국사가 창건해, 강진 청자를 만든 도공들의 원찰이었던 강진 정수사 사적기가 한글로 간행됐다.

강진군문화재연구소(소장 양광식)는 최근 <도공(陶工)의 도량 정수사>를 발간했다.

책은 양 소장이 20여 년 동안 개인소장 자료 등을 찾아다니며 연구한 결과다. 정수사 연표와 방사, 암자 등에 관한 기록과 함께 초의 스님 정약용 김정희 등 정수사 관련 인물에 관한 내용 등이 수록됐다.

조동섭 기자

금강대 불교문화硏, 콜로키움 개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는 6월 24일 금강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설과 이제설의 구조적 관계(김재권 금강대 HK연구교수) △불전 속 마(魔)의 수용을 통해서 본 중국 불교 소고(최은영 금강대 HK연구교수) △평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소고(차상엽 금강대 HK연구교수) 등이 발표됐다. (041)731-3611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 를 열자 /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 를 열자 /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 를 열자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12차년도 해남 미황사 염불정진대회

아미타불을 부르면
밝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염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법입니다.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를 슬로건으로
아래와 같이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행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2009. 7. 26~28 (2박3일)
■ 장 소 :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 참가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동참비 : 서울 출발(12만원), 현지로 오실분(9만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사무처로 문의바랍니다.

전국염불만일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전화 : 02) 732-1215-7
팩스 : 02)732-1207
www.dongsanbud.net



전국염불만일회는 1998년 금강산 건봉사를 시작으로 보성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 팔공산 은해사, 제주 법화사, 덕숭산 수덕사, 경주 불국사, 설악산 만해마을, 홍천 연화사 등 염불 10대성지를 순례하며 염불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생염불 나무아미타불 ,무량광(無量光)무량수(無量壽)정토세계 / 평생염불 나무아미타불 ,무량광(無量光)무량수(無量壽)정토세계 / 평생염불 나무아미타불 ,무량광(無量光)무량수(無量壽)정토세계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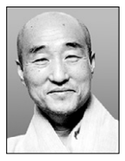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일주문



군종교구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봉행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은 6월 27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 3000여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승가대 총동문회장 선출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6월 15일 열린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에서 제15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재임명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6월 25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재임명장을 받았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장 재선출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6월 19일 열린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정기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제5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재선출됐다.



속초시노인복지관 이미용 서비스

신흥사복지원 속초시노인복지관장 묘근 스님은 월2회 20000헤어와 연계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이 ·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033)636-3373



만해 추모 다례제

동방대학원대학교 정상옥 총장은 6월 29일 만해 한용운 스님의 65주기를 맞아 열반지인 종로 심우장에서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부산 진불선원 개원

대한불교달마종조계종 곽태일 법사는 6월 28일 부산 진불선원을 개원해 대중포교에 나섰다. (051)635-3110



불교교육연합회 수석부회장 선임

동국대 김용표 교수는 6월 12일 열린 불교교육연합회 제57차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은 7월 13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를 연다. 7월 5일까지 접수.(02)722-2101



무용으로 표현한 인생 여정 '순례'

무용가 홍신자씨는 6월 26일 열린극장 창동에서 인간의 삶 자체가 구도라는 의미를 담아 '순례: Pilgrimage'을 공연했다.

"외형보다 알찬 내실 위해 묵묵히 정진"

23일 설악산 신흥사 주지취임 우송 스님



"보이는 불사에 치중 않고 부처님 법이 닿기 힘들었던 사각지대를 발굴해 이웃과 함께 하는 포교에 진력하겠습니다."

6월 23일 설악산 신흥사에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주지 취임법회가 봉행됐다. 법회에서 제25대 주지에 취임한 우송 스님(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신흥사 주지에 취임하게 돼 기쁨에 앞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고암 대종사, 성준 대선사, 오현 큰스님으로 이어지는 법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외호하고, 사부대중 중지를 모아 화합과 상생의 길로 도량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경전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 퍼진다'고 했다"며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고 외형보다는 알찬 내실을 거두도록 묵묵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주지 취임 전부터 우송 스님은 10여 년간 신흥사 총무와 부주지 등 크고 작은 소임을 살며 실질적인 신흥사 살림을 맡아왔다.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대중과 하나된 교구본사 운영을 위해 스님은 복지 포교분야에 남다른 원력을 세웠다. 화려한 진산식을 취임법회로 간소화하면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개최한 것도 이 때문.

이날 취임법회는 주지 진산식을 검박하게 봉행하는 신흥사 전통에 따라 별도의 초청장 없이 교구 내 스님들과 지역 인사 및 불자들에게만 연락됐다.

취임법회에 이어 속초지역 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실직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 160세대에게 3000만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을 전달, 나눔을 행하는 향기로운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우송 스님은 "진산식 봉행할 비용을 아껴 보시하는 마음으로 불우이웃을 돕고자 했다"며 "쌀, 미역, 김, 김치, 라면 등 성금 및 물품은 교구본사 산하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 신행단체 회원들이 소외계층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주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산중포교는 새 시대를 맞고 있다. 보다 많은 대중이 산사에 와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송 스님은 부주지 시절부터 설법전에서 진행된 학생 수련대회의 횟수를 늘리고 강사진을 보강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행단체들을 통합해 매월 1회 봉행해 왔던 통합법회를 분기별 1회로 늦추는 대신 전국의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행사로 바꾼다.

교구본사 내 대중의 화합 역시 우송 스님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스님은 "오현 큰스님의 지도로 신흥사 사부대중의 화합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지 소임을 사는 데에도 화합을 우선시해 고암 스님 이후 이어진 법맥을 바로 잇겠다"고 말했다.

신흥사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해 문화재관람료 징수 등을 이유로 관광객들과 마찰도 많았다.

우송 스님은 "최근 송사에서 법원이 신흥사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종단차원의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릴 조계종 본말사주지결의대회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흥사 한주 오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우송 스님에게 중국 송대(宋代) 오조법연(五祖法演) 선사의 '법연사계(法演四戒)'의 가르침을 새길 것을 주문했다.

'법연사계'는 선사의 제자 불감혜근 스님이 서주(舒州) 태평사(太平寺)의 주지를 맡아 하직인사를 하러가자 주지로서 네 가지 경계할 점을 일러준 것으로 <종문무고(宗門武庫)>에 실려 있다.

법연 선사는 주지에 부임하는 불감혜근 스님에게 ▲권세를 다 쓰지 말 것(勢不可使盡) ▲복을 다 받지 말 것(福不可受盡) ▲모범을 다 행하지 말 것(規矩不可行盡) ▲좋은 말을 다 말하지 말 것(好語不可說盡)을 당부했다.

젊은 주지 우송 스님의 취임과 더불어 세대교체를 이룬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영북지역 불교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법회에 참석했던 500여 사부대중을 비롯한 불자들의 기대가 크다.

조동섭 기자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이 부처님 법 펴는 것"

62주년 맞은 동대부고, 종립학교 비전 밝힌 오택원 교장



동대부고 설립 62주년을 맞은 6월 24일, 오택원(56 · 사진) 교장은 고교선택제 실시를 앞두고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비전을 밝혔다.

오 교장은 "실력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이 결국 부처님 법을 펴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교원들은 단합해 우수학교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는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학생 수급을 위해 각 고교 간 경쟁이 심화되는 신호탄이다. 이를 대비해 동대부고는 △학력신장 영역 △홍보활동 영역 △교육환경개선 영역 3분야에 걸쳐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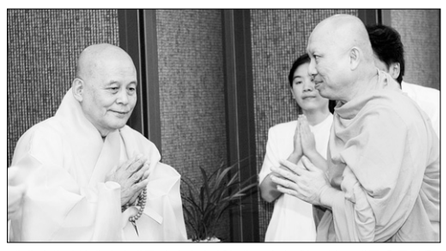
학력신장을 위해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150석 규모 독서실을 조성해 주말마다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에 나서고 있으며,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교육지원금 1억 2500만원을 확보해 수능관련 과목반 개설 및 논 · 구술 대비반도 개설할 예정이다. 학교 홍보를 위해 7월 7일과 15일 메가스터디 이석록 소장, 이만기 · 소순영 강사 등 유명 입시강사를 각각 초빙해 대학 · 고교입시설명회도 연다. 교복 개정과 잔디운동장, 강당 및 각 교실 개보수 등 각종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오 교장은 "지난해 9월 취임과 동시에 젊은 선생님들 20여명으로 동국발전위원회 TF팀을 만들어 발전안을 마련했다. 학력신장, 기초생활지도, 홍보전략 3개 부분에 걸친 TF팀 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장은 끝으로 "'십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백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한다'(十年樹木 百年樹人)는 말이 있듯이 교육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고교 경쟁에 대비한 학교발전기금과 장학금확보, 교법사 활동 등에 불교계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태국 담마까야 사찰 대표단, 한국방문



세계최대 명상센터인 태국담마까야사찰 대표단이 6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했다. 솜분, 파이분 스님 등 담마까야 사찰 대표단은 6월 21~25일 범어사, 불국사, 통도사 등을 참배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현장회의 개최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혜정)이 수탁운영 하는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원장 고정숙)은 6월 23일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현장회의'를 열었다. 관계자 21명은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와 대담을 가졌다. 이나은 기자

'반갑다 연우야' 양 · 한방 무료진료



불교의료봉사단체 '반갑다 연우야'는 6월 20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서 양 · 한방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150여 어르신들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침시술, 약처방 등을 받았다. 이나은 기자

봉황사, '산신각 산신등신불 점안식' 봉행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본산 봉황사는 6월 19일 '산신각 산신등신불 점안식'을 종정 법정 스님, 총무원장 혜산 스님과 지역종무원장 스님 15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대전 탄방초, 쌀모아 복지관 전달



대전 탄방초등학교(김광수 교장)는 6월 23일 전교생이 십시일반 모은 쌀 1122kg을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에 전달했다. 6월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쌀모으기'에는 1500여 전교생이 동참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1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 032)349-0666/FAX 032)349-0665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는 http://www.yuma119.com 입니다.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 식 제 공

가야산 숲길 지키기 위해 수덕사 스님들 '백제 미소의 길' 포행하다

백제의 미소 그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비가 오는 와중에 진행된 걷기대회(위)와 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에서 마련한 수박을 먹는 스님들.



옹산 스님, 최승우 예산군수, 설정 스님, 지하 스님(앞줄 왼쪽부터) 등이 걷기대회에 앞서 가야산 생태환경과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가야사 터에서 서산마애삼존불 · 보원사 터까지 행선

순환도로 건설보다 생태 · 사색 · 명상길로 남겨주기를…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린 6월 20일, 하안거 결제기간임에도 덕숭총림 수덕사 스님들은 잠시 용맹정진을 멈추고 '백제 미소의길 걷기' 행사에 동참했다.

충청남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야산순환도로 건설을 막고 청정자연과 성보문화재의 보고인 가야산 숲길을 지키기 위해서다.

3회째를 맞은 '백제 미소의길 걷기'는 가야사 터에서 서산마애삼존불 인근과 보원사 터까지 9Km에 이르는 가야산 등반길을 고요히 명상하며 걷는 포행으로 진행됐다.

삼국시대에는 배가 내륙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내포(內浦)지역으로 고대문물이 유입됐던 가야산 일대. 1000명의 스님을 수용했던 보원사를 비롯해 서산마애삼존불, 태안마애삼존불 등 수많은 유적과 100여 폐사지(廢寺址) 등 백제불교의 옛 영광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 길을 200여 스님은 줄이어 걸었다. 구도 정진의 연장선인 우중 행선(行禪)에는 밤꽃 향기가 가득했다.

이날 걷기 대회에 앞선 오전 9시 가야사 터에서 열린 조촐한 행사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선덕 지하 스님(前 종회의장),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등 산중 스님들과 최승우 예산 군수 등 불자들이 동참했다.

출발에 앞서 설정 스님은 "환경파괴와 자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가야산을 지키는 것은 이곳 우리들의 의무이자 커다란 행복"이라며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맑은 공기를 전해주자"고 말했다.

옹산 스님도 "오늘 이 행사는 이 길을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사색의 길, 건강의 길, 명상의 길로 하자는 것이다. 충남도청은 포장도로를 추진하지 말고 마사토 등을 이용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 길로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승우 예산군수는 "내포 가야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우리는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황토길을 만들어 맨발로도 걸을 수 있도록 해 가장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순환도로 건설을 준비하는 부원건설 차량이 지나다녀서일까. 오솔길이었던 산길은 차량 바퀴자국이 남아있는 비포장길로 변해있었다. 스님들은 가운데 핀 들꽃과 풀을 밟지 않기 위해 양쪽으로 나눠 걸었다.

우의를 입고 오르는 산은 스님들에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스님들은 "밤꽃향 참좋다"며 자연을 만끽했다. 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는 이런 스님들을 위해 시원한 수박을 준비했다.

덕숭총림 선원이 있는 정혜사에서 온 한 수좌 스님은 "정부 각 기관은 개발계획이 거의 확정된 이후에야 일반에 공개한다. 가야산 순환도로를 비롯해 많은 개발사업에 이권 단체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개발의 단맛은 단시간에 머물지만, 환경 및 문화재 파괴의 영향은 후세까지 영원히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3시간 가량 산길을 걸어 일행은 보원사 터에 이르렀다.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보원사 터 입구에서 당간지주는 늘씬한 자태로 옛 위용을 알렸다. 보원사 터를 참배하며 스님들은 환경 수호의 의지를 다시 다졌다.

내년에는 스님과 시민들이 맨발로 가야산의 자연과 하나되어 걷는 행선의 장관이 펼쳐질 수 있을까.

글=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백제미소길에 표시돼 있는 가야산 순환도로 공사 안내판.



여름산사서 삶의 쉼표 찍자

수행 · 명상 · 정진 템플스테이 사찰로 출발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며 여름의 한가운데로 향하는 요즘, 여름휴가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계획이 한창이다. 쾌청한 산으로, 시원한 바다로, 또는 미지 세계로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마음자리가 허전하다면 산사로 발길을 돌려보자. 산사의 일상을 체험하며 내면의 나를 들여다보며 지친 삶에 쉼표를 찍어보자.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051-508-5726)는 8월 5~7일 청소년 여름템플스테이, 8월 13~16일 3박 4일간 2차 수행정진 템플스테이, 7월 11~12일 7차 정기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금정산 산자락에 고즈넉이 앉은 암자를 순례하고 등나무 숲길을 걷는 특별함이 있다.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 055-281-2002)는 7월 24~26일, 7월 27~29일 등 총 2회에 걸쳐 제24회 보리수학교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생으로 각 학년별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하동 쌍계사(조실 상훈, 055-883-1901)는 '본 마음 참 나'를 내세운 여름수련법회를 실시한다. 7월 19~22일 일반인, 7월 24~26일 유치부 및 초등학생, 7월 28~31일 일반인, 8월 2~5일 일반인, 8월 7~10일 일반인 등 총 5차에 걸쳐 진행되며, 통광 스님과 상훈 스님, 월호 스님, 무공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서 특별한 법석이 마련된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055-384-7085)는 '감사하는 삶, 행복한 만남'을 주제로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여름 수련회를 운영한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에서 경험하는 기도와 정진, 삼보일배, 숲길 명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 055-934-3110)는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를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7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4박5일간 총 3회에 걸쳐 일반인 수련회가 진행되며, 8월 7~9일 중고등부 수련회도 마련된다.

함양 벽송사(선원장 월암, 055-962-5661)는 자유수행형 산사체험 템플스테이를 매주 토요일부터 1박 2일간 운영한다.

(사)동련(이사장 지현, 051-864-4569)은 홍법사(주지 심산)에서 어린이를 위한 연합캠프를 7월 28~30일, 8월 14~16일 두 차례 개최한다. 2차 단체접수 시에는 2009년 여름 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교사 1인 이상 참석한 사찰에 한한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 051-746-2256)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45분까지 철야참선정진을 하고 새벽예불에 참가하는 참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지원 기자

안정사 영산재 '은상'

제35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서





안정사 영산재보존회가 제35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영산재 시연을 하고 있다(위).
은상을 받는 승헌 스님(아래).

통영 안정사 영산재가 제35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공연에서 은상의 영예를 안았다. 6월 23~24일 경상남도 · 거제시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20여 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안정사는 2008년 10월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를 설립했다. 이사장 승헌 스님은 안정사 영산재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하는데 큰 힘을 쏟고 있다.

안정사영산재보존회 설립은 영산회상도 안정사 괘불(시도 유형문화재 제228호)과 함께 그 전통과 의식의 원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승헌 스님은 "귀중한 전통불교의 식이며 전통문화예술인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를 계승 발전시켜 안정사의 명성을 되찾고자 사단법인을 설립했다"며 "우리민족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보전하고 안정사 영산재에 관한 연구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더욱 더 많은 학인을 배출해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를 널리 알리자"고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부산 4년제 대학교에 불교학과 신설

동명대 2010년 불교문화학과 신설 추진

부산경남지역 4년제 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불교관련학과가 신설된다.

동명대학교(총장 이무근)는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사회과학대학 내 40명 정원의 불교문화학과 신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응시 자격은 스님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커리큘럼은 불교 경전과 예술, 사회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또한 불교의 특성상 책임 교수의 지도하에 종단과 협의해 사찰 등지에서의 현장 중심 교육을 펼치게 된다. 졸업 후 진로는 불교학계를 포함한 각급 불교교육기관, 각 종단 및 불교단체의 종무행정, 각 군의 군종장교, 종립중고교 종교교사, 포교업무 및 사회사업, 불교언론계, 불교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성에 맞게 일할 수 있다.

이무근 총장은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돼 있고, 또 대학의 지역사회적인 역할 차원에서도 불교와 관련된 학과를 개설해 문화 및 교육을 담당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교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동국대학교 서울 · 경주 캠퍼스, 위덕대학교, 금강대학교 등 총 4곳으로 동명대학교는 국내 5번째 불교학과 개설대학이 된다.

이번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의 신설은 불교 전문 인재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어 부산지역 불교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지원 기자

한국 알려면 밥상부터 사로잡아야

용호복지관, 결혼이민여성 위한 '한국밥상완전정복기'

장마가 시작된 후덥지근한 초여름의 오후,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지하 조리실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북어국과 북어고추장구이. 한국으로 시집을 온 외국인 초보주부들이 생전 처음 본 북어와의 고군분투가 시작됐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밥상 완전정복에 나선 외국인 며느리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6월 2일부터 총 15회 과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요리를 통한 한국 적응력 향상 프로젝트 '한국밥상 완전정복기'를 마련했다. 올해로 2기를 맞은 요리교실은 남구여성단체협의회의 지원 덕분에 참가자들은 수강료와 재료비의 부담 없이 총 15회의 강좌 모두 무료로 수강하고 있다.

고국 베트남에서 일급요리사였던 막티흰(29 · 베트남)은 작년 1기에 이어 올해도 참가했다. 요리 못지않게 한국어 실력 또한 수준급이라 언어소통이 관건인 수업 때마다 동기들의 통역을 도맡았다. "베트남에서는 마늘을 쓰면 파는 생략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늘과 파를 무척 좋아하고 즐겨 넣는 점이 신기했어요."

이렇듯 우리 요리에 쓰이는 마늘, 고추, 파, 국간장, 참기름 등 식재료 이름부터 영양소, 사용방법, 각 요리에 알맞은 냄비와 담는 그릇의 쓰임새 등 한국밥상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입맛과 식문화, 낯선 이국에서 한국인과 가족이 돼 살아가는 방법을 음식을 통해 알려준다.

수업을 진행하는 김영희 강사는 요리경력 16년의 베테랑이지만 이번 만큼은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우리말도 서툰데, 파 마늘이 뭔지 냄비는 어디에 쓰는지,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간이 잘된 건지 기초부터 가르치고 싶어서, 시간은 2~3배 더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지도한다"고 말했다.

결혼 이민여성들은 요리를 통해 한국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051)628-6737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부산 영광전통예절미학회 이경순 원장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고 싶어요"

2008년 범어사 개산대제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다례시연이 펼쳐졌다. 헌공다례와 접빈다례를 결합한 이 새로운 다법은, 그 해 겨울 부산 팔관회에서 또 한 번 무대에 올려져 다도시연은 지루하고 식상하다는 고정관념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또 다례의 끝에 보자기에 담아 정리하는 것은 한층 더 기품 있고 예의바른 새 형태의 마무리였다. 전에 없던 새로운 다법을 만든 부산차문화진흥원 이경순 원장(사진)이, 이번에는 '유학자가 해석하는 육우의 <다경>'으로 변화와 상생의 새바람을 일으킬 채비를 마쳤다.



부산영광전통예절미학회(원장 이경순)는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에서 7월 6일과 7일 양일간 오후 1~6시 총 2회에 걸쳐 '유학자가 해석하는 <다경>의 성립과 당대의 다문화'를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진성수 교수의 특강을 마련한다.

본래 다도는 불교의 수행과 닮아있다고 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에도 흐트러짐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끽다거'는 곧 화두이며 '선'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학자가 바라본 <다경>과 차문화라고 하니 뜬금없지는 않을까.

"다례는 헌공다례와 접빈다례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접빈은 예절이 그 밑바탕에 내재돼 다례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차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육우의 <다경>을 되짚어보고, 다인으로서 갖춰야 할 사람 됨됨이를 유학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순 원장은 벌써 7개월째 매주 토, 일요일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며 한국전래연구소에서 실천예절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연한 기회로 그곳에서 여든을 훌쩍 넘긴 단아한 할머니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분을 강사로 모시고 현재 영광전통예절미학회에서 유아예절 지도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예절 교육을 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교육과정에서는 공수와 촌수, 존댓말과 같은 생활예절부터 부채 그림그리기나 한복그리기 등의 세시풍속, 접빈다례 등을 배우게 된다.

이 원장은 "유교와 불교를 따질 것 없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해온 것이 바로 예절인데, 서양의 에티켓이나 매너는 쉽고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예절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절에서 '가족실천예절'을 가르쳐야 한다. 불교의 팔정도에 귀의한 정신적인 부분과 실천예절이라는 외적인 부분이 합쳐질 때 성숙한 불자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순 원장의 꿈은 많은 사찰에서 기초교리반과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듯 실천예절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예절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민족이 행해오던 것이기에 응당 우리문화 전반에 뿌리 깊은 불교가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 그렇지 못해 점점 사람다움을 잃고, 단순히 지식만 가르쳐 이기적인 어른을 만드는 교육세태가 안타깝다고 한다.

"실천예절은 곧 자기 자신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051)816-9500 박지원 기자

유기농 보이차(ORGANIC PUER TEA)
유기농 보이차의 보급화 선언!
현불샵(hyunbulshop.com) 입점 기념 15%할인 판매
250,000원 ⇨ 15% DC 특별 할인가 212,500원

아주 특별한 선물 유기농 보이차 선물세트 (유기농보이차 숙차 357g + 대나무보관통 +보이차 다기세트 7종)

1등급 100% 유기농 보이차만을 엄선하여 준비했으며 보이차 전용 다기세트는 드리는 분의 정성과 선물의 격을 한층 더 높혀 드립니다.

• 제 6기 중국보이차 "보이차왕" 수여
• 미국 FDA, 유기농인증 획득한 USDA
• 일본 유기농인증기관인 JAS

중국 보이차 기업 중 최대규모인 670만평 이상의 보이차 생산단지와
100%유기농법으로 생산하여 그 품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주)고진 유기농 보이차 !
후 발효차인 보이차의 깊은 맛과 오묘한향의 끝맛을 그대로 발효시켜
황제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유기농 보이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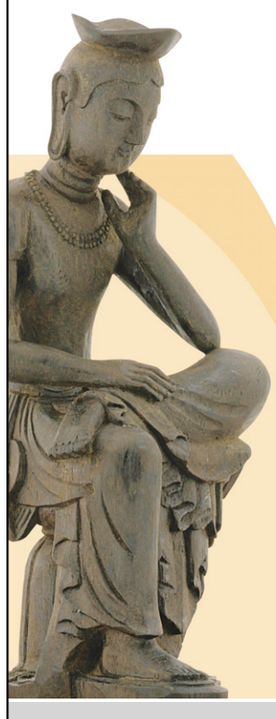
중국에서도 유기농회사로서 처음으로 생산 공정과 가공공정 발효공정에 특허를 받아
용생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농보이차입니다.
중국황제가 마시던 보이차는 오래 묵을수록 귀한 고가의 차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거치는 후 발효차이며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고가품의 차가 됩니다. 방습통풍이 잘되는 적절한 온도하에서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 약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기농 보이차는 상류층이 주로 애용하는 고가의 차이며 국가주석 후진타오도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보이차 애호가입니다.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가 용생유기농 보이차를 접하고 나서 유난히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용생 보이차만을 애용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유명인사 방문 시 용생의 보이차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 유기농 보이차 숙차
· 제 품 명 : 유기농보이차 숙차 · 식품유형 : 침출차 · 내용량 : 357g
· 제조회사 : Yunnan Longsheng Green Industries (group) LTD
· 원재료명 : 보이차 100%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수입판매 : (주)고진 · 포장재질 : 종이제
· 제조일자 : 2007년 03월 01일 (제조일자는 2007년이지만 2006년에 수확한 찻잎을 사용해 제조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년 (보이차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만 잘 하시면 훌륭한 보이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불교온라인쇼핑몰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문의 : (주)고진 031)437-1570,1580
• 주문전화 : 02)2004-8215~6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

"고국에서처럼 공양 올려요"

나주 심향사, 스리랑카 스님 공양 의식 열어

주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50만이 넘는다. 미얀마 스리랑카 등 불교국가 출신이 대부분. 고향을 떠나 먼 이국땅에서 힘든 생활하고 있지만 종교생활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에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이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진행해 화제다.

6월 21일 스리랑카 노동자 350명은 나주 심향사에서 고국 스리랑카의 스님들을 불단에 모시고 남방불교식 음식을 올리는 공양의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 노동자들과 심향사에서 준비한 공양물을 국내외에 수행중인 스리랑카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법문을 청해 듣는 법요식 순으로 진행됐다.

원광 스님은 "국내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관심을 갖을



6월 21일 나주 심향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리는 스리랑카 스님들에 대한 공양의식 모습.

때"라며 "앞으로도 국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불교신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와치싸라 스님은 스리랑카 근로자들에게 "한국에 와있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런 화합의 행사를 열게 돼 기쁘고 고맙다"며 "전국에 있는 2만여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국내에 스리랑카 불자들로 이루어진 법당 불사를 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내전으로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고국을 위한 기도와 죽은 이들을 위한 천도재가 이어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불교국가인 스리랑카는 국가적 행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 가정과 나라의 평원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권도와 정신수양 '윈~ 윈~'

무주 안국사, 태권도 산사체험 성공



무주 안국사에서 열린 태권도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무주 안국사에서 6월 13~14일과 20~21일 두차례에 걸쳐 '태권도와 함께하는 산사체험'이 열렸다.

무주 반딧불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태권도와 함께하는 산사체험'에는 각각 40명 정도가 태권도를 수련하고 사찰예절과 108배, 발우공양, 연등만들기, 다도체험, 울력 등 다양한 산사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태권도공원 조성과 함께 태권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주에서 진행된 '태권도와 함께하는 산사체험'은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돼있는 적상산 사고를 참관하는 문화탐방과 심신을 수련하는 태권도와 정신수양을 중심으로 하는 산사체험이 어우러진 알찬 수련회가 됐다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참가했다는 김영수(45 · 대구)씨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반딧불이도 보고 아름답고 조용한 산사에서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산사체험에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인질환 사전 예방에 노력"

고창노인복지관 '무료 건강강좌'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6월 17일과 26일 고창군노인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위한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급격한 농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그리고 무위 등의 노인학대, 자아존중, 힘을 잃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한 노후 만들기 프로젝트'는 노후 삶의 질 향상과 노년의 건강관리, 정신건강, 경제관리, 정서순화 등 사회적 지위와 역할상실, 경제력 약화, 건상상실 등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6월 26일 고창군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행복한 노후를 위한 무료 건강강좌'.

고창보건소 구강관리담당 이소영 선생의 생생한 강의로 노년기 구강관리교육과 정신과 전문의의 우울증 대처법, 기분 업 스트레칭, 치매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교통안전교육 등 실생활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창 건치인 선발대회'도 진행돼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건치인 선정대회에서 선발된 어르신은 고창보건소와 고창군지역치과의사회의 선정을 통해 건치상 외 4종의 시상을 수여하게 된다.

강의 후 어르신들은 필봉예술단의 사물놀이 판굿, B-BOY 댄스, 판소리, 퓨전국악난타, 장고춤들의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무료건강강좌에 참여한 김종매 어르신은 "평소 치아 건강과 노년기 치매에 관심이 많았던 어르신은 이번 기회에 복지관에서 강좌를 듣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무료강좌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무공 스님은 "앞으로 어르신의 욕구가 높은 건강강좌를 실시해 노인질환을 사전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대로 알고 실천하며 정진하라"

향림사, 경제회복과 호국발원 위한 와불 점안법회 봉행

광주 향림사(주지 혜향)는 6월 23일 경내에서 경제회복과 호국발원을 위한 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와불은 부처님이 오른쪽 옆으로 누워 선정삼매에 들어있는 형상을 말한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 무등스님(천룡사 주지), 혜향 스님(향림사 주지)을 비롯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천운 스님은 법문에서 "무릇 불교란 도덕, 신앙, 철학, 예술적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어, 불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이치를 알 수 있다"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법문에 앞서 혜향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와불이 조성된 만큼 불사에 동참해주신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된 와불은 2008년 11월부터 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길이 6m 30cm, 높이 1m 80cm 규모의 석불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성 센터장

"1사찰 1복지시설 운영 의무화 돼야"

광주에서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이 광산구 하남, 비아지역이다. 이곳에는 소위 3D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가 몰려있고, 광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2년 전부터 이곳에서 불교의 가치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열어 헌신하는 이가 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성 센터장(사진)이다.



광산구는 광주 구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면서, 전통적으로 사찰의 수가 가장 적다. 아직 불교적 인프라가 전혀 없는 이곳에서 이주성 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공간을 열었다.

이 센터장은 이미 대학 강단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광주지역 불교청년회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맏형이다.

그런 그가 이곳에서 불교적 가치관을 심기위한 복지센터를 연 것은 순전히 불교 가르침을 사회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됐다.

2007년 8월 센터가 들어선 후, 우리 음악 페스티발, 몽골 봉사단 창설, 이주여성 국악교실, 가요실, 북아트, 건강걷기대회, 문화유적답사, 템플스테이, 연등달기 등의 진행으로 센터는 매주 휴일이면 어김없이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올해도 센터는 이주여성 사물놀이팀 구성, 음악페스티벌, 무료한방진료, 다문화가정 언어치료 방문교육, 다문화가정 아동 독서교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0여 평 크기의 센터는 2명의 직원들이 인근 사찰과 불교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꾸려가고 있다.

불교계의 사회복지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지역불교계가 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당부했다.

"불교 신도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정작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은 타종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찰에서 노인들이 쉬고 기도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주성 센터장은 "농촌의 사찰에서는 반드시 다문화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며 "농촌의 유일한 젊은 세대이면서 대부분 불교국가에서 온 이들에게 불교는 너무 무관심하고 냉대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교회는 목숨을 걸 듯이 다문화센터 운영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불교는 그저 따라가는 수준에 머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하고, 1개 사찰에 1개의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지역 불교계에는 이주성 센터장의 권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스님과 불자만 벌써 30여 명이 넘는다. 사회복지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료를 공유, 지역 불교복지 활성화를 위해 이 센터장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사회복지학 교수이자 현장 실무자로 앞장 서지만, 이주성 센터장은 이미 광주불교계의 주춧돌 같은 사람이다.

이 센터장은 1982년 원각사에 입문한 후 청년회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 회장, 중앙회 대의원 부의장 등 20여년 가까이 청년회 활동에 헌신했다. 그가 회장을 맡았던 원각사 청년회는 200여 회원들이 법회에 참석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주성 센터장은 "포교와 '사회복지사업'은 같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업이 현대적 의미의 포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면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부, 자원봉사를 동시에 이끌어내면서 불교의 의미를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다관을 엎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大20,000원/中10,000원/小5,000원


둥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흰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덤벙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大 40,000원 / 小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大 60,000원 / 小 40,000원


벗찌화병
大 100,000원 / 小 80,000원


보라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2

번뇌의 근원을 뽑아라

[원문]
정극광통달(淨極光通達)
적조함허공(寂照含虛空)
각래관세간(却來觀世間)
유여몽중사(猶如夢中事)
수견제근동(雖見諸根動)
요이일기추(要以一機抽)
–마곡사 대광보전

[번역]
맑고 다한 빛 그 통달함이여
고요하게 저 허공을 모두 비추네.
세상을 살펴 바라보니
모두가 꿈속의 일이로다.
비록, 모든 것의 근원이 움직일지라도
요컨대 이를 단번에 뽑아 버려라.

[선해(禪解)]

얼마 전, 대법원은 식물인간이 된 70대 할머니의 생명을 16개월 동안 유지하게 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실로 파격적인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해쳐야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중생의 생명이다. 아무리 작은 미물일지라도 함부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엄연히 아직 숨을 거두지 않은 할머니의 존엄사를 인정한 사례가 된 것이다.

예로부터 부모의 죽음은 '천붕지괴(天崩地壞)'의 아픔이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정도의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부모의 죽음이다.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생명줄인 인공호흡기를 자식 스스로 떼어내야 하는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생명은 하늘에 있다. 스스로 가야할 때를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이 알 뿐이다. 이것은 대법원도, 자식도 의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면 1시간 내에 숨을 거둘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무려 24시간을 버티고 있고 호흡도 점점 안정화 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할머니가 정상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공호흡기로 의지한 육신이 자신의 힘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할머니의 존엄사 허용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견해도 나왔다고 한다.

생명을 죽이면 그 과보가 얼마나 큰 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불교계는 해마다 방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은 "모든 유루(有漏)의 선법(善法) 가운데 방생의 공덕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무릇 기타의 선법은 자기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공덕이 없으나, 방생은 그 마음이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그 일은 모두 직접 중생에게 혜택이 미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불가사의한 선의 과보가 있으며, 비록 한 마리의 생명을 방생해도 그 공덕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방생된 중생은 참을 수 없는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 방생하면서 부처님의 명호와 다라니를 염하여 가피를 주면, 마침내 그들 중생도 불퇴전의 과위를 얻게 된다" 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사'는 부처님의 사상에 절대적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다. 실로 부처님이 2500여 년 전 남기신 설법이 오늘날에도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숙세의 업 때문에 춘다의 독버섯을 먹고 열반에 들었다. 영축산에서 8년 동안 머물러 <법화경>을 설하신 다음, 카필라성의 쿠시나가라에 도착했을 때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 일행을 보고 독버섯이 든 공양을 올렸던 것이다. 그 때 부처님은 독버섯이 든 걸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못 먹게 하고 당신 혼자 드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그 음식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착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 못보게 해
'무상'의 도리 깨우쳐 대자유 추구하는 것이 수행

오늘의 주련 여행은 충남 마곡사다. 마곡사는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태화산 동쪽 산허리에 있는 아름다운 천년 고찰이다. 산속에 깊이 들어선 마곡사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춘마곡(春麻谷) 추갑사(秋甲寺)' 때문이다. 봄이면 산수유와 왕벚꽃 등이 피어나 선경(仙境)을 이룬다는 유래에서 '춘마곡' 이름이 붙어졌으며 가을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워 '추갑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1400여 전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에 의해 창건, 고려 명종 때 보조 국사가 중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후 범일, 도선 국사에 의해 재중수, 조선시대 세조가 이 절에 들려 영산전을 사액(賜額)한 일이 있다고 한다.

창건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서른 개의 건물과 요사채가 있을 정도로 대사찰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잦은 전쟁과 화재로 인해 현재는 보물로서 대웅보전, 대광보전, 영산전만이 남아 있다. 오층석탑은 중국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 세워져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 또한 보물이다. 이 밖에 지방문화재로서 범종(梵鐘), 괘불(掛佛), 목패(木牌)가 있으며, 세조가 타던 연(輦), 청동 향로 등이 있다. 국보급 보물로서는 <감지금니묘법연화경(紺紙金泥妙法蓮華經)> 제6권 및 <감지은니묘법연화경> 제 1권이 보관돼 있다.

마곡사의 가람 배치는 특이하다. 계곡이 경내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 위에 걸쳐진 극락교가 속세와 진계의 두 영역을 나누고 있다. 이곳은 특히 풍광(風光)이 매우 아름다워 항상 사진작가가 많이 붐빈다. 중심 건물인 대광보전은 진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을 모셨으나 불에 타 버렸던 것을 조선시대 순조 때 다시 고쳐 지은 건물로서 해탈문과 천왕문이 일직선으로 놓여 있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으로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다. 이를 다포 양식이라고 하는데 밖으로 뻗쳐 나온 부재의 끝이 날카로우며 위에 연꽃봉오리를 조각했다.

문살은 꽃 모양을 섞은 조각으로 장식했고 가운데 칸 기둥 위로 용머리를 조각해 놓았다. 건물 안쪽 천장은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꾸몄다. 불단은 서쪽으로 마련했는데 불단 위에는 불상을 더욱 엄숙하게 꾸미는 닫집을 정교하게 조각했다. 안팎으로 구성과 장식이 풍부하고 건축법이 매우 독특한 건물로 이름이 나있어 조선 후기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대광보전 속에 담긴 주련의 내용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설파한 가르침을 온전히 담고 있다. '정극광통달 적조함허공'은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은 맑은 빛보다 더 청정하고 모든 세간을 통달하여 항상 중생들 곁에서 빠짐없이 비추이고 있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각래관세간 유여몽중사', 돌이켜 자세히 살펴보니 지나온 모든 일들이 한갓 꿈속의 일에 지나지 않으며 이 또한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수견제근동 요이일기추' 즉, 모든 번뇌의 근원을 단번에 뽑아 버려야만 진실로 마음의 해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야 말로 진짜 수행이다.

부처님은 일찍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설파한 적이 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바로 재물욕(財物欲) 성욕(性欲:色欲) 음식욕(飮食欲) 명예욕(名譽欲) 수면욕(睡眠欲) 등 오욕락(五慾樂) 때문인데 이것이 곧 죄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다. 이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물욕인데 이 앞에서는 그 어떤 성자도 편안할 수가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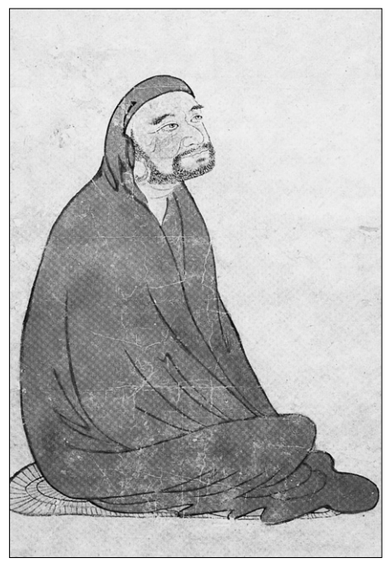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2

업은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원문]
亦無修證 亦無因果 亦無筋力 亦無相貌 猶如虛空 取不得捨不得 山河石壁 不能爲碍 出沒往來 自在神通 透五蘊山 渡生死海 一切功業 拘此法身不得 此心微妙難見 此心不同色相.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으며,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인 것도 아니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며,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산이나 강이나 절벽이라도 걸림이 될 수가 없어 나고 들고 가고 옴이 자유롭고 신통한 것이니라. 오온(五蘊)의 산을 벗어나 생사의 바다를 건너리니, 온갖 업(業)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하느니라.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려우니라. 이 마음은 밖으로 드러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니라."


명나라 때 손극홍(孫克弘)작 '붉은 가사의 달마도'.

[해설]

성철 스님께서는 '돈오돈수(頓悟頓修: 몰록 깨달아 몰록 닦음)' 라고 하셨습니다. '돈오'라는 것은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론으로는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해오(解悟)'라고도 하고 직접 수행을 통해 깨달은 것을 '증오(證悟)'라고 합니다. 증오와 해오는 분명 다른 겁니다. '증오'는 그대로 습에서 바로 벗어나지만, '해오'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잘 안 됩니다. 익혀온 습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 해오입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께서도 전생에 업(業)이 있으니까 돈오가 됐어도 점점 닦아나가야 한다는 점수(漸修)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한 번 깨달으면 닦을 것이 없다'는 돈오돈수를 주장했어요.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된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닦을 것도 없고 성인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선에 들어가면 본심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분명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닦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 국사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았지만 전생에 업이 있으니까 닦아야 되지 않느냐, 업을 녹이는 수행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고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나 돈수나 점수나 그 자리에서 보면 절대 다른 말은 아닙니다.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으며,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인 것도 아니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며,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산이나 강이나 절벽이라도 걸림이 될 수가 없어 나고 들고 가고 옴이 자유롭고 신통한 것이니라.'

이는 나다, 너다 하는 경계가 다 끊어진 자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주의 근본 실상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45년 설하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법을 설했다고 하면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하셨듯이, 실상자리에선 이름과 형상을 떠났기 때문에 산이나 강이나 절벽이라도 걸림이 될 수가 없어 나고 들고, 가고 옴이 자유롭고 신통한 것이라 합니다.

'오온의 산을 벗어나 생사의 바다를 건너리니 온갖 업(業)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하느니라.'

오온이란 것은 <반야심경>의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과거에 수행하실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일체 괴로움을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오온'은 물질과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즉,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인 '색(色)'과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식(受想行識)'을 오온이라 합니다. 오근(五根)을 통해서 경계를 접하는 것을 '수(受)'라고 하며, 받아들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을 '상(想)'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행(行)'입니다. 행동한 다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아! 잘했다' 이것이 '식(識)'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질은 사실이 아닌 것인데, 이것을 눈으로 보고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큰스님께서도 "여러분들 눈 앞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 법을 아십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대한 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온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다 금덩어리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못 지나가죠. 옛날에 도인들은 그것이 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봐도 본 것이 아니고 냄새를 맡아도 맡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인과(因果)에 걸리지 않지만 모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온의 산을 벗어난다면 생사에 걸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의 마음을 법신(法身)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부처이니까 인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화신(化身)이라고 그래요. 부처가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720면/정가 각120,000

십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지금 생활하는 그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 스님

청주 법인정사에 들어서자 소박하면서도 정갈함이 느껴졌다.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이곳 법인정사에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도량이 벌써 안심법문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설우 스님의 처소엔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는 현판이 달려있다. '무위진인', 법인정사에 들어서는 이들에게 덥석 안겨주는 화두일지도 모른다.

"붉은 몸뚱이에 한 사람의 무위진인이 있다. 항상 그대들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아직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아라"고 한 임제 선사의 일갈이 들리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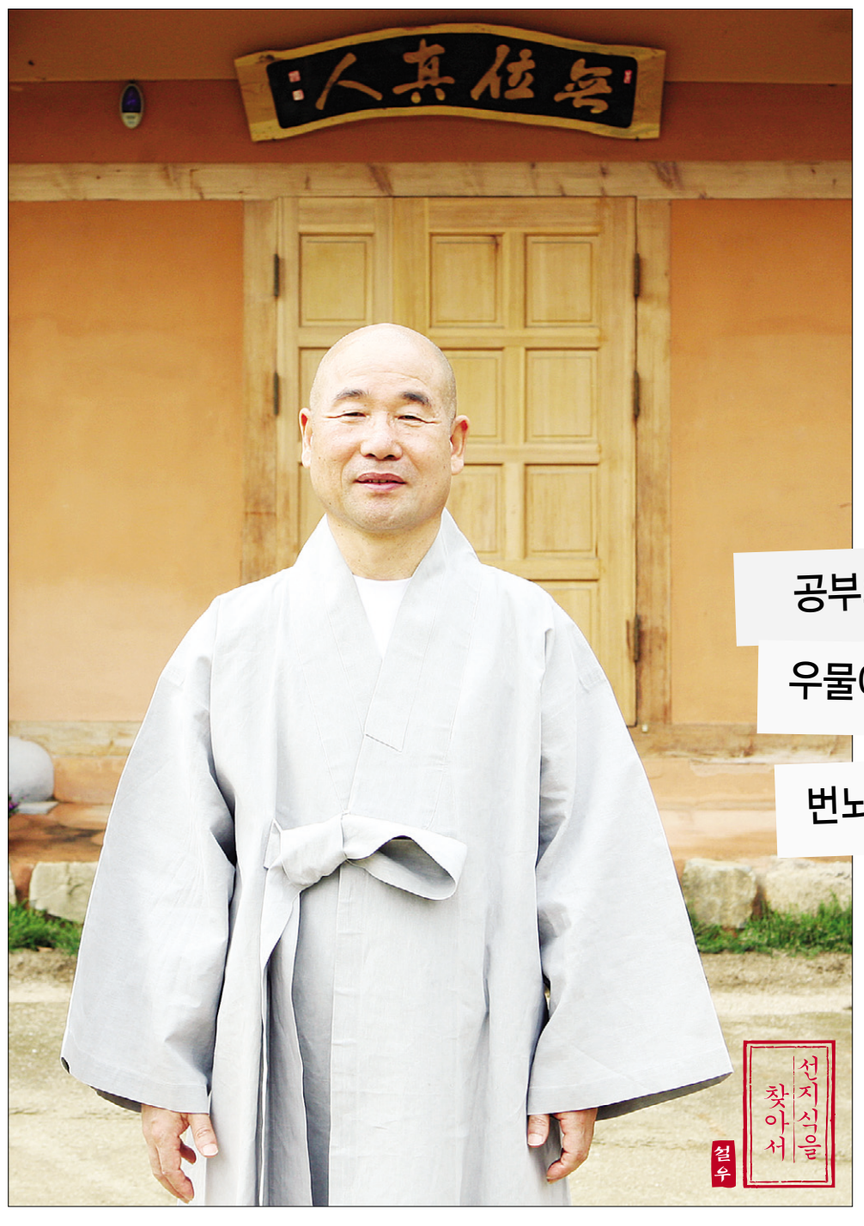
설우 스님은 조계종 간화선 수행지침서 편집위원을 역임했고, 불교TV에서 <선요>강의를 해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고봉 화상이 저술한 <선요(禪要)>는 화두참선의 지침서로서 쉬운 책은 아닐진대 설우 스님은 그것을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해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스님은 화두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간화선을 풀어나갔다.

"화두는 논리와 분별심을 뛰어넘은 자기만의 체험의 경지에서 직관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스스로 화두의 세계를 자락(自樂)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그 경지를 스스로 수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경지를 두고 화두의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화두공부는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적으로 얻어지는 문답식의 공부가 아니며,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두에서는 분별로 알음알이로 들어가는 것을 사구(死句)라고 하지요. 화두 드는 자가 알음알이를 통해서 화두를 조금 짐작하게 되고 엿보게 되는 것은 스스로가 허망한 중생 업식에 속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활구(活句)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 즉 공안이든 아니든 모든 것을 차단해 알음알이 분별의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게끔 예리한 칼로 끊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곳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두공부를 제대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여쭈었다.

"우리 마음의 번뇌와 고통은 허공에 피어나는 아지랑이와 같아요. 번뇌와 집착 등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실체가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밖에서 오는 인연에 의한 것이며, 내 마음의 판단에 의해서 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번뇌와 고통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고 관한다면 화두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옛 사람들은 '물속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그것을 건지려는 것'처럼 공부하라고 했어요. 또 <선요>에는 '우물에 눈을 져다 메우는 것처럼 공부하라'고 합니다. 번뇌, 망상, 욕망의 그림자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것임을 알면서 지우려고 공부하는 것을 두고 우물에 눈을 져다 부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눈 열 짐을 져다 우물에 부어도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공부도 우물에 눈 져다 붓는 것처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물에 흙을 한 짐 져다 붓고 두 짐 져다 부으면 져다 부은 만큼 우물에 표시가 있어요. 실체도 없는 번뇌와 망상, 야망의 그림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없애려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우물에 흙을 져다 메우는 것과 같아요."



지금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 등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하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고 하니 고통을 만드는 것은 자신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설우 스님은 '우리는 기능적으로나 능률적으로나 부처님과 조금의 차이도 없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본래 성불했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찾고 닦아야 할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없애야 할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란다.

"화두는 본래 성불돼 있는 자리, 본래 청정한 자리를 알 수 있게 끔 해주는 직로(直路)입니다. 완성돼 있는 무심한 자리를 화두가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화두는 절대 알음알이나 분별의식으로 풀어 들어가면 아무리 해도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유분별을 차단해 버리고 바로 우리 본성 자리를 화두로 참구해가면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조주 스님은 왜 뜰 앞의 잣나무라 했을까'하고 그것 하나를 들고 의지해 들어가는 것이지요. '뜰 앞의 잣나무' 앞에서는 수만 권의 책도 소용 없고 경전 천 권을 읽어 독파를 해도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공안을 동문서답이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정견과 법안이 없이 허공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우리 본성을 확철하게 깨칠 수 있게끔 하는 직관해 들어갈 수 있는 법칙성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선문답을 하면, 스승은 제자의 질문에 세상살이처럼 비슷하게 풀어서 답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은 제자의 질문 자체를 뺏어버립니다. 제자가 그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성불된 부처자리와 성불하지 못한 중생 자리가 있고, 열반의 자리와 생사(生死)의 자리가 있고,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다는 상대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속성에 분별심과 차별심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스승은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있는 질문의 속성 자리를 부수어 버립니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 상대성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는 소리가 바로 '뜰 앞의 잣나무'인 것입니다. '뜰 앞의 잣나무'에는 부처도 중생도 번뇌도 보리도 주관도 객관도 없고, 알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교학적으로 말하면 알 수 없는 그 자리는 '연기법의 자리'를 말합니다."

스승은 제자의 마음에 깨쳤다는 흔적과 자국이 남아있으면 그것마저 빼어버린다. 뺏어버리면 비로소 제자는 '증득했다, 깨쳤다'는 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본래 성불된 그 자리에서 일상으로 돌아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하는 평범한 보살이 되는 것이다.

빠르지 않은 말투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설우 스님의 한 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의 가슴에 사무친다.

설우 스님은 ...

1971년 원명 스님을 은사로 원적사 입산출가. 1975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8년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수도암, 도성암 등에서 25안거 성만. 조계종 간화선 수행지침서 편집위원 역임. 지금은 법인정사 선원장이며,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를 맡고 있다.

설우 스님께 출가동기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불교가 무엇인지는 몰랐고, 그저 외롭고 쓸쓸해서 출가했다면서 스님 특유의 환한 웃음을 짓는다.

"속가의 부모님은 불심이 깊어서 칠남매 모두가 출가하기를 바랐던 분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절에 가서 공부하신다고 집을 많이 비웠기 때문에 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래서 많이 외로웠어요. 어릴 때는 불교도 싫었고 스님도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정이 남달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출가를 했습니다."

설우 스님은 출가 목적이 성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어머니 소개로 청담 스님의 상좌 원명 스님과 연을 맺었고, 상주 원적사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원명 스님은 평생을 선승으로 살다 가신 분으로 참으로 부지런한 분이었다. 출가한지 며칠 만에 은사스님은 콩을 한 바가지 주면서 밭에 심으라고 하더란다. 콩을 두알 씩 넣어서 심어라고 했는데, 날은 덥고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콩 대여섯 알씩을 넣어서 심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 군데서 대여섯 포기씩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본 은사스님은 "너는 출가할 선근이 없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부터 배우니 집에 가거라"면서 내쫓았다.

집으로 돌아 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출가는 정직하고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네가 잘못했다. 스님께 가서 참회하고 빌어라"고 했다. 다시 원적사로 돌아 온 상좌에게 원명 스님은 한 달 동안 '하루에 삼천 배씩 하라'고 명을 내렸다. 법당에서 삼천 배를 하니 힘이 들고 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참고 견디어 냈다고 한다.

은사스님을 모시고 육 년 동안 토굴 생활을 했는데, 은사스님은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쳤다. 나무 심고, 약초도 심고, 밭에 김도 매는 등 하루 종일 일하면서 화두를 들었다. 설우 스님은 동중(動中)에서 일하면서 나름 공부가 즐거웠다고 했다. 물론 선방에서 30안거를 보냈는데 제도권 내의 틀 속에서 공부

공부의 중요 덕목은 '정견 · 믿음 · 발심 · 공덕의 회향'

우물에 눈 져다 부어도 표시 안 나듯 그렇게 공부해야

번뇌 · 망상에 집착하는 것은 우물에 흙 져다 메우는 것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부처님 자비로 복장 행사 개최!"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본래 성불해 있다는 걸 믿어야



한 것은 그대로 또 배울 것이 많더란다.

설우 스님은 불교 공부를 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덕목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정견이 바로 서야 하고 둘째는 믿음이 확고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발심이 돼야 하고 넷째는 그 발심으로 인해 내가 얻은 공덕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회향해야 합니다."

정견이란 모든 생명세계는 서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나 벌레는 서로 어울림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생명을 지탱해나가고 있으며, 모든 생명세계는 연기 속에서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기법을 바로 아는 것이 정견이다. 연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은인(恩人)으로 생각해야 하고, 은인으로 생각하면 모든 관계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단다.

"이 모든 생명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본래 성불돼 있는 것'임을 스스로가 믿어야 합니다. 섬진강 연어가 섬진강을 떠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삼 년 만에 다시 섬진강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무슨 이정표가 있고 팻말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성이 있어 돌아올 줄을 아는 것입니다. 기러기는 스스로 북쪽을 찾아갈 줄 알아요. 사람도 이기심과 욕망과 대립심과 분별심으로 자기 진성(眞性)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기능적으로 능력적으로 부처 자리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은 원래 구족돼 있기 때문에 잘 쓰면 되는 것이지 구하고 닦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처임을 알고, 이 법이 굉장히 귀중하고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절로 발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보리심이라 하지요. 발심이 되면 보리심으로 안락하고 기쁘고, 지혜로 회향하게 돼요. 발심이 되면 축생을 보아도 자기 본래 진성자리를 깨닫게 되고 무엇을 봐도 다 전부 그것이 공부가 됩니다. 발심만 되면 3일 만에도 성불할 수 있고, 발심만 잘 되면 그것이 그대로 회향이 됩니다. 회향하는 마음은 원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회향은 밖으로 드러나고 분출돼야 합니다. 회향은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로 말하면 봉사활동이 되겠지요."

진정한 발심이 어떤 것인지 여쭈었더니 설우 스님은 당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사십대 후반 때 회생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몸이 아팠고 오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다.

"부처님께 내 공부가 잘못됐음을 참회도 하고 그랬지. 투병생활을 하면서 경도 보고 어록도 보았는데, 그때의 발심이 참발심이었던지 보는 것이 전부 그대로 이해가 되고 긍정적이고 모든 법에 막힘이 없이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진정으로 내 자신을 관찰하는 공부가 부족했고 껍데기공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투병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느낀 것이 있다면 공부는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법인이 오롯하게 공부거리로 남더란다. 5년동안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자연 음식과 자연요법으로 치유하면서 병고를 이겨냈다. 은사스님의 "한 세상 안 난 셈치고 공부하라"는 그 말씀이 무아의 사상과 직결되는 것임을 그때야 알았단다. 불법이 진정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법이고 가장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법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렇게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회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심이 저절로 되더란다.

법인정사에서는 특별히 참선을 가르치지 않는다. 교양대학에서 부처님의 정신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나면 그 후 백일 공부기도를 시키는데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지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불지촌'은 법인정사의 봉사단체인데, 생활이 어려운 백오십 명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등 이웃과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스님을 비롯한 법인정사 신도들에게도 많은 마음공부가 된단다.

봉사활동을 통해 나의 현 위치를 알고 바라보게 만들고 내가 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베풀어야할지를 깨닫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공부고 기도란다. 법당에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설우 스님의 철학이다.

설우 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가 돼야 하는데, 절에 가서 큰스님 법문 듣고 특별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공부라 여기는 것이 한국 불자들의 큰 병"이라고 지적했다. 일상생활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공부를 위한 공부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설우 스님이 병고 속에서 온 몸으로 체득한 산공부인지라 참으로 귀중하게 다가왔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우물에 눈을 져다 붓는 공부인지 우물에 흙을 져다 붓는 공부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상을 내는 공부를 할 것인지 상을 지우는 공부를 할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0. 백련사 조실 도봉 스님

선학원 창립 주역… 교육 · 의료 · 복지 사업 중요성 강조

도봉 스님(道峰本然; 1873~1949)은 만공 · 용성 · 혜원 · 석두 · 남전 · 상월 스님과 함께 선학원 창립 멤버의 한 사람이다. 불교의 원리는 선리(禪理)를 탐구하고 선풍(禪風)을 진작하는데 있으므로 승속에 구분 없이 선학을 가르쳐 불법의 정통을 살리자고 남전 · 석두 · 도봉 스님 세 분이 거금을 내어 시작했다. 그런데, 곧이어 불교정화운동까지 떠맡게 되어 홀로 떨어져 서대문구 행천동에 관음사라는 조그마한 절을 가지고 있다가 백련사 조실이 되신 분이다. 불교의식에 밝아 누구도 조석예불에 빠지거나 사시마지에 빠지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눈이 빠지도록 나무랐던 분이다.

선학원 행사 때는 의례히 빠지지 않고 나오셨는데, 남전(석주스님의 은사), 적음(한약방을 하시면서 선학원 뒷바라지 하시던 분) 스님이 돌아가시면서부터는 발걸음을 자주 하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학원이 원래 선학연구원과는 사뭇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서정희, 여운형, 신명균, 김법린 등 애국지사들이 드나들며 독립운동을 할 때는 호국호민의 뚜렷한 법통이 살아 있었어. 그런데, 대처 비구가 갈라지면서 비구승 본부가 되면서부터는 공부하려는 생각은 없고 모두 절 뺏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지 않았지."

스님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객(禪客)이 있으면 가능한 한 종단분리에 관여하지 말고 공부에만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처님은 왕궁도 버리고 출가하셨는데, 멀쩡한 사람이 남의 절 빼앗아 사업 할려고 출가해. 그런 생각 있으면 서울 올라오지도 말라고. 불교를 정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불교를 아는가. 박 마리아 말만 듣고 저렇게 유시(諭示)를 하고 있으니 이제 저 영감은 말할 것도 없고 뒤에서 부채질 한 머저리들까지 모조리 맞아 죽을 것이야."

"스님,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한번 죽으면 말지, 두 번 죽느냐. 불교는 어떤 사람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야. 일체중생을 위한 종교야."



그 큰 눈을 부릅뜨며 열변을 토하시면 정상(頂上) 육계(肉?)에서는 빛이 반짝 반짝 난다.

"정화(淨化)는 해야 되지. 절 안에서 가정살림을 해서는 안되지. 그러나 그들 숫자가 7000명이 넘으니 그 가족 4촌 6촌까지 합하면 30만명이 넘네. 이들을 쫓아낼 구멍을 만들고 나서 정화해야 할 것 아닌가."

당시 가정을 거느린 스님의 숫자가 700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많은 스님들의 원근 친척들이 불교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세 가지야. 첫째는 학교사업이야. 학교를 많이 만들어 학교사업을 해 가면 인재도 양성하고, 취직도 시키는 것이야. 학교 하나가 생기면 1만 명은 먹여 살릴 수 있거든.

둘째는 의료사업이야. 병원과 약방을 만들어 차례로 배출되는 사람들은 기술을 가르쳐 그곳에 넣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은가.

셋째는 복지사업이야. 양로원, 고아원을 만들어 부모 없는 자식, 자식 없는 부모들을 절에서 수용하는 것이야. 원래 부처님 당시부터 1200대중이 다른 사람인가. 몇 사람을 빼 놓고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던 단체가 아닌가. 그러니까 절은 스님들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신심 있는 신도들에게 맡겨서 이런 일을 하게하고 중은 도(道)만 닦고 포교만 하는 것이야. 중이 절 살림해서 돈 만지게 되면 오늘 비구가 내일 대처가 되게 되어 있어. 우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도들이 가만 놓아두지 않는단 말이야."

전국신도회 서대문법당에서 구두 닦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 때는 재(齋)만 지내면 떡 과일 밥을 가지고 오셔서 먹이고, 어린이 법회를 구성하여 노래 부르고, 춤추고, 뛰고 놀면, "진작 불교가 저렇게 되어야 했어" 하고, 가까운 신도들을 데리고 와서 청법하게 했다. 그래서 차도균을 중심으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서대문 법당에 오게 되었고, 마침내는 관음사 · 백연사에 초하루 법회와 관음 · 지장 법회를 개설해 대중불교에 앞장서기도 했다.

"불교의식은 간단히 한다고 해서 현대화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 즐겁게 하되 신심과 원력이 생겨야 하는 것이다."

초하루, 보름, 18일(지장재일) 법회는 백련사에서 보고, 24일 관음재일 법회는 행촌동에서 보셨는데, 반드시 오전에는 10시부터 시작하여 12시까지 불공(佛供)을 하고 점심 먹고 법문 듣고, 시식을 했다. 그리고 저녁 때는 거리에 노숙자들까지 불러와 밥을 먹이곤 했다.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4>

지역 · 시대 따라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치 달라

슈마허 "불교 문화권에서 불교경제학 존재는 당연"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번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를 조금씩이나마 예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현실경제의 위기에 대한 진단도, 그리고 처방도 시원스럽게 내리지 못했다. 회복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현대 경제학이 시원스러운 예측과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적 변화양상이 너무 복잡하고 거대하게 얽혀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무리 크고 정교한 이론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요즘 같은 경제사회적 현상을 부분적으로 밖에 설명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경제학을 가르쳐오고 있는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주류경제학에 대한 불만이 많다. 주류경제학이 다루는 가격기구는 근본적 중요성을 지니지만, 그것만으로 현실경제의 움직임이 모두 설명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아카데미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제 분석 방법이 너무 기술적인 방법론에만 의지한 나머지 계량 모델(model)식 분석방법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경제 논문에는 그리스문자나 고도의 수학적 방정식을 전개하는 형식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여기서 현대 경제학은 인문과학인가, 자연과학인가 하는 질문까지도 나온다.

'과학(science)' 혹은 '학(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가? 본래 '학'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경제학은 어떤가?

흔히 얘기하듯이 '경제학'에는 사회과학이면서도 자연과학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파는 수요 공급 현상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기구의 법칙성이나, 경제가 움직이는 모습을 설명하는 동태적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경제학은 자연과학적인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경제사(Economic history)라는 면에서 경제학을 살펴보면, 각 시대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적인 사실의 의미를 문제로 삼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근대경제학'이전에 고전파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A. Smith)의 시대와 현대에는 본래 공통점은 있지만, 대상의 취급방법이나 이슈가 되는 사실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아담 스미스가 자유주의 경제론 · 자유무역론을 설파한 이후,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 리스트(F. List)가 후진국의 입장에서 보호무역론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나라의 차이, 시대의 차이에 따라 경제학에도 차이가 있듯이,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치나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근대 유럽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 신앙이 얼마나 자본축적의 의욕을 긍정적으로 촉진했는가를 해명한 막스 웨버(M. Webber) 자신도, 동서양의 세계종교와 그 사회발전과 관계를 밝히면서, 기독교 이외의 애니미즘적 문화와 불교신앙을 가진 한국, 일본 등 동양사회에 있어서 문화 및 경제의 상이한 움직임에 커다란 흥미를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지역 국가 사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경제도 다르다면 경제학이 국경을 넘어 한결 같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한 사회와 상이한 문화에 따른 경제 행태(behavier) 및 경제학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림 · 김필헌

아담 스미스가 주창한, '영국의 경제학'과 리스트가 주창한 '독일의 경제학'에 차이와 가치를 인정한다면, '서구의 경제학' 외에 '동양의 경제학'이 존재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런 발상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영국에서 태어난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은 세계에 널리 퍼져 근대문명을 창출했다.

근대문명을 설명하는 데는 당연히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저술한 <국부론(國富論 : 부(富)의 성질 및 원인에 관한 연구)>이 출간된 이후 '국민의 부'의 실현을 통해 물질문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미스의 이론적 체계를 엮은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풍조가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미스가 구가한 자본주의사회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것처럼 보이는 마르크스(K. Marx)경제학도, 스미스 이론의 계승자인 리카도(D. Ricardo)의 경제학을 환골탈태(換骨脫胎)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교 문화권에는 불교사상의 경제학이 존재해야만 한다" 고 주장한 슈마허의 주장은 조금도 엉뚱한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슈마허가 불교경제학을 주장한 것은 초빙 경제고문으로서 가난한 불교국가인 미얀마에 근무했을 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응용한 개발방식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통감했기 때문이다.

인문과학의 분야에서는 서양화론이 있는데 대하여 동양서예론도 있다. 자연과학 분야의 의학에서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상이한 의학체계가 있다. 서양근대의학에 대하여, 동양에는 한방(韓方), 침술 등의 의술이 있는 것이다. '서구경제학'이 세계를 석권했다고 하는 사실과 같이 의학분야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동양의술이 동양의 오랜 문화적 바탕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 불교경제학도 동양사회의 역사적 전통위에서 새로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행히도, 우리의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주류경제학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분석함으로써 그 골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불교경제학이 정말로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대문명(즉, 서구문명)에 의문을 품게 하는 어떠한 대사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그룹이 영미의 시장원리주의 모델에 만족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의 경우가 그 하나일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격차사회와 지구환경의 위기적인 상황이 더욱 절박해질 때 일 것이다.

나는 지구환경의 위기가 이미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며, 그런 입장에서 동양문화의 전통적 경제 원리로서의 불교경제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④ 코치의 사명

허달의 불교와 코칭

리더는 군림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

'승-승(Win-Win)'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승-승'을 '까짓 것 내가 져주면 그만이지' 하는 '패-승'쯤으로 쉽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일은 '패-승'으로는 시너지를 키워드로 하는 상호의존성의 세계에 결단코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내가 진행하는 리더십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에는 과학적인 측정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나무 판자 한 장이 지탱하는 최대 하중이 275 kg일 때 동일한 판자 두 장을 포개어 사용하면 얼마까지의 무게를 지탱해 줄까? 이 경우 실험 결과는 최대 하중이 두 배인 550 kg이 아니라 물경 2,210 kg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철새인 야생 거위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무리를 지어 꺾쇠 모양의 대형을 유지하며 날아간다. 누구나 잘 아는 일이지만 놀라운 일은, 거위가 이 편대비행을 통해 홀로 날 때보다 70% 더 빠르게 난다는 것이다. 꺾쇠 대형으로 나르면 유체역학적(流體力學的)으로 양력(揚力)이 생겨, 맨 선두의 리더(Leader)가 날고, 그 난 자리에는 뒤따르는 다른 대원들의 힘을 덜어주는 공기의 흐름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힘든 리더 자리를 순번대로 차례로 맡아 무리의 이동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철새가 철마다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인데, 목적지에 다다르는 시간을 빠른 이동 속도만큼 단축할 수 있다면 생존의 기회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귀중한 시너지의 지혜를 야생 거위가 찾아 활용하는 실례이다. 리더가 군림(君臨)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인 까닭에 그 시너지가 발현되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너지는 자연법칙이니, 의당 인간계에도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모여 한 마음으로 목표를 정해 매진하면 초인간적인 폭발적 시너지가 발휘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또 다른 사례들에서는 역 시너지가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어 있다. 타 부서의 직원을 사정사정 빌려다가 사업추진팀을 만들고 목표를 공유하려고 공을 들였는데도, 결국은 차라리 내 부서의 맘 맞는 구성원 몇 명과 단촐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백 번 나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하는 팀장들을 자주 보았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구성원 각자의 이기심이다. 공명심, 시기심, 남의 발목을 잡는 행위, 무관심, 게으름, 편 가르기, 따지고 보면 이 부류의 모든 시너지 장애요소 밑바닥에는 이기심이 깔려있다.

둘째는 불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문제점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 표정, 몸짓 등의 부호로 바꿔 의사소통을 한다. 이 부호 체계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호를 사용하는 주체를 떠나 독립적으로 개념을 형성해 자유로운 사고를 제약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왜곡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 쌍방이 다 좋은 의도로 합의된 목표를 갖고 시작했으나, 결국 문화충격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실패로 돌아간 합작사업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셋째는 차이점을 인식하는 시각의 문제이다. 차이점을 인식하는 태도에는 '참는다', '인정한다', '존중한다', '환영하며 축하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종합하면, 시너지는 단기적 성과를 독점하고 싶은 이기심을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승-승' 마인드로 불식하고,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언어 등 의사소통 도구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면 저절로 생겨나는 자연의 선물이므로, 차이점을 축하(celebrate)하는 태도를 갖춰 이를 받아 지니라는 것이다.

코치는 모든 인간관계를 '승-승'으로 만들고자 하는 높은 목표를 지향한다.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는 불자 코치의 사명서를 잠시 들여다 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구절이 눈에 뜨인다.

"끝 없는 자기 완성의 과정이 남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한다."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코치에게는 코칭이 그 답이 된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지구촌 천지공사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우리 국운이 海道金卯 영도자가 전세계를 지배 새로운 도법인 미륵진태양도법 혜안을 여는 소울음 경신 대법회

원효대사 海道金卯의 비밀인 천지공사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뜻을 태일대사는 이 소식을 알아듣는 진인에게 전하노라

• 경신도통이란 인간의 수행으로는 죄와 업을 벗지 못하고 역대 그 누구도 상에 빠져 음과 양 유상과 무상의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삼시구충의 원뿌리를 뽑아 눈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 영원한 세상 생명의 빛 경신도법으로 탐진치 껍질을 벗는 수행법

- 우매한 중생은 보고듣고 먹고 만져봐도 모르는 상에 매여 스승 못 만난 자상에 빠져 제것도 아닌 글자 몇 자 도판에서 얻어듣고 큰 도통이나 한 것처럼 날뛰는 지금 천시가 海道金卯 즉, 말이 소를 타는 기축년 윤오월 21일, 22일부터 계룡천년이 시작되어 음과 양이 바뀌고 산과 바다와 물질과 물질이 바뀌는 지구촌 천지공사로 천마리 닭과 마을이 있으나 봉황의 소리가 울려야 지구촌 닭이 울어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단군이래 900여차례 침략을 받았던 대한민국 국운이 회춘 전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기축년 윤오월 경신일 초복 무국성군이 양력 7월 13일 14일 자시와 오시에 天福 大運이 태양진광진법을 경신일 소울음 우는 곳에 도통군자들에게 뜻을 전하노라

이제는 말이 소를 타니 소가 울어대는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영원한 세상으로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행복한 삶과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최상승수행법이며 우리나라 국운이 세상을 지배하고 해와 달과 별을 국기로 사용하는 나라는 운이 약해지고 전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운집하여 세계인류 평화촌 시대가 시작되는 대비밀법에 도전하시어 도통군자되시고 천지공사 주인되소서.

본 달마종단에서는 건강을 다스리고 수명을 관리하는 새로운 후천달마도법으로 뜻이 있으신 분과 본종단은 생활불교,거사불교,보살불교,대중불교 머리깎고 승복에 구애 받지않으며 남녀노소 연령제한없이 불법홍포에 뜻이 있고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입종을 언제라도 환영.

◆특별 금년 윤달든해 기축년은 조상의 해이고 결혼,생남,사업,진급자,고시자,취직 도통군자들에게는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시고 부귀장수 하소서.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천하대도 경신도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천년이 시작되는 천지공사 海道金卯 도통군자 되는 법에 초대합니다.

대한불교달마종조계종 부산범일동 약사도량 진불선원
부산 동구 범일동 830-295 삼환빌딩 3층 법당 보현스님 합장
051)635-3110 / 휴대폰 010-8533-1601,010-3239-3110

※ 특히, 천지공사달마 천궁회천법으로 혜안을 열어 거부장자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천하명당 진인출현 경신수행 기도수행처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7728-6707

세계불교달마종 천지공사경신도량 진불선원 태양의집 수행처

법당염불자, 맞이공양자, 수행자, 인연자 동참

• 입제 : 양력 2009년 7월 13일(윤, 5월 21일 월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9년 7월 14일(윤, 5월 22일 화요일)(해시)
02-821-6622 ,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미륵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어디를 가든 암자가 되고 법당이 되어 정진하라



성철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는 2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1949년 가을로 접어들어 희양산에 좌익 게릴라, 즉 공비들이 나타났다. 6.25전쟁이 나기 9개월 전이었다. 북한은 이미 남한에 거주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이용하여 암암리에 공산주의 혁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도 봉암사 대중은 가을걷이 울력을 하고 각자 용추동천 계곡으로 나가 몸을 씻었다. 계곡물은 벌써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다. 때 이른 단풍잎이 계곡물을 타고 떠내려가기도 했다. 혜암은 붉은 단풍잎을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찬 계곡물을 두 손으로 훔쳤다. 화두를 바짝 들고 정진하지 않으면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말 것이란 자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 희양산 산중에 숨어 있던 공비가 봉암사 선방까지 나타난 것은 추석이 지나서였다. 봉암사 대중이 저녁예불을 마치고 선방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였다. 총을 멘 공비 한 명이 구두를 신은 채 들어와 대중에게 겁을 주듯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대중들이 놀라 웅성거리자 공비가 "대사 선생님들 놀라지 마시오" 하고 안심을 시켰다. 식견이 좀 있어 보이는

잦은 공비 출몰에도 혜암 스님은 계속 정진 인곡 스님에게 법호 받아

공비대장이었다.

공비들은 봉암사뿐만 아니라 부근 마을까지 내려와 양식을 강탈해 갔다. 당연히 마을 이장은 지서에 신고했고, 경찰들은 낮에 올라와 조사하고 내려갔다. 신고를 눈치 챈 공비들이 며칠 후 보복을 하러 다시 봉암사로 들이닥쳤다.

당시 긴박한 상황을 법전스님은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술회한 적이 있다.

'노장님(성철스님)이 미리 나가신 상황에서 청담스님 하고 우리 대중은 평소대로 관음 정근(精勤)을 하고 있었지요. 그 무렵 공비들이 나타났어요. 아직 6.25가 나기 전이었지요. 공비들은 절 뒤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가 저녁예불 하고 난 후 큰방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구두 신은 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거기 앉으라고 하니까 좋다고 앉기도 했어요. 공비들은 꼭 우리에게 대사 선생님이라고 했지 나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방에는 헌병 하다가 중 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스님이 부들부들 떠는데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어요. 다행히 그 스님을 공비가 못 봤어요. 공비가 잡으러 온 스님은 당시 원주를 보던 보경스님이었어요. 산에 공비들이 있다고 보경스님이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경스님을 지목해 묶어서 절 옆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지요.' 공비들은 양식뿐만 아니라 살림에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뒤졌다. 공양간의 양식을 싹싹 훑어서 가져갔다.

'곶감 깎은 것 하며, 소 한 마리 판 돈 하며, 독에 남은 쌀까지 다 털었어요. 나중에는 지대방 털려고 하는데 큰방에 들어온 총 든 사람이 말렸지요. 그러니까 지대방만 안 뒤지고 쓸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갔지요. 공비 중에는 여자도 있었어요. 심하게 기운 누더기를 입고 총 옆에 서 있는데, 동굴에서만 살아 햇볕을 보지 못해선지 얼굴이 백지장 같았어요.'

보경은 청담이 총 든 공비대장을 설득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마을 이장이 공비가 나타났다고 지서에 신고를 한 뒤, 보경에게도 귀띔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보경은 지서에 공비 출현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림 · 최문정

결국 봉암사 대중은 봉암사를 각자 떠나기로 했다. 공비들이 밤마다 출현하므로 불안했고, 그보다는 양식을 강탈당하여 더 이상 봉암사에서 정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혜암도 가을에 봉암사를 떠나 해인사로 돌아와 버렸다.

혜암은 봉암사 결사가 2년 만에 와해된 것을 두고 몹시 아쉬워했다. 김룡사 금선대에서 용맹 정진한 한 철과, 계를 받기 위해 봉암사를 두 번 출타했을 뿐 철저하게 결사에 동참하여 정진했던 것이다. 29세 때 상월(霜月)스님에게 비구계를 받기 위해 해인사로 갔을 때와 30세 때 동산(東山)스님에게 보살계를 받기 위해 범어사로 갔다가 돌아왔던 것이다.

혜암이 도착했을 때 해인사 분위기도 뒤숭숭했다. 봉암사에 공비가 출몰한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져 있었다. 혜암은 은사 인곡을 찾아가 인사를 드린 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다. 그래도 인곡은 해인사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몇 명의 수좌들과 함께 퇴설당에서 정진을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스님, 봉암사 대중이 모두 각자 알아서 떠나기로 하여 저는 해인사로 왔습니다."

"성철스님은 어디로 가셨는고."

"김병용 거사한테 기증받은 장경을 가지고 저보다 먼저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향곡스님이 계시는 월내 묘관음사로 가셨을 겁니다."

"공비들이 장경도 돈이 될 줄 알고 지고 갈 수 있으니 그랬을 것이다."

"봉암사 결사가 유야무야 된 것이 아쉽습니다."

"씨앗을 뿌렸으니 열매가 있을 것이다. 봉암사 결사에 동참한 스님들이 봉암사가 아니라도 각자 정진하는 곳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가 있는 자리가 봉암사라고 생각하고 정진하거라."

혜암은 인곡의 당부대로 퇴설당에서 정진을 계속했다.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퇴설당을 봉암사 선방으로 여기며 정진했다. 지난해 가을 봉암사에서 온 이후 인곡을 모시고 몇몇 수좌와 함께 퇴설당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해인사에도 공비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가야산 깊은 산속에 숨어 있던 공비들이 야심한 밤에 왔다가는 사라지곤 했다. 낮 시간에는 군인과 경찰들이 경계를 서기 때문에 안전했지만 밤 동안은 공비들의 세상이 됐다.

다음해 이른 봄이 되자 해인사는 저절로 텅 비워졌다. 예불에 나오는 스님들의 숫자도 서너 명에 불과했다. 경내는 태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았다. 언제든지 군인과 공비들 간에 전투가 치러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이윽고 가야산에 신록이 무심하게 퍼져갈 무렵 인곡이 혜암을 불렀다. 혜암에게 해인사를 떠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해인사에 남아 있을 것이다. 장경각에 대장경도 있고, 법당에 부처님이 계신데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나는 해인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깨달음이 급하니 잠시 어디론가 떠나 공부를 하고 있거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중이니 목숨을 잘 보존하여 출가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스님 옆에 있겠습니다."

"범어사가 가장 안전할 것이다. 더구나 범어사는 동산스님 회상이니 공부하기에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스님은 누가 시봉합니까."

"내 손발이 아직 멀쩡한데 시봉을 받지 않으면 어떠냐."

"가지 않겠습니다. 제 공부는 누가 점검해 줍니까."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나는 너를 더 점검할 것이 없다. 그러니 떠나라는 것이다."

"스님께서 언제 저를 점검하셨다고 그럽니까."

"네가 봉암사에서 온 이후 나와 함께 정진하지 않았느냐."

"김룡사 금선대에서 왔을 때 저를 점검하셨을 뿐 그 이후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지식한 놈, 네가 어떻게 정진하는지 다 지켜보았단 말이다. 그것을 점검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하겠느냐."

혜암은 더 이상 인곡의 당부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자 인곡이 게송을 한 수 읊조렸다.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고금에 전해주니
머리도 꼬리도 없으되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니라.

只此一段事
古今傳與授
無頭亦無尾
分身千百億

혜암은 게송의 의미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 한 가지 일이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는 구절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혜암은 일어나 삼배를 올렸다. 그러자 인곡이 자애롭게 말했다.

"너에게 혜암당(慧庵堂)이란 법호(法號)를 내리겠다."

"스님, 길을 가리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총림은 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네 스스로 어디를 가든 암자가 되고 법당이 되어 정진하라. 법호를 준 뜻을 잊지 말라."

그래도 혜암은 차마 인곡의 곁을 바로 떠나지 못했다. 밤이 되면 공비들의 출몰이 더욱 잦았지만 혜암은 퇴설당을 드나들며 정진했다.

"일전에 내가 목숨을 보존하여 뜻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해인사도 안전하지 않으니 어서 떠나거라."

"스님을 누가 모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나를 잘 시봉하는 것보다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걱정 말고 떠나라는 것이다."

결국 혜암은 더 버티지 못했다. 산내 암자들이 먼저 비워지더니 퇴설당마저 방문을 닫았던 것이다. 산내 암자의 스님들은 경찰들의 지시를 받아 강제로 떠났고, 퇴설당은 수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 둘 떠났다. 퇴설당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한 수좌가 눈물을 흘리며 바랑을 챙겼다. 혜암은 그 수좌를 좋아했던 터라 마음이 착잡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전쟁 중이라 어디든 반겨 줄 곳이 없을 것 같소. 궁한 살림에 입을 하나 보태기도 미안한 노릇이고. 그렇다고 선방 말고 수좌가 갈 만한 곳이 어디 있겠소."

"범어사 동산 스님 회상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은사스님 말씀도 그 곳만은 전쟁 중이지만 선방이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곳으로 갈 생각입니다."

"나도 그 얘기는 들었소. 스님들도 그곳으로 피난을 가 '피난민선방'이라고 부른다고 합디다."

혜암은 저녁예불을 마치고 그 수좌를 홍류동까지 걸어가면서 배웅했다. 전쟁은 수행의 요람인 총림까지도 해산케 하여 수좌들을 불청객으로 만들고 있었다. 공비들에게 노출되어 위험한데도 밤길을 떠나는 그 수좌의 마음을 혜암은 잘 알고 있었다. 수좌는 저녁예불 때까지 좌복에 앉아 있다가 퇴설당을 나왔던 것이다.

"스님, 전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중생들이 저지른 불장난이라 그 죄업이 클 것입니다."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홍류동 산길이 어두워졌다. 홍류동 계곡의 바위에 부딪치는 물소리만이 또렷했다.

"혜암수좌, 어서 절로 돌아가시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해요."

"스님, 건강하시고 부디 성불하십시오."

"혜암수좌도 견성 성불하시오."

혜암과 수좌가 서로 합장하자 마침 구름 속에서 달이 나왔다. 수좌의 온화한 얼굴에 달빛이 그윽했다. 혜암은 수좌의 뒷모습이 산모퉁이의 낙랑장송에 가려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배웅했다. 수좌는 마치 구름에 달 가듯 표표히 사라지고 있었다.

〈계속〉



왕의 생애, 구름 같은 역사를 읽다

소설가 이우상씨의 조선왕릉 순례기와 불교 이야기

장묘(葬墓) 문화도 변화를 거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장문화가 대세를 이루던 시절을 거쳐 납골(納骨)과 산골(散骨), 매골(埋骨)의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다. 얼마 전 서거 한 노무현 前 대통령의 경우 화장한 후 유골을 수습하여 사찰에 모신 채 49재를 지내고 집근처에 매골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비석'을 세울 계획이다. 박정희 前 대통령의 묘소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있고 최규하 前 대통령의 묘소는 대전 국립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있다. 윤보선 前 대통령의 경우 충남 아산 음봉면 선영에 묘소가 있다. 이들 3명의 전직 대통령은 매장의 풍습을 따랐다.

조선시대 왕들은 어땠을까? 두말할 것 없이 매장의 풍습을 국법으로 지켰고 능의 규모도 엄청났다. 국상이 나면 신하들은 상례와 능역공사를 위해 국정을 중단했다. 조선 개국조 태조대왕부터 마지막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대를 이은 제왕들의 능역은 지금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흩어져 있다. 조선왕조 500년을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조선왕들의 능이다. 조선 왕능은 조선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

조선왕의 능은 그 왕의 재임을 그대로 닮아 있기도 하다. 왕의 업적과 권위, 세자를 얼마나 효순한 인물로 두었느냐, 후임 왕의 정치가 얼마나 평탄했느냐 등에 따라 능의 모양과 권위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왕의 능만이 아니다. 왕 곁에 묻히지 못한 비와 계비 혹은 후궁들의 능역도 고단한 생애를 묻은 채 역사의 언저리에 다소곳이 자리하고 있다.

소설가 이우상씨와 사진작가 최진연씨는 조선왕릉 순례를 통해 조선과 오늘을 동시에 읽고 있다. 왕릉에서 500년의 간극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무의미한 설정이다. <조선왕릉, 잠들지 못하는 역사> 1권과 2권은 잠든 자와 잠들지 못한 자의 차이를 떠나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두 사람은 '역사'로 전하는 것 이외의 것을 보기위해 더 크게 눈 뜨고 다녔다. 소설가는 과거 왕의 숨결을 들으며 오늘날 백성들의 삶을 읽었고 사진작가는 입을 굳게 다문 석상들로부터 '부귀도 영화도 한조각 구름'이라는 초탈의 메시지를 들었다.

<조선왕릉, 잠들지 못하는 역사>에는 왕릉의 기본 구조와 각 석물들의 의미, 능 조성을 둘러싼 일화와 능의 주인(왕)이 생시에 남긴 업적과 왕가의 비밀스런 이야기들까지 망라됐다. 그래서 이 책은 왕릉 순례에 유용한 교과서로 손색없다. 각 왕들의 가계도와 능의 구조도(능상설도) 조선왕의 역대계보 등 참고자료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무엇보다 이 두 작가의 왕릉 순례는 '숭유억불'



을 주창했던 왕조의 왕들로부터 불교를 읽었다는 '특화된 매력'을 갖는다. 조선의 왕들이 '숭유'라는 국시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억불'의 방침에 따라 불교를 철폐하지도 못했다. 불교는 그 자체로 인간의 삶에 녹아 있는 종교이지 시대를 다스리는 이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종교와 이념의 현실적 차이를 인정했던 왕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조선의 왕릉에서 불교를 읽는 일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왕릉순례는 권력과 권위, 부귀영화와 진정한 행복 등을 포함해 삶과 죽음에 대한 비감한 사색과 함께 역사를 느끼게 하는 묘한 매력을 갖는다. 능역이 좁지 않고 숲길이 울창해 건강을 다지는 효과까지 안겨준다. 책의 내용은 <현대불교>에 2007년부터 2년간 연재됐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다할미디어 펴냄 | 각권 1만2000원

임연태 기자


세국대왕이 모셔진 영릉

"마음 위치 파악하면 주인공"

곽은구씨가 글 · 그림으로 안내하는 '명상'의 즐거움

수행자에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모두 수행이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이 수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사느냐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매순간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관찰하고 다스리고 다독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누구나 삶의 주인공이 된다.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깨어 있는 삶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곽은구



곽은구씨는 '그것(마음)'의 위치 파악을 하는데 명상의 처음과 끝이 있다고 설명한다. 결코 거창하지도 어렵지도 않게 명상을 하고 그로부터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감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그 정체를 모릅니다. 해부를 한들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알려고만 들면 알 수 있으며 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습니다. 눈을 빛내며 지금 여기 살아 있는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곽씨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관찰하는 지혜를 길러주기 위해 거듭거듭 주문한다. '그것'의 위치와 방향을 점검하라고. "매 순간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쓰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을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말한다.

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문체가 내용을 쉽게 전달해 주는데, 직접 그린 그림들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

불광출판사 펴냄 | 1만1000원

임연태 기자

정자에 오르면 도인이 된다



한국의 누와 정
허균 지음 이갑철 사진
다른세상 펴냄
2만8000원

우리나라 곳곳에는 누각과 정자가 산재해 있다. 선비문화의 한 줄기인 누각과 정자는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고 쉬는 공간이 아니다. 흐르는 계곡물 옆에 지어진 누각과 정자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주위를 소란하게 하고 흩트리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찰의 누각과 정자는 대개 중심 법당으로 오르는 앞마당에 위치하는데 법회나 강설 등의 공간이다.

전국 500여개의 누각과 정자를 답사한 저자는 그 가운데 51곳을 선정해 책으로 묶었다. 저자는 누각과 정자에 깃든 멋과 맛을 통해 마음 다스림의 경지를 표현했고 사진작가 이갑철씨는 누각과 정자의 겉과 안을 포착했다. 계곡과 계류가의 정자, 강호 해안가의 정자, 별서 정원의 정자, 궁궐의 정자, 사찰 서원의 정자, 향리 관아의 정자 등으로 묶을 나눠 골고루 소개하고 있다.

다라니 기도의 '신비'



묘장구대다라니 기도의 힘
덕양선원 엮음
우리글 펴냄
9000원

고양시 일산의 덕양선원(선원장 법상)은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도량으로 이름이 높다. 덕양선원 불자들은 100만독 이상의 원력을 세우고 일심으로 기도를 한다. 덕양선원 불자들의 다라니 기도 수행 이야기는 한 편 한 편이 감동 이상의 감동을 준다.

다라니 기도를 하면서 가정의 불화를 극복하고 소원을 이루고 병마를 물리치는 등의 경험담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신묘장구대다라니 한 자 한 자를 머리글자로 한 '행시(行詩)'도 실렸다.

'삶'을 위한 질문들



인생사용 설명서
김홍신 지음
해냄 펴냄
1만2800원

소설가이자 '가장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김홍신씨가 단 한번 뿐인 삶을 위해 일곱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은 당신은 누구 십니까, 왜 사십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겠습니까 등이다. 모두 인생의 근원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답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저자가 즉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3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수행이야기	천친, 현현	불광출판사
4	오늘이 전부다	현진	클리어마인드
5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	사유수
6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7	인과경	현담	선
8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9	엄마	탁닛한	조계종출판사
10	승가오범	동주	홍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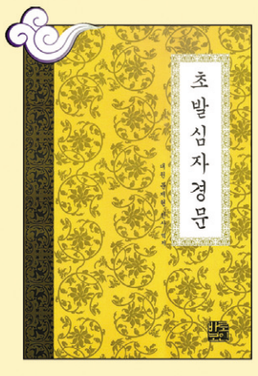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셋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양대 강맥 전강의식 031-531-8805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대한불교선밀종에서
임원, 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禪敎) 양종이거나 밀(密)종으로 이루어진 한국불교에 해동대선사인 원효성사를 종조로 밀(密)로 점수(漸修)하고 선(禪)으로 돈수(頓修)를 지향하는 선밀종(禪密宗)을 창종하고자 발원하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임원, 대덕스님, 각 지역을 이끌어 나아갈 종도 분들과 인연 닫기를 바랍니다.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포교소 등록)신청서
- 서약서, 승려증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지사 및 대리점 모집
- 식품사업부 국제/국내 특허제품(숙취해소제, 마가목차) 보유
- 출판사업부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 및 사부대중
- 복지사업부 자비실천모임(복지에 관심을 둔 자원봉사단 모집)

연 락 처
- 총 무 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태남빌딩2~3F)
- 전 화 053)311-2675~7 / FAX : 053)311-2634
- 사업상담 053)311-2675~6 / 010-3134-8484
- 입종상담 053)311-2677 / 010-3134-8484 (원묵)

비영리종교단체 등록번호 (37451-00292) / 비영리종교단체 고유번호 (513-82-65714)
大韓佛敎禪密宗 總務院
http://www.sunmiljong.or.kr

황금액이 나오는 신비의 황칠나무
이제는 황칠의 시대 "황칠진액"
인삼과 오가피를 뛰어넘는 신비의 황칠
산삼의 정혈작용보다 뛰어난 신비의 황칠
희소성으로 인해 황실에서 조차 귀하게
사용되어왔던 황칠이 이제 우리들 곁에 다가왔습니다.
특허 10-0457970
제 10-0494482

황칠진액 - 40日分 1BOX 800ml 40봉 ⇨ 가격 240,000원

황칠나무는
한국고유수종으로 수피(樹皮)에서 나오는 황칠(黃漆)은 찬란한 금빛이며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식향(安息香)을 함유하여 약리효과가 탁월한 신비의 나무이다. 황칠나무는 전남 기념물 제 15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남 완도,보길도,대흑산도,제주도 등에서만 자생,그 분포가 제한되어 있다. 200년전 유실된 궁중 도료로 사용되었다.

고문서에 기록된 황칠의 희귀성
- 진시황제가 '불로초'라 믿으며 해동성국에서 가져온 나무가 바로 황금나무
- 통일신라때 해상왕 장보고 교역상품 중 최상품이 바로 황금나무

황칠의 효능
당뇨, 비만, 고혈압, 간기능 강화, 성장촉진, 간경화, 위염, 골다공증, 중풍예방

부작용과 명현반응의 다른 점
자사에서 생산되는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만드는 아주 좋은 음식이므로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명현반응이 계속되어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으나 그 후 몸이 대단히 쾌적하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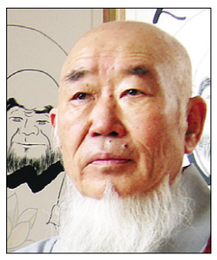
- 당뇨병자 배출되는 당분의 양이 일시 증가하고 수족에 부종현상이 있다.
- 고혈압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증 현상이 1주 내지 2주 동안 지속된다.
- 간경화증 소유자 대변에 피 또는 핏덩어리가 섞여 나올 수 있다.
- 위궤양자 궤양부위가 아프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 고혈압자 설사를 하는 현상이 생긴다.

신비한 효력과 효능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건강을 되찾으십니다.
직접상담 및 방문으로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으십시오.

상담전화 : 010-5289-2515 / 070-7501-0480

‘사바세계 그대로 정토’ 화폭에 구현

득산 스님 개인전 ‘삼보전에’ 7월 10일까지 대전 토지사랑갤러리서


득산 스님.


득산 스님 作 ‘삼보전에’. 세 연꽃과 촛불, 산과 어울린 ‘달마부처님’은 불 · 법 · 승 삼보를 상징한다.

누구나 쉽게 불교미술을 감상하고 생활소재를 통해 불법을 드러내는 ‘생활불교미술’을 수행 및 포교방편으로 정진해 온 구미 득산달마선원 원장 득산 스님이 제23회 개인전 ‘삼보전에’를 연다.

7월 1~10일 대전 토지사랑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연꽃과 금붕어, 불상과 탑, 풍경과 법당 등을 소재로 한 작품 22점이 전시된다.

출가 33년, 화업(畵業) 48년의 수행 이력이 담긴 원숙한 작품들에서는 세속에 살면서도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 맑고도 아름다운 일곱색깔 무지개빛으로 화면을 장엄한다. 일주문과 불이문과 어울린 산과 연못, 물고기, 화투, 여성 등의 소재들은 사바세계 그대로가 정토(淨土)임을 암시한다.

특히 득산 스님이 개발한 불에 굽는 ‘불화(火畵) 작업’을 거쳐 완성된 그림은 고구려 벽화와 같은 고졸미(古拙美)를 담고 있어 신비감을 자아낸다. ‘화화’ 작업은 일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후 토치램프로 가열하면 본래의 색과 전혀 다른 색으로 환치 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 예를 들면 노란색은 주황, 파란색은 초록 등의 색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얻은 색이 오방색과 다섯가지 간색이다. 불에 굽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그림은 색이 선명하고 화려하면서도 세월을 뛰어넘는 깊이가 느껴진다.

득산 스님은 이번 작품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일주문은 남자, 불이문은 여자를 의미한다며 세상의 모든 남녀가 일주(一柱), 불이(不二)의 본성을 지켜야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미협, 한국전업미술가협, 대전 구상작가협회, 대전불교미술협회 등 다양한 동인 및 협회 활동을 펼쳐온 스님은 무려 600여 차례의 기획, 초대, 단체전을 통해 그림포교에 매진해왔다. (054)452-1323

김성우 기자

룸비니 등 네팔 불교문화 한 자리에

네팔대사관 ‘네팔-자연문화와 기회의 땅’ 전시


관세음보살의 눈물에서 나온 타라(Tara)보살과 불교 장엄구들.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품고 있는 네팔의 불교문화와 자연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주한 네팔대사관은 6월 22일~7월 4일 서울 순화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전시실에서 ‘네팔-자연 문화와 기회의 땅’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네팔의 불상, 부처님의 명상과 일생을 그린 불화, 마니차(불교의식구)를 비롯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 자연 풍광을 담은 그림과 사진, 민속의상, 인형, 전통 악기 등 200여 점이 전시중이다.

한편 22일 개막식에는 커멀 프러사드 꼬이랄라 주한 네팔대사를 비롯해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 한명숙 前 총리, 산악인 박영석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02)3789-9770

김성우 기자

조계종 불교의식 CD에 담겨

불교어산작법학교 인묵 스님 해설 곁들여

예불, 불공 그리고 천도의식까지 조계종에서 사부대중이 사용하는 불교의식을 총망라한 의식집이 CD로 나왔다.

이번에 발간된 CD는 어산작법(범패작법무)과 불전의식 전문교육기관인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장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이 지난 1992년 불교의식과 집전 등을 모아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한 것을 18년 만에 다시 디지털 작업화 한 것이다.

무려 5년간의 제작기간이 소요된 이 의식집은 도량석, 종송 및 사물, 예경 및 발원, 신중단 및 특별예불로 구성된 예불 시리즈를 비롯해 삼보통청 및 신중청, 관음청 강의가 엮인 불공, 시련 및 대령, 관욕, 산중작법 및 설법의식을 담은 천도 시리즈 등 총 18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인묵 스님의 해설을 곁들인 강의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포교현장의 스님과 포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묵 스님은 의식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에 포교원과 전문가들이 동참한 가운데 예불의식과 방생, 시달림, 상장례 등을 포함한 CD 6장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02)921-3425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장 인묵 스님.

김성우 기자

욕망 비운 자리에 풍경 가득하니…

목아博·은모래사진동호회 ‘채움전’


박우택 作 ‘목아 박찬수’.

여주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과 여주 은모래사진동호회(회장 안준기) 회원들은 6월 20일부터 연중 특별사진전 ‘채움전’을 열고 있다.

목아박물관 비우소 2층에서 전시되는 ‘채움전’은 세속의 욕망을 비워낸 몸과 마음에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예술작품을 채운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여주의 사계절을 담은 풍경과 목아 박찬수 관장(중요문화문화재 제108호)이 목조각과 함께 살아온 삶 등이 50여점의 사진 속에 녹아 있다.

목아박물관 김선정 학예연구원은 “이번 특별전은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고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며 “지역 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아박물관은 1989년 우리나라 전통 목조각 및 불교미술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세워져 1992년 문화관광부 제28호로 등록된 전문사립박물관이다. 설립자인 박찬수 관장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전시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031)885-9952~4

김성우 기자

전통 불교미술에서 실용창작까지

‘선-아트 스페이스’서 무료강좌

젊은이들의 예술문화공간인 서울 종로구 팔판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선-아트 스페이스’에서 불교미술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전통불교미술 교육단체인 ‘아카데미 선그림’은 7월 2일부터 4회에 걸쳐 일반인들이 전통미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 공개 무료강좌를 연다.

연꽃문양을 이용한 생활소품 만들기를 지도하는 실용창작교실은 7월 2일과 7일 오전 11시~오후 1시에 열린다. 한지 그림판에 동자도를 그리는 전통회화교실은 7월 9, 14일 같은 시간에 개강한다.

박경귀 선불화공방 원장(문화재수리기술자 443호)은 “이번 강좌는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미술교사, 일반인,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불교미술을 가르침으로써 포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2)732-0732

김성우 기자

광고는 따로 갑니다~
자꾸 에러나서요~ ^^
잘 부탁드려요~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3 밥은 초대

누구나 공감할 맛의 소박한 밥상

경주에 또 다른 보금자리를 튼 지 넉 달째가 되어간다. 짧은 기간이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이 방인에게는 새로운 만큼 외롭기도 한 시공간이었다.

영주는 그런 중에 알게 된 한 동네의 이웃사촌인지라 금세 막역한 사이가 됐다. 처음 영주의 아지트인 '포폴부'에 초대받은 것이 불과 한두 달 전인 것에 비하면 그곳의 친근함이란 실로 새삼스럽다. 그만큼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어 이제는 안방이 다됐다.

남미의 경전에서 이름을 땄다는 포폴부(popol vhu)에서 영주와 나는 새벽까지 차를 마시거나 맥주병을 부딪치며 수다를 떨곤 한다. 한낮 더위에는 잠시 들러 널따란 나무의자에 널브러져 토막잠을 자기도하고, 한쪽에 다소곳이 앉아 책을 읽기도 한다. 영주는 그곳에서 주로 음악을 들으며 밥을 지어먹고 차를 마시거나 사경을 하기도 한단다. 혼자의 시간을 위해, 또는 여럿의 시간을 위해 포폴부는 그렇게 이래저래 쓰이는 만능의 공간이다.



정성이 담긴 웰빙 된장찌개와 메주콩이 듬뿍 들어간 콩밥.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포폴부로 향했다. 진작 차려졌을 소박한 밥상이 밥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밥이 맛있게 지어지는데 오늘은 많이 질어요. 다음에는 맛있게 해드릴게요."

영주가 밥통에 대기 중인 밥을 질박한 그릇에 담아내온다. 탁자 위에 차려진 된장찌개와 상추를 보니 시장기가 발동해 밥숟가락을 들기가 무섭게 한술 뜨려는데, 아뿔싸 밥이나 찌개에 콩이 지천이다. 평소 '된장'의 변형된 형태로만 간간히 섭취하던 메주콩이 밥에도 헤아릴 수가 없이 박혔으니, 콩을 싫어하는 내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때를 대비해 종종 써먹는 일종의 자가 체면법이 있으니, '콩은 맛있다'는 암시와 함께 '콩이 독이라 한들 약으로 알고 달게 먹을 지다'라는 발심을 부지런히 내본다.

"제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주로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거든요. 간혹 치킨을 시켜 한 번씩 먹곤 하는데, 시골에 있는 엄마집에 가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밥에 콩을 좀 더 듬뿍 얹어줄게'라고 하세요."(웃음)

알고 보니 영주는 채식주의자인 엄마의 식성과 소신을 닮아, 아직은 준 채식주의의 단계에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밥 속의 메주콩은 손님 접대를 위해 각별히 신경 쓴 영주의 정성일터. 그러한 유추까지 보태어지니 "콩은 맛있다"라는 강제적 발심이 더욱 강하게 일어, 스스로에게 보란 듯 "영주야, 밥 반공기만 더 주라"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한다.

"된장은 집에서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여기 들어간 것들도 이번에 집에서 다 들고 온 건데, 이건 방아이고, 이건 마, 죽순… 참, 죽순도 집에서 가져왔는데 아빠가 직접 캐신 거래요. 집에 갔더니 아빠가 오늘은 많이 못 캤다면서 포대자루를 들고 오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 있죠. 태어나 죽순을 처음 봤거든요. 마는 엄마가 한 박스 사서 나눠주셨는데, 된장찌개에 넣으면 감자처럼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 정성과 웰빙의 된장찌개가 아닐 수 없다. 귀한 죽순에 마에 방아 잎까지, 게다가 홍고추와 청고추의 빼어난 색감의 조화까지 어우러진 자태란 그 맛을 떠나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된장찌개에 이어 김치에 대한 사연도 만만치가 않으니, 그 사연인 즉슨 영주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한 교수님이 직접 담근 김치란다.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집에 놀러오면 그렇게 좋아하신 다네요. 같은 과 졸업생이 그 교수님 집에 갔는데 김치를 싸주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도 좀 나눠 준거예요. 제가 신김치 볶아먹는 걸 좋아해서 김치만 있어도 밥을 잘 먹는데, 특히 자르지 않고 손으로 찢어 먹는 그 맛 알죠?"

그 맛을 어찌 모를까. 김치를 손으로 쭉쭉 찢어 밥술 위에 푸지게 올린 다음 손가락에 묻은 양념까지 쪽쪽 빨아먹는 그 맛이라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맛이 아니던가.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39 소통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만나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필살 토크

그렇다면 필살 토크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필살 토크로 그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서로 신뢰관계 즉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포는 여러 요소로 형성되기도 하고, 파괴될 수도 있다. 이 라포는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되는데 의사소통은 크게 말(술어, 핵심단어, 공동경험과 연합 등)과 신체적 반응(자세, 제스쳐, 표정, 눈깜빡임, 호흡속도와 길이), 음성(크기, 빠르기, 높낮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흔히 의사소통에서 신뢰관계와 라포를 형성하는데 있어 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의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사실 선(禪)에서는 "활촉생금 불로여력(活捉生擒 不勞餘力)"이라해 도를 움켜쥐거나 사로잡는데 별 힘이 들지 않는다는 원오 선사의 수시(垂示)가 있다. 이는 도를 통한 사람은 상대를 사로잡건 끈으로 묶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이는 힘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즉 우리가 깨인 눈으로 보면 필살 토크의 방법이니 뭐니 하며 따로 습득 안해도 누구에게나 행복함을 선사해주고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전에 잠시 세상 사는 한 방편으로 이 방법도 익혀보면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다.

1. 상대를 말로 사로잡기

대화중 적절한 순간에 상대방과 똑같은 전문용어(예를 들어 그 사람이 독특하게 자주 쓰는 단어나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직업별 단어)를 사용하거나, 상대가 대답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관용구를 똑같이 사용하면 잘 경청하며 존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어 라포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말로 상대를 사로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다. 맞장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있고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화 시간이 30분이나 연장되고 길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이처럼 맞장구는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빠져들게 하는 순응성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든 이야기를 무르익게 하는 기술이다.

2.음성으로 상대 사로잡기

음성은 전체 의사소통에 있어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음성은 높낮이(tone), 빠르기(speed), 크기(volume), 질(timbre-soft한지 tough한지)로 구별할 수 있다. 이를 상대와 보조를 맞추고 화음을 맞추듯이 조절해주면 상대는 마치 합창을 함께하고 화음을 이룬다는 느낌을 받아서 마음의 편안함과 일치성을 금방 느낄 수 있다.

3. 신체적 반응으로 상대 사로잡기

신체적 반응(physiology)은 전체 의사소통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를 사로잡기 위한 의사소통에 있어 비언어적요소가 93%나 차지하고 있다. 의사소통에 탁월한 능력자가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상대방의 신체언어에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비슷한 자세, 시선접촉, 손동작의 속도·빈도 등을 일치(matching)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른손을 흔들면서 말하면 나도 오른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거울반응(mirror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상대와 동질적 요소를 만들고 공통성을 형성하여 자신의 영역권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이는 마치 자석이 쇠를 보면 끌어당기고, 쇠는 자석을 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듯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필살 토크로 서로 상생되는 행복함을 즐기는 일이다.

(02)576-7575



가득한 걸음의 만행·포행 위해 만들어

옛날의 신발 문화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볏짚으로 엮은 집신과 나무로 만든 나막신, 무명을 사용한 무명꽃신 등 고무신과 털신등 수많은 종류의 신발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특징이 있고 상징적인 신발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신발은 가장 우리나라만의 특징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짚신과 고무신이 문화성이 짙은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본찰은 경기도 소재의 남한산성 망월사라는 사찰입니다. 원장스님은 성법 스님이시며 항상 승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계 여러 불교국가를 가게 되시면 항상 각 나라마다 있는 승화를 보시고 오셔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승화가 꼭 필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스님께서 일본에 불교 교류를 위한 방문을 하셨는데 고무신처럼 생긴 무명 신발을 보시며 우리나라도 승화를 지정해 만들어 보급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대문 시장의 신발 관련 사업에 근 30여 년간 몸담고 있었던 터라 그간의 노하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IMF파동으로 인해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난 직후이기에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한 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약 6년 전에 스님의 발모양을 그리고 또 볼의 크기나 발등의 높이 등을 재어서 스님의 발에 맞게끔 신발을 만들어 드린 일이 첫 걸음마가 됐습니다.

그 이후 2003년 경 신발의 상표명을 항상 가득 가득한 걸음으로 만행 및 포행을 할 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는 뜻으로서 '행화'에 가득할 '만' 자를 붙여서 '만행화'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또한 앞으로 이 만행화를 잘 만들어서 불자로서의 좋은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로 발이 편하고 건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신발을 만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항상 다니고 계셨던 사찰이 바로 망월사였고, 어머니의 권유로 저도 이렇게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됐습니다. 25년 전 처음 가보았던 사찰이 단순한 종교 그 이상의 존재가 저에게 돼 주었고, 그 이후의 인연으로 이렇게 승화제조업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보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발로, 사부대중에 어울리는 그러한 신발로 만행화를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승화 제작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부처님 전에 합장 발원하겠습니다.

(02)733-5715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 식 | 불량 식 | 소장 사 | 영가천도 용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된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7∮ × 35cm)
◇육각초 – 7.5∮ × 45cm (적색,핑크,노랑,연두,주황,백색)

문의 우창산업 (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작명 1:1 개인지도 수강생 모집
여성, 35-45세
한자관심, PC가능자
"알기쉬운 양 원 준 표준이름사전" 저자
100년 노하우 전수
一法 合掌
011-365-0788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 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청암(靑巖)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립니다
(5점이상 50% 할인)
부산 051)202-8770
www.달마.kr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

보살선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현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각종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큰 법력으로 사물 · 바라 ·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십나는 천도재, 49재, 입종 시다림재 및 구병시식, 불상, 불화 점안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북 괴산 천년고찰
010-6414-5600

50대 중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소임 원합니다
010-5424-382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17-624-9589

공부하시면서 계실 스님, 수행하시면서 노년을 보내실 노스님이나 노불자님 모십니다
(무료시주)
062)652-4730
010-2296-7588

세수 70세 이상 승납 30년 이상 노스님 무보시로 10분만 모십니다
방부는 현대식으로 일인 일실입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세수 50세이상 승납 10년 이상)
경북 문경시 농암면 쌍룡사
054)541-6751

부처님 법력으로 묘 이장, 탈봉, 회향 천도해 드립니다
- 전국 묘 이장 윤5월 회향발원전문
- 묘 탈봉 및 천도 상담 환영
- 비구스님 직접 회향 천도해 드립니다
- 50세 이상 출가하실 분 상담환영

010-2553-8827

김현산 작명 역리원
작명 · 사주 · 운명개척 상담
전화우편 상담 환영 (전국 불자님)
명리학 개인지도 (월 20만원)
정통사주학 완성(수기본) 25,000원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 3층
종로3가역 1번출구 직진 낙원상가 방면
02)741-8449 김현산
011-9113-8545 역리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시내
052)295-3775
011-595-15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54)533-5103

불사 함께 이루실 참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제천 서원사
043)644-4580
010-4543-45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강원도 상운사
033)482-3382
011-764-3661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산속 암자
054)777-2796

"귀한 인연"
작은 도량을 맡겨주실 아름다운 인연과 마음이 예쁜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한려수도
010-2446-2626

사찰 경리(女) 모집
- PC 가능자
- 숙식 가능자

(대전)
042)282-9270
011-9990-0530

삼사순례는 문경새재 흥천사로 오세요!
생전예수재, 만등불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큰스님법문, 산사음악회, 문학인의 밤, 작은 열린음악회 지역웰빙 농산물직거래장터, 푸짐한 잔치국수 먹거리장터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흥천사카페 : daum.net/hcs5525
연락처 : 043-833-5525 / 011-9585-4908

한옥 / 사찰 (寺) 건축 전문
-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일체 고(古)건축 전문 기술자, 기능인들이 완벽한 이론과 경험에 기초하여 책임시공.
- 기초, 토목공사 / 골조공사 / 마감공사의 전문성 차별화된 시공 노-하우

031)581-2120 / 010-6405-2060

대체 의학 비법 전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야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 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 전수 (이론 강의 없이 실기만 가르침)
- ◆우울증, 화병, 변비, 관절염, 복수, 산후풍, 담결림, 기관지염, 신염, 대상포진 등 치료 비법전수 (이상 전수를 3시간에 완료)
- ◆대상 :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출장 방문 가능) ◆수강료 100만s원

010-7703-3825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 다음카페 : 출가생각(http://cafe.daum.net/beamonk)

단기출가학교 모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1일(수) ~ 7월 15일(수) 15일간
- 대구근절,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會主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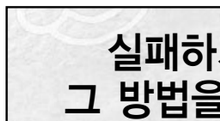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학공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히 속성으로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등
사주 전과정 45만원 부터. 역학상담심리사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당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CD프로그램 재설치승인 및 교환구입 안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 완결판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www.taotemple.net 051)908-8683

명당 탐지기



관룡자!! TM

관룡자는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판매되는 기구.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며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 제0464295호)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 증정 한국역학협회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저렴 속성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실패하지 않는 포교!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비의 맞춤 기도법!!
대형사찰에 맞서 살아남을 포교원과 암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소승이 토굴수행 중 이인으로부터 전수받은지 수년여라. 포교임상 5년에 비전으로 남길까 했으나 포교원과 암자에서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전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도법을 행하면
1. 신도가 끊이지 않는다.
2. 재정자립도가 확립된다.
3. 도심포교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다.
4. 이 기도법으로 기도하는 불자는 부처님의 가피를 봄도 체험한다.(5년동안 1명실패)
5. 이 기도를 행하는 불자는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나쁜행동을 하는 가족들이 참회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게 된다.

스님들께서 무조건 '기도해봐'라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스님들께서는 불자 개개인의 근기에 맞게 적법한 절차와 법에 따르는 기도법이 있음을 알고 불자들의 가정에 행복을 전파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전에 근기에 맞게 대기설법을 하셨듯이...

◆대상 : 스님과 포교사(별도상담)
※ 각 신행단체 및 개인불자들도 상담해 드립니다.
(후원금 : 10萬)
108일간 접수후 신청하신 수만큼 책자제작 및 전수 예정

상담시간 : 13 - 18시 접수 : 031)388-1311
후원계좌 : 농협 136-12-572481 상담자 : 혜공
방문하실 분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20번지(비산시장 옆)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 9-205호
보 현 사 신 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탈 종 공 고

- 법 명 : 무상(전상호)
- 승려번호 : 0606-10166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부지 : 35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급양도가 : 2억5천

- 위치 : 서울 시내
- 대지 : 40평
- 인법당 : 30평
- 시내요지
- 가액 :4억 5천

- 위치 : 서울
- 대지 : 25평
- 법당 : 25평
- 인법당
- 급양도가 : 1억 7천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25(외30평)
- 요사 : 200평
- 부지 : 800평
- 현시세 : 60억
- 급양도가 : 35억

- 위치 : 마산
- 법당 : 17평
- 요사 : 50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외 30평
- 요사 : 1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대사찰 부지 (현 농장)

- 위치 : 산청(생비량면)
- 총대지 : 8만 6천평
- 4만평 평지개발(현재 약초재배 농장)
- 기와집 12평, 창고 43평
- 금광동굴 10기

- 연꽃문양 대사찰터
- 템플스테이, 테마트레킹 체험장
- 청소년 수련원 최적지
- 버스진입가능
- 계곡물 철철(식수, 지하암반수)

- 가액 : 평당 1만원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인접 토굴 최고적지
- 법당 : 20평(30평)
- 요사 황토방2동
- 부지 : 84평
- 가액 : 2억5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 : 부산 바다가 보이는곳
- 법당 25평 목조건물
- 요사 2동
- 부지 117평
- 가액 : 2억9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마산진동
- 법당:2층건물
- 요사:50평
- 부지:120평
- 가액:2억6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사 찰 안 내 (전 세)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소재
- 부지 : 약500평(국유지포함)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80평(방10)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전세2억원(양도가능)
- 특징 :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도심사찰임

- 위치 : 포항시 신광면소재
- 부지 : 약 15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목조,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전세 5000만원(양도가능)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기도,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조용한토굴(임법당)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277번지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4,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2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담양군 고서면 (광주댐부근)
- 평수 : 149평
- 삼존불(약사여래석불) 미륵불(지방문화재)
- 가액 : 8000만원

010-6858-8083

사 찰 안 내 (포교당)

- 경기도(서울외곽)23억
- 부산 3억 7천만원
- 안양 15억
- 포교당(보:700, 월50)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굴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뒤 야산 접 (1000평 이상 쓰고 있음)
- 가액 : 12억

011-286-510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농협 앞
- 2층, 30평. 법당1,방2,주방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4001-8476
055)243-37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약목역 앞
- 평수 : 약 45평 (시설 완비, 공기 청정) 법당,삼존불,방2,주방,화장실
- 2층건물 중 2층(옥상사용)
- 보증금 1,500만원 / 월10만원 시설비 1,600만원(약간절충)

054)974-0307
017-217-191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군포안양지역
-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 2층전체 80평, 방4칸, 화장실2개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1-685-674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5364-003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86평(법당46평), 방3칸, 공양간,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보살)
- 전세 3,500만원/월세 50만원 권리금 없음.
- 시설비 및 비품대는 상의 후결정

010-8011-74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성북구 길음동 전철 출구 앞
- 4층 건물중 2층 실평수 40평
- 법당 20평, 방2개 욕실, 공양간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삼존불, 후불탱화, 각단탱화(고려불화)
- 보증금 1,000만원 8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시설비 외 총 2,500만원

010-2665-239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43평, 법당: 10평
- 요사채: 15평
- 지방도로 옆에 위치
- 가액: 4천만원

010-3805-352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당진군
- 대지: 10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영구건물) 신도실, 창고, 차고, 우물 (4동 조립건물)
- 석불, 금동불 기타 시설완비
- 가액: 3억원

016-417-4744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천만원, 월 88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6-850-12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충북 청주 봉명초등학교 옆
- 2층 32평. 법당1, 방2 주방, 샤워실, 화장실
- 삼존불,탱화,영단 갖추어져있음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 양도 즉시법회가능.역학 보살님도 가능

010-8283-525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3호선 도로변 3층건물중 3층
- 평수 : 법당겸 주방 약15평, 옥탑방1
- 보증금800만원 월33만원
- 시설비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탱화 영가단 300만원 법회 가능 역학보살님도 가능

02)723-3577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이대입구(대흥동)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60M위치 교통편 최적지
- 4층건물중 3층 약 2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입주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시설비 포함 3000만원(월세 50만원)

02)719-7709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 성주 용암,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성주IC 2분거리
- 대구 성서에서 20분, 화원에서 15분거리
- 170평, 신축3년된 법당 25평, 종무실, 요사채10평,
- (삼존불, 주불, 산신, 신중탱화) 법당 연등 200등, 전기일체 완비, 철학으로 유명한 곳
- 가액: 1억 3천만원

010-2616-2550

사찰(급)안내

고급단독주택2동

- 위치 : 청주 상당구
- 1층 단동2동, 요사채35평, 방3개 큰방, 사무실,선방,주방,큰거실, 화장실및 욕실
- 법당지은지5년법당 22평 선방 1개 화장실 및 욕실, 마당넓음 법당삼존불, 장태화고불, 후불탱화, 신중탱화1자관세음보살원불 100불, 심야전기최신, 대지62평,
- 가액: 3억 1천만원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금정구
- 자연녹지 281평(허가됨)
- 하천부지 약 300평~350평
- 무료 사용부지 약 300평 하천 위에 법당(스래트) 약 40년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람
- 부산 지하철 2분거리

010-6326-8870
010-9613-5567

시내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02-2번지
- 대지:150평 사찰운영
- 가액:1억 오천만원
- 시내안사찰로 포교당가능

017-371-8600
(필요하신분만 연락요)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도개면
- 사찰 부지터 대지 68평
- 법당 14평(기초공사완료)
- 요사채 13평 완료 주차장 이용가능
- 가액 : 4천 5백만원

011-503-8989
010-8589-655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시장 內)
- 법당 53평, 삼존불, 원불 108불, 신중탱화 104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 대지: 300평, 법당: 25평 산신각, 부처님 칠불상모심
- 주차장 시설완비,마을위 산쪽
- 보증금 1천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500만원
- 확장이전 관계상 급 양도,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함

010-8829-11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신갈
- 2층 100평, 법당 40평(최고급시설)
- 방3, 주방별도
- 보증금 2천만원,월1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9027-13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종합운동장 정문앞
- 평수: 65평 제반시설 완벽 구비
- 몸만 와서 포교활동 할 수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 권리금 2500만원(절충가능) 스님 건강 관계상 급 양도

011-9108-548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대지: 205평
- 건물: 56평(1층 33평, 2층 23평
- 황토방有, 6月초 신축완공)
- 뒷산 계곡 석축단장, 순수황토 벽돌 목조 기와지붕, 라운드형으로 예쁘고 웅장하게 잘 건축된 별장식
- 비구니스님 수행도량으로 적합하며 합의하여 조금 싸게 양도할 수 있음
- 가액 : 4억 3천

010-6438-3561

사찰터안내

- 위치: 강원도 태백 태백산 자락 문수봉쪽
- 임야 1만 3천여평
- 토지: 955평, 산, 토지, 임야 연결
- 가액: 토지 평당 20만원 임야 평당 1만5천원 공기좋은 맑은 곳에 위치

010-6224-3565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달성군 가창댐부근
- 법당 2층 60평(삼존불 봉안) 요사채 1층 80평
- 방7, 화장실 2, 별채(공양간) 25평, 외관 단층필
- 시내버스 정류장 1분거리, 교통편리
- 총부지 400여평, 주차완비
- 가액: 12억(융자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4541-6711
(주인직)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사천
- 바위산 멋진 기도처
- 평수 3700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9323-4478

포교원(급)안내

- 위치:창원시 소답동 경남은행 옆
-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90평
- 법당외, 큰방3개, 종무소 1개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 삼존불, 후불탱화, 관음호신불 216불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권리금은 보신 후 절충

055)299-5690
010-7159-569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석관동
- 평수: 3층 건물 2층 42평
- 구조: 법당 25평, 방2, 주방, 간이 사무실, 화장실
- 시설: 불단(원목) ,영단(영구위패 500개) 1년연등(500개)등 최고급 시설
- 가액: 7,000만원(보증금 2천 시설비 5천만원 월 85만원)

010-7609-092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시 도봉구 창2동
- 법당 35평, 3층건물 중 2층
- 호신불 380불, 방1, 주방 시설고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9464-560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남구 지하철에서 5분거리 버스정류장 앞
- 유동인구 많음, 아파트단지옆
- 4층, 110평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1천 1백만원(절충가능)

011-597-446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 법당40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역학하시는분 적합 즉시법회가능

010-2945-7704

천하절경 명당터

영서북부지방 강원, 포천 경계자락인 화악산 자락에 창건 3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명당터 고찰을 뜻 있는분께 양도 하고자 합니다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강원, 포천-화악산 자락)
- 교통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춘천 30분거리, 가평40분
- 사찰연혁 : 300여년
- 전체면적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 전각 : 대웅전, 명부전, 무량수전, 산신각, 용왕각, 종각
- 부대시설 : 주지접견실, 요사채2, 요사채 및 공양실3, 석등6, 석탑1, 미륵석불1, 관음석불1
- 현사찰가액 : 현 싯가 30억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실제매도가액 : 17억
- 참고 : 현 사찰은 어떤종단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개인등기 입니다.

017-373-5998 (주지스님 직)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6억(절충가능)

011-816-9104
011-815-9104

전원주택 ·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텃밭 1개
- 산중턱 황토집, 심야보일러
- 집근처 강이 흐르고 경치가 아주 좋고 , 조경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
- 가액: 3억 3천만원

033)462-9734
016-337-97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 토지 : 5,800평 전 : 5000여평 대지 : 300여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태백산과 소백산 청양산 줄기가 합치는 회룡터로써 최고 명당자리 사찰 부처님 사리탑 조성되있음
- 가액 : 1억 5천만원

054)673-1859
010-2088-18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용암사)
- 대지 면적 : 약 400평 건물 : 법당13평(목조기와) 요사채 : 신축건물(약30평) (평당300만원소요) 토목 및 옹벽 6천만원소요
- 가액 : 1억3천 이나 1 억5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5천 확신)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불사 하려고 합니다

011-9329-4241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34-8545
010-6739-642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상수도 사용, 창고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300평 국유지: 480평
- 가액: 11억 5천만원

011-563-1545

도심속 사찰안내

부산시내 도심속 깊은 산속의 정취가 있는 암자

- 전체평수 200평, 주위 1,000평 활용가능
- 노천불, 법당20평
- 방 大 3개, 거실 1, 큰 마루1 현대식 생활환경
- 가액 : 1억 8천 500만원

011-857-3775
051)866-1138

승만부인, "자비와 엄격함 갖춰 정법의 길 갈 것" 발원

여성, 부처를 말하다 ②

강 사 : 도법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일 시 : 2009년 6월 24일
주 제 : 여성, 부처를 말하다
장 소 : 서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교육장
주 최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승만경〉은 재가자인 승만(勝鬘) 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경전이다. 정법(正法)의 유지와 일승(一乘), 여래장 사상의 대방편을 널리 전개시키기 위해 설법한 것을 수록한 경으로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서 법을 말하고, 부처님이 이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5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도법 스님과 함께 하는 '여성, 승만경을 말하다' 강연을 열고 있다. 도법 스님은 누구나 이해하고,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강연임을 강조하고 있다. 6월 24일 열린 두 번째 강의에서는 승만 부인이 스스로 부처님께 정법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십대수(十大受)를 통해 절복(折伏)과 섭수(攝受)의 뜻을 살펴봤다.


강의에 열중인 도법 스님.

#세상의 두 가지 법칙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부터 있는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만든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본래부터 있는 법칙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는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은 상대를 무시하는데 이릅니다. 심각한 모순과 혼란, 위험의 확대 · 증폭은 본래 자연의 법칙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나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오지 않음에 관계없이 또 내가 깨닫고 깨닫지 않음에 관계없이 본래부터 있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법칙과 질서, 이것은 어쩌면 영원불멸의 법칙과 질서입니다. 시공을 초월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과 질서인 것입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생자필멸(生者必滅)'.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본래부터 있는 법칙과 질서 즉, 절대적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칙은 '금은 좋은 것이고 똥은 못 쓰는 것' 혹은 '선악시비미추(善惡是非美醜)'와 같은 것입니다. 황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돼지에게 주면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황금이 본래부터 보편적으로 좋은 것이라면 누구나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아하지만 돼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본래부터 있었던 법칙을 무위자연의 법칙이라 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칙은 인위조작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무위자연과 인위조작의 두 개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칙과 질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위기에, 사회는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이웃 간, 지역 간, 나라 간 공존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법칙이 균형을 맞추고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자연에는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자연은 그물코처럼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절대화 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인도의 우화에 보면 오수부동(五獸不動)이란 말이 있는데, 쥐 · 개 · 고양이 · 호랑이 · 코끼리 다섯 마리의 짐승들을 한자리에 모아두면 서로 눈치를 보느라 꼼짝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인간이 만들어 낸 법칙에는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의 법칙과 질서에 대한 무지, 무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연생태 재앙으로 인한 문명사적 위기를 자초했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도 그러한 질서에 맞게 인간의 질서를 만들고 운영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장 여래진실의공덕장(如來眞實義功德章)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은 다릅니다. 초기경전은 2600년 전 고타마 싯다르타라고 하는 실존인물이 행한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사상과 철학, 정신을 종합해서 재구성한 이념서적 같은 것입니다.

〈승만경〉 1장을 보면 알 수 있듯 역사적 사실이 아닌 사상과 정신을 계승한 대승경전 입니다. 우리는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야 해야 합니다.

경전에 담긴 상징적인 뜻을 사실이라고 믿으면 불교는 미신이 됩니다. 상징적인 표현은 경전을 훨씬 쉽고 재미있게 하기 위한 방편인 만큼 항상 염두하며 읽기를 바랍니다.

"네가 여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으니 그 선근(善根)으로 마땅히 무량한 아승기겁(阿僧祇劫)에 천신과 인간 가운데에서 자재로운 왕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승만에게 수기를 내리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래의 진실한 공덕'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위대성을 찬탄하는 겁니다. 존재 하나하나는 모두가 존귀한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래부터의 진리에 따르면 마음에 상관없이 다 존귀한 겁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닌 사실(법)을 보고, 사실(법)에 맞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찬탄'은 훌륭하다고 칭찬,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찬탄은 수행입니다. 진리의 존재, 다음으로 진리의 존재에 맞게 사는 사람을 찬탄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진리에 맞게 살아간 사람이고, 우리는 진리의 존재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입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진리의 존재를 보게 되면 누구나 다 평등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죽을 힘으로 용맹정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조작에 오염되지 않고 진리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부처, 본래청정한 것입니다. 한국사람이니 미국사람이니 남존여비니 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조작일 뿐입니다.

#제2장 십대수장(十大受章)

'무위자연' '인위조작' 두 법칙과 질서가 균형 · 조화 이뤄야
'초기경전' 실존인물의 역사, '대승경전' 재구성한 이념서적

1.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받은 계에 대하여 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2.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어른에 대하여 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3.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중생에 대하여 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4.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남에게 대하여 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5.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정신적 물질적 법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6.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해 재물을 모으지 않겠으며, 무릇 받은 것이 있다면 모두 가난하고 곤궁한 중생들을 성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자신을 위해 사섭법(四攝法)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8. 고독하거나 갇혀있거나 질병 등 갖가지 액난과 곤고(困苦)를 당하는 중생들을 본다면 반드시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의(義)로 이익 되게 하고,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뒤에야 떠나겠습니다.
9. 살아있는 것을 붙잡거나 기르는 등 갖가지 나쁜 짓을 하거나 온갖 계를 어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끝내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절복(折伏) 받을 사람은 절복 받고 섭수할 사람은 섭수하겠습니다.
10. 보리에 이를 때까지 정법을 섭수해 끝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십대수(十大受), 열 가지 크게 섭수해야 할 것들을 받는다는 뜻이죠. 스스로 정법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다짐(自誓)하는 것입니다.

승만부인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발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모두가 진리의 존재인데, 누구에게 구걸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고통을 해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겠다고 원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십대수(十大受)의 핵심은 절복(折伏)과 섭수(攝受)입니다.

자비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얼굴이 몇 개입니까? 십일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한 면 뿐입니다.

섭수(攝受)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껴안는 모성애와 같은 대자비심입니다. 절복(折伏)은 굳이 비교하면 부성애와 같습니다. 흔히 엄부자모라고 하는데, 절복은 엄격한 부성애, 섭수는 자비로운 모성애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리=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 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과정 1년
내 용
범 패 : 거불 / 복청계 / 가영 / 향수나열 / 도량계 / 다계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 사다라니 / 법고
※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 과정
※ 천도재 및 49재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
시 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교육장소 해동 성취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강사진 : 교육원장 해룡 큰스님 (무형문화재 9호)
교수_ 보암 스님
전문강사_ 우암 스님, 동암 스님, 송암 스님
문의 전화 051) 727-0859
팩스 051) 727-0809
휴대전화 010-3004-0859
010-2847-3500

인감 개인 공고

대한불교 조계종 해월정사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444번지
051)703-9641~2
2009년 6월 25일부로
주지 인감을 변경하였으며,
해월정사 공용인감으로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지 일륜(조용황)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해월정사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웃음보살 불등거사 <51>

구성 : 김흥인



말라 버린 소젖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사람이 하루는 손님을 청하여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날마다 미리 소젖을 짜 두면 소젖은 점점 많아져 둘 곳이 없을 것이다.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소젖을 소 뱃속에 그대로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한꺼번에 짜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는 곧 어미 소와 새끼소를 따로 떼어 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손님을 초대했다. 잔치를 베풀고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고 했다. 그런데 그 소의 젖은 어찌된 일인지 말라 없어져 버렸다. 그러자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도 이와 같아서,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인 뒤에 한꺼번에 보시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기도 전에 수재나 화재, 혹은 도적을 당하거나 혹은 갑자기 목숨을 마치는 때도 있다.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하지 못한다. 그도 저와 같은 것이다.

옛 판화의 세계

희천 스님이 거북의 꿈을 꾸다
희천몽구(希遷夢龜)



목판소장 선씨원류(釋氏源流) 중 천병호국(天兵護國)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mm,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불교문화박물관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희천이 육조대사와 같이 한 마리의 거북의 등에 올라타고 깊은 못을 헤엄치는 꿈을 꾸고 있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희천(希遷:700~790) 스님은 속성은 진 씨이며, 광동성 단주출신으로 조계에 이르러 육조 혜능에게 득도했으나, 혜능 스님이 입적하자 청원행사 스님에게 배우고 인가를 받았으며, 형산(衡山)의 남사(南寺)에 가서 동쪽의 석상(石上)에 암자를 짓고 항상 좌선했으므로 석두 화상(石頭和尙)이라고 불렀다. 광덕 2년(764) 문인들의 청에 응해 종풍을 선양했으며, 약산유엄(藥山惟儼)에게 법을 부촉하고 정원 6년(790) 세수 91세로 입적했다. 저서에 〈참동계(參同契)〉 〈초암가(草庵歌)〉가 있으며, 그의 사상은 조동종(曹洞宗)의 시초가 된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홀연히 꿈에 육조대사와 같이 한 마리의 거북의 등에 올라타고 깊은 못에서 헤엄치는 꿈을 꾸었다. 꿈을 깨고 나서 이를 점치기를 '거북은 신령한 동물이니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못은 자성의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다. 나와 스승이 신령한 지혜위에 올라타고 자성의 바다에 노닌지 오래다'라고 하고 마침내 형산의 남사를 찾아갔다. 이 절의 동쪽에 바위가 있었는데 형상이 대와 같았다. 그는 마침내 그 바위 위에 암자를 짓고 그곳에 주석했다. 상당법어에서 말하기를 '나의 법문은 선대의 부처님에게서 전수받은 것이다. 나는 선정 정진을 논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지견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와 중생, 보리와 번뇌는 이름은 달라도 바탕은 하나다. 너희들은 알지어다. 자기의 심령은 그 바탕이 단견과 상견을 떠난 것이며 자성은 때 묻지도 청정하지도 않으며 담연히 원만하다. 이것은 범부와 성인 나란히 같다. 그 응용은 무방하다. 마음의 의식작용에서 벗어나면 삼계 육도에 오직 자신의 마음만이 나타난다. 그것은 물속에 비친 달이나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으니 거기에 어찌 생멸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알 수 있으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석두 스님의 법어는 일체 진리가 본래부터 완성돼 있다는 자성, 불성에 대한 자각이며, 인간의 마음이란 묵묵히 안으로 관찰하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묵조선(默照禪)의 선풍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돌미륵

피이 뱃쫑 뱃쫑,
피이 뱃쫑.
산새들 요란히 우짖는 소리에
돌에서 막 깨어난 미륵불,
슬며시 세상 문 밀치고 밖으로 한 발짝
발을 내 딛다가
추위로 싸늘하게 굳어 다시 동면에 든다.
극락은
가릴 것, 숨길 것 없어
벗어버린 맨 몸으로 사는 세상,
춥고 배고픈 중생들로 가득한
이승의 사계절은 여름도 겨울이다.
얼음 녹아 돌돌돌 계곡물은 흐르는데
산비탈 진달래꽃 활짝 웃고 있는데…

–오세영/신작 시집 〈바람의 그림자〉

새로운사람들

쉬고, 쉬고 또 쉬고

무여선사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禪 이야기

각박한 시대를 어루만지고 고달픈 현대인을 위로하는
무여선사의 친절하고도 명쾌한 선禪의 길잡이

한국불교의 중심에서 찬란히 빛나는 화두명상법–
우리는 그것을 화두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화두선은 8만4천 번뇌의 뿌리를 단박에 끊어
버리는 호쾌함과 목숨을 건 수행자의 치열한 삶으로
일반인들은 선뜻 집어들기 쉽지 않다.
그러나 무여선사의 "쉬고, 쉬고, 또 쉬고"를 따라가다
보면 번잡스럽고 복잡한 현대사회가 갑자기 고요에
빠져든다.

스님은 우리들에게 이른다.
"소풍을 떠나듯 설레는 마음으로 화두를 챙기되
고요히 쉬어라!"
하루 하루 연속되는 복잡한 일상에서
쉬고, 쉬고 또 쉬어가면 머지않아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
우리들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우리들은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다.



무여선사지음
본문308쪽 양장제책 정가13,000원

* 글은 수필처럼 날렵하고 편집은 여백의 허허로움을 잘살려 중압감이 전혀 없다. 초심자에게는 초심자에게 맞는 울림으로, 경험자에게는 경험자에게 맞는 울림으로, 경지에 오른 수행자에게는 또 그 그릇에 맞는 울림으로 다가온다. – 법보신문

*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두려움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책은 정통선의 경계를 지켜내면서 재가불자들의 참선수행을 이끌어준다. – 불교신문

* 이 책은 선 수행과정에서 가질만한 의문을 두루 짚어주고 쉽고도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참선입문자에서부터 구참 수행자까지 볼 수 있는 간화선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다. – 현대불교신문

* 책 제목의 '쉼'은 무슨 뜻일까? 스님은 "화두에 진정한 의정(疑情)을 일으켜서 온갖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일"이라며 "그렇게 쉬고, 또 쉬면 참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된다"고 말한다. – 조선일보

* 스님은 중 · 고생 시절 수학여행을 앞두고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 참선수행도 설레는 기분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 한국경제



대행 스님

닥치는 대로 한마음 속에 다 놓고 편안히 길을 걸으세요

여러분께서 같이 이렇게 도반으로서 동참을 해 주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라고 해도 잘 모르실 거고 우주라고 해도 잘 모르실 거고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라고 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얘기로 듣는 거하고 실천해 보는 거하곤 다르니까요.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느낀 것은,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을 대하니 그 눈빛과 그 태도와 모든 면들이 너무나 지극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스폰지 같아요. 너무 진지해요.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도 마음의 차원이 좀더 높다는 분들이죠. 차원이 낮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그러질 않는데 차원이 높을수록 강력하게 밀고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거를 볼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그걸 무릅쓰고 도반으로서 이 공부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애쓰시는 걸 볼 때 양쪽 모두 참 기쁘게 생각이 되고, 외국인들도 말이 달라서 그렇지 그 뜻은 다 똑같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경학으로 모든 것을 일일이 따져서 배우려면 천 년이 가도 다 못 배울 겁니다. 다 못 배울 뿐만 아니라 깨치지도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인도해 드리는 거는 '항상 일거수일투족이 다, 내 몸에서 나오는 거는 다 그놈이 하는 거다. 모든 것을 작용하게 해 주는 의식들도,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 다스리는 그놈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오장 육부의 소임을 맡고 있는 그분들, 그분들이라고 해도 돼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분들도 다 내 선장의…, 선장이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응(應)해 주면서 밀고 나가는, 그 천차만별의 의식의 힘들 말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내 몸뚱이가 움죽거리고 사는 것이 모두 나의 불성 원동력이 그렇게 힘을 배출해 주는 까닭에 움죽거리지 않고도 이 우주 천하를 다 움죽거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근본은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 항상 진화해서 발전시키고, 발전하면서 또 거듭거듭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심성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반야쥴이라는 자기의 쥴을 잡고서 나가는 거는 당연하지만, 본래는 반야쥴이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문이라는 것도 없고, 교차로라는 것도 없이 그대로 그렇게 여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르치기 위한 방편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끔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봅시다. 이 세상의 도리로 악이다 선이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모자라다 영리하다, 길다 짧다,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논의되는데 이것이 자기를 막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 없다도 없습니다. 참 미묘한 거죠. 인간은 당연히 고등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죄가 있다 없다, 업이 있다 없다, 무명이 있다 없다 이런 게 근본에는 없습니다.

왜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죄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믿고 무조건 놔라.' 이랬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무조건 놓게 되면 무조건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면서, 모든 오장 육부의 의식들도 통신이 되면서 대뇌를 통해서 정수에 입력이 된다고 그랬죠. 입력이 되면, 내 생각으로 잘됐다 못됐다가 없이, 잘된 것도 못된 것도 착이 없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이 없이 무조건 거기다가만 넣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놓게 되면, 앞서 차원으로 살아오면서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집니다. 무조건하고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 놨으니까 무조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 그렇게 세세하게 이유를 따지고, 분별을 하고, 옳으니 그르니 한다면 저 승 세상은 맛도 못 봅니다. 죽는 사람이, 한순간에 숨이 끊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두고 죽으면서도 이유를 붙입디까? 죽는 사람은 이유를 못 붙여요. 그렇듯이 우리가 죽은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죠. 듣는 사이 없이 듣는 세상, 보는 사이 없이 보는 세상,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는 세상, 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하면 저렇게 하는 거, 이게 평등공법의 원리입니다. 이유를 붙인다면 어떻게 그런 세상을 배우고 맛볼 수 있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이러고 갑니까? 죽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길에서 와서 길로 갔노라.'고 하셨지만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길에서 와서 길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길을 걷다가 길로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오던 습과 착과 욕심과 그 의식으로 지내던 모든 것이 앙금처럼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한세상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리고 귀찮은 일도 많은데, 생기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마음 속에 모든 거를 다 놓고 편안히 그냥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골치 아픈 거를 다 이유를 따지고…. 사람이 젊었을 때는 좀 따지기도 좋아하고, 또 뛰어들기도 좋아하고 그러다가도 나이가 좀 들면 점점 점점 식어집니다. '에이, 귀찮아. 그저 뭐 끼어들어 봤자 그렇고.' 이렇게 하듯이, 그냥 모든 거를 차례차례 닥치는 대로 다 놔 버리세요. (손등을 두드리시며) 육식(六識)이라고 그러는 자체도, 그냥 부딪치는 것도, 취(取)하는 것도 바로 흡수해야 합니다. 육식도 흡수하고 팔정도도 흡수하고 육바라밀도 흡수하고 모두를 전부 거기에다 흡수해서 일불(一佛)로서, 한 도량으로서, 한 공법으로서 평등하게…, 우리는 그 도량의 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서로 도반으로서 가고 있는 겁니다.

논설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론을 따지다 보면 한이 없어요. 살아나가는 모든 것을 이론으로 따지고 하는데, 무(無)의 세상에 공법의 도리로서 가고 옴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그대로 내 한생각이라고 할까요? 생각이라고 해도 그것도 방편이죠.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이 물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으니까 그냥 먹었을 뿐이죠. 모든 일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약해서 못한다는 게 많고, 나는 모른다는 게 많고, 업이 많다고 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얽매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뜀박질을 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뜀박질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붙지 않죠. 마음으로 뜀박질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찰나라고 합니다. 빛보다 더 빠르죠, 아주. 빛은 오히려 가다가 탈이 생기지만 마음의 빛이라는 건 빛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구의 대기권에, 오존층이라고 하나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구멍이 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물질적인, 즉 말하자면 얼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녹게 돼 있죠. 그러면 물난리 불난리에 계속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이치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 저걸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몸을 가만히 앉혀 놓고 만약에 여러분 각자가 거길 간다 합시다. 가도 몸뚱이는 여기 있는 거지 거기 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결단을 내리면 스스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지요. 아주 확고하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발산을 하지 않게끔 다 조치를 취해 놓으면 흠집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우리 집이 지구라고 한다면, 집이 작은데 식구가 많다면, 얼른 쉽게 말하는 겁니다. 잘데도 없어서 같이 붙어 있으면, 왜 배추씨나 무씨를 밭에 뿌려 놓으면 한데 그냥 붙어서 모두 나

☞26면으로 계속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福田函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심의필번호 제070605-중-336호
건선치료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이젠 긁지 마세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습진, 알레르기, 비염, 갑상선클리닉, 임파선클리닉
풍부한 치료 경험,
정통 한방 치료법을 바탕으로
자생초 한의원 아토피크리닉에서
아토피 환자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자생초한의원
www.jasaengcho.com
TEL 053)746-0075
위치 : 대구 지방노동청 옆, 아웃백(황금점)옆

buddhanews.com

죄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믿고 무조건 놔라

☞25면에서 계속

죠? 그럼 그걸 솎아 줘야지 솎아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안 나오죠,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솎는 일이 점차적으로 많아진단 얘깁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솎는 일이 생긴다는 건. 솎는 일은 생기되 같이 붙어 있는 건, 고추나무도 큰 것이 서로 한데 붙어 있으면 하나는 뽑아 내야 한 놈이 살죠, 그렇죠? 그렇게 크고 작은 걸 막론하고 붙어 있는 놈들은 다 솎아 내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 만생이 다 그러합니다. 그렇게 뽑아 내는 일이 점차적으로 생긴다. 그런 반면에 무엇이 또 거기에 대두가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정신계를 추구해서 물질계와 정신계가 아주 반반씩 100%가 돼서 움죽거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긴 상세계가 됩니다. 중세계가 아니라 상세계요. 불국토가 된다 이 소리죠. 그건 왜냐하면 다른 혹성에다가 또 중세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없어도 살 수 있고, 저런 게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그런 상세계의 차원이 된다면 없어서 안 되던 물건이 그냥 다 딴 데로 가 버리고 말거든요. 딴 데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물건을 실어 날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 이 비밀스러운 모든 도리를 어떻게 여러분이 다 알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이렇게 지금 내가 밭 얘기도 하고 솎는 얘기도 하고 이동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으로 끔찍한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끔찍한 우리의 상황 그대로 짐승들도 미생물들도 그렇게 모두들 하고 있지만, 그 모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동된다는 거, 여기서 쓸데없는 건 나지 않는다는 거, 이 모두가 우리의 심성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심성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도법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이지 이 허공 가운데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다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이치를, 권리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스러져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 몸이 다하기까지 공부해서 다시금 진화해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차원에 따라서 다시 그 도리를 알고 나오시면…, 부처님께서도 그 도리를 다 알고 나오셨지 모르고 나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보여 줘야 그분을 믿죠. 그래야 이끌어 갈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못 사는 건 내가 거기다 놓고 하기에 달린 거죠. 어차피 중세계에서 사는 거, 어차피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대로 업이 되고 고가 되는 거니까, 그냥 업이 되고 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도의 길이며, 이것도 도며 저것도 도며 다 도 아닌 게 없고 진리 아닌 게 없으니까요. 잘못됐다 잘됐다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거기다가 자기 마음의 능력을 다 뺏기지 말고 좀더 진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고 알뜰한 법회가 되도록 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해 보지 않은 거를 말을 해 봤자 말만 어설프게 알지 자기가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알아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정말이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지구를 집을 삼아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망가진다면 그 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생명들은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집을 내가 지키자. 또 이 몸뚱이라는 내 집을 내가 지키자. 내가 사는 사회를 내가 지키자.'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미국에 가서 들으니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한다고는 못 들었어요. 학교에서 여학생이 폭력배가 되고 남학생들도 폭력배가 돼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한 예가 미국의 신문에 났어요. 지금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그렇지 그 신문에는 망칙하게 났었죠. 그런 걸 봤을 때요,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한테 오늘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도 이 진리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분이 진리를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이렇다는 걸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소꿉장난하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몸 벗고 가면 그대로 그 차원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종자가 변하질 않아요. 내가 스스로 변하게 해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저절로 무기력하게 없어지거나 늙고 병들거나, 이렇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묘법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습과 착과 욕심, 그런 것도 거기 컴퓨터에 다 놔서, 앞서 집착하고 착을 뒀던 그 모두를, 그리고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생겼던 모든 일들을 다 컴퓨터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거기다가 다시 입력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으신다면 이건 안 되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스님들도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부처님이 바로 여기 계셔도 우리를 대신해서 깨쳐 줄 수 없는 겁니다. 또 대신 밥 먹어 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 줄 수도 없고, 대신 행복해 줄 수도 없고, 대신 똥 눠 주고 잠자 주고 아파 주고 죽어 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은 참 고독하고 쓸쓸하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식구라고 해도,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짚단 하나 베어서 묶어 놓은 거와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짚단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공다리무우로다가 그냥 끝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배기무우가 돼서 남들을 맛있게 먹여 줄 수 있는 거죠.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하여튼 오늘 질문들 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질문도요, 이제는 우리가 좀더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행어처럼 명예퇴직이니 조기퇴직이니 하고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 되어서 겪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스님께 가르침도 청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 십여 년 동안 운영하던 회사를 2월에 팔았습니다. 팔고 제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다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 2차 계획 이렇게 세워서 빈틈없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회사를 판 돈까지도 전부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2월 말부터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3월, 4월 두 달 동안 그 계획을 실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게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지게 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그러다 4월이 되니까 갑자기 앞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리고 별생각이 다 들어요.

우선 생각 드는 것이 '아, 일이 계획대로 안되니까 우선 장기전을 펴야 되겠다. 장기전을 펴기 위해서는 쓰는 걸 좀 줄여 보자.'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 처와 같이 연구를 해 봤는데 전혀 줄여질 게 없어요. 특히 제 큰딸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생각도 못하게 늘어나 있고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든지 제 입장이든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살아갈 방법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하기 쉽게, 일 없으면 뭐 스페아 운전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공사판에 간다든지 그런 말도 나옵니다마는 그러한 걸로 해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돼 버렸어요.

그렇게 4월 말쯤 되니까 앞길이 그냥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냥 어디를 돌아봐도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해져요. 세상에 그렇게 막막할 수가 없습디다. 그러면서 한 일 주일을 이제, 나갈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게 막막해지다 보니까 위축이 돼서 집에서 두문불출하면서 거의 감옥 아닌 감옥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합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주일에 한 번씩 합창은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몇 년 하다 보니까 거의 습관이 돼서 상황이 어떻든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합창을 하면 열린 마음과 밝은 소리를 내도록 우리 지휘자 선생이 강조를 하시니까 그 순간만은 또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그냥 잡념이 없어지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회사차를 다 이용했는데 그런저런 계획들이 안 잡히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버스도 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답답했던 게 일 주일 동안이었는데 일 주일쯤 지나니까 제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지금까지 스님의 보호를 받아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제 자신이 돌아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깥만 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 계획에 매달려 있었고 살 궁리를 바깥으로만 찾았어요. 그래서 '아이구, 내가 참 거꾸로 갔구나.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족이 흩어지든 말든 내 마음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자마자 바로 제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팥죽 끓듯이 끓고 뭐 아주 좌불안석인 마음이었는데 또 그 동안에 닦은 나름대로의 공이 있었던지 한 며칠 만에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나갈 일이 있으니까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게 어떤 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뭐 어차피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안 됐던 사람이니까, 새로 생긴 이 길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런 것도 전혀 따져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손에 잡히니까 줄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 줄만 당겼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서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떠밀려서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는 다 도망을 가고 피해지는데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생겼던 일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냥 온 주위 사방에서 막 그냥 떠밀어 줘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일이 돼서 6월부터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걱정이 또 없어졌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1(남): 그래 봐야 그것이 한 3, 4개월 사이인데 그렇게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저의 이 말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스님께 가르침을 바라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죽은 세상 산 세상이 꼭 이 몸이 죽어야 죽은 거고 살아야 산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 나라는 생각이 없는 세상이 산 세상이고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죽은 세상이었다. 그리고 유위법 무위법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보이지 않는 법, 보이는 법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는 유위법이고 나라는 생각을 빼고 무슨 일을 하면 이거는 모두 무위법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이랄까요, 요체라는 거는 그저 내 마음을 지켜보고 바깥 현상이 어떤 일이 생기든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할 일이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우선적으로는 내 마음을 평정하고 고요하게 지켜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수행의 핵심이 아니냐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외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 그렇게 세세하게 이유를 따지고

분별을 하고 옳으니 그르니 한다면 저승세계는 맛도 못 봅니다

※위 법문은 1997년 7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주지 **혜득** 합장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38개의 혈로 247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 :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 기 간 : 1개월 과정 수강생 모집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대한불교연합조계종 **보금정사**
문의 : 053)474-5959 / 010-535-9797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이병인
부산대학교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녹색으로 포장된 환경파괴 사업

10여년 전에 지리산댐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불거지면서 지리산댐 일원에 대한 현장답사를 갔다 온 적이 있다.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이고, 실상사 등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에 지리산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판단했다.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그리고, 수행환경과 지역환경파괴 등으로 인하여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철회되었다. 그러다가 10여년의 세월동안 깊숙이 묻혀 있다가 최근 용수원확보와 수해예방 등 지역개발욕구와 관련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다.

특별하게 상황이 바뀌거나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는 데도 왜 동일한 사안의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지금의 시점에서 원점상태로 다시 검토한다 할 때, 우선 지리산댐이 갖는 사업자체의 의미와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지리산댐건설의 사업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자체의 타당성과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주위환경에 대한 영향이 사전검증과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개발만을 위한 개발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계획과정의 투명성, 합리성, 공개성 등이 요청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 그리고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지리산댐의 목적은 용수원확보와 수해방지 등이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용수원확보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절수대책 등 수요대책과 하천수위주의 취수대책보다는 지하수 등으로서의 용수원 다변화대책 등이 고려되어야하나, 아직도 60, 70년대에 주로 했던 수자원확보와 홍수와 가뭄관리라는 공급대책만을 위주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절수대책과 노후관교체, 그리고 하천수보다 안정적인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 등을 통해서도 수자원의 확보는 가능하다.

또한 홍수시와 가뭄시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일차적인 일일 뿐이다. 보다 근원적인 방안은 종합적인 유역관리가 필요하고, 숲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지켜서 녹색댐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지속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댐과 같은 대부분의 개발은 20세기에나 할 일이지 21세기에 추진해야 할 일들이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적 결정에 의한 개발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대표적 사업이 시화호와 새만금사업, 한반도대운하 등이다.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고, 정치적 이해타산의 산물로서 국가적 예산낭비와 국론분열,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더욱 최근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환경의 적절한 관리라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무슨 사업이든 시작하고 보자는 개발관행이 도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것도 녹색성장,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사업도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전의 사업과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환경, 또는 녹색이라 부르는 사업들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최근 추진되는 녹색개발, 친환경이라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녹색으로 포장된 환경파괴사업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지리산댐을 엄밀하게 살펴봐도, 기존의 개발관행을 위해 아무런 사전검증과 대책없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환경의 파괴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니므로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ㅁ

조계종립 동국대학의 이사장 영배스님이 직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차기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유력한 스님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교체로 동국대 이사회는 새로운 '얼굴'에 걸맞는 '체질'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동국대는 그간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좋은 면 보다는 나쁜 면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학교 경영의 큰 물줄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어려울 만큼 위축되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내리막길'은 내부에서 만들었다. 이사회의 갈등이 소위 '신정아 사건'을 확대 생산했고 총장의 개혁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됐다.

종립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스님들이 '힘'을 쓰는 이사회의 행보가 학교 행정과 발전 속도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사회의 화합과 솔선수범이 없을 때는 교원들의 불안한 심리가 무기력증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동국대의 경우 꽤 긴 시간 되풀이 되어 온 일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다 보니, 이사회의 불화가 어색 하기는 커녕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교육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사회가 학교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된다면 그야말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과거 선지식들이 '교육불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터전이 후학들의 이권 다툼으로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 새로 추대되는 동국대 이사장의 역할에 100년 대계 '교육불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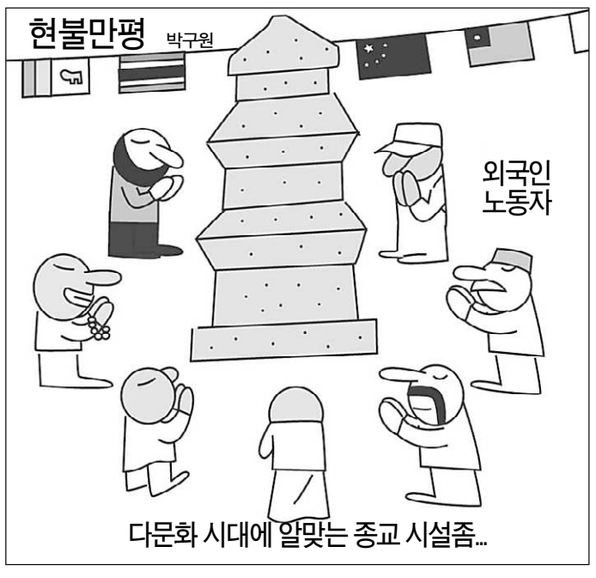
돌아온 '절 땅'과 결의대회

조계종 소속의 양산 내원사가 40여 년 동안 군부대가 점유했던 토지를 되돌려 받게 됐다는 소식이다. 인근 공군부대가 점유해 군사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는 이미 3년 전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곳이었다.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지율 스님이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을 반대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 곳에 양산시는 최근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었다. 공원 설치가 진행됐으면 또 다른 '지율 스님'이 나타나 온 몸으로 자연과 생명을 지키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사찰토지의 관리에 보다 철저한 데이터와 실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단을 초월해 행정적인 능력이 모자라 망실 위기에 처한 사찰 토지는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임대 등으로 관리 영향권에서 벗어난 토지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찰 토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 조계종은 7월 2일 통도사에서 전국본말사주지 결의 대회를 갖고 사찰소유지를 공원지역에서 제외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이익 운운하며 4대강개발등 대규모 시업을 추진하면서 사찰의 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불사 등은 제약 투성이니 '결의 대회'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부는 조계종이 왜 결의대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근원적인 선에서 검토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보라

6월의 테마-휴식

요즘 사람들은 너 나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그래야 잘 사는 것이라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다. 유치원부터 영어공부가 시작되고, 초 · 중 ·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말할 것도 없다. 직장인이 되도 승진시험에 허덕이고, 주부는 주부대로 교양 및 취미활동에 시간이 넉넉지 않다.

자연도 마찬가지다. 골프장건립이나 아파트공사로 산들이 깎이고 나무들이 조금씩 눈앞에서 사라져간다. 더위를 식히려는 선풍기도 쉴 새 없이 켜두면 고장 나기 쉽듯 장시간의 사용은 기계에도 무리를 준다.

우리는 지금 앞만 보며 살고 있다. 내 집 마련할 때까지, 부장 직함을 얻기까지 등 나름의 이유들로 성공이란 목적지를 향해 달린다. 과연 이런 목표가 행복지수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신발을 벗고 제대로 놓였는지 살펴보는 조고각하(照顧脚下)의 지혜가 아쉬운 시점이다. 나 자신이 지금 어디쯤서 있는지 가늠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모습과 환경에 만족할 줄 아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물론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한바탕 죽음 직전까지의 노력과 수행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중국의 순자(荀子)는 "어느 한 가지를 좋아하기를 미친 듯이 한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莫神一好)"고 강조했다.

우리는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가? 큰스님들은 "수행은 사람노릇 할 생각 말고 바보처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에 충실하면 곧 남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행히 요즘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에 사무칠 정도로 미친 사람을 종종 본다. 스포츠나 사진촬영 등 어느 한 가지에 심취된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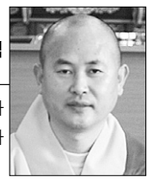
학기 초 강의시작에 앞서 동국대 학생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 "고등학교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가던 길 멈추어 하늘을 올려본 사람만이 햇살의 따스함과 별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어느 단체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두 부류로 조사를 했다. 한 부류는 본인 흥미와 상관없이 연봉이 많은 곳을 택했고, 다른 쪽은 비록 연봉은 적지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을 택한 부류였다. 20년쯤 지나 성공한 사람이 200명 정도였는데, 돈을 택한 사람은 그 중에 단 2~3명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모두 본인이 좋아한 것을 택한 사람들이었다.

이 당연한 결과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말해주고 있다.

부처님 공부에 게을리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다. 적당한 자리에 쉼표와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삶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내게 맞는 기도법을 택해 열심히 정진해 참다운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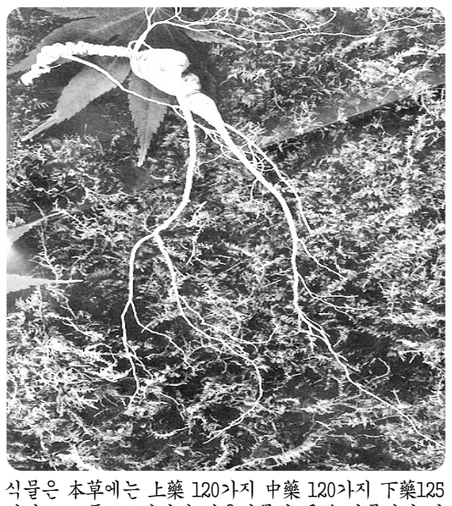
정도 스님
동국대 · 통도사 승가대학 강사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수호천사
대한민국 대표 삼베수의
www.suho-1004.co.kr

MBC BTN 불교 TV YTN 광고방영중
ISO 9001:2000 국제품질인증 획득 〈등록번호 : A2570〉
보성삼베섬유(주)는 27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올해 기축년(윤년)에는 100% 삼베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십시요!
본사에 수의를 보관해 놓은 회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보관된 수의를 보내드립니다.

기축년

68만원에 국내 직조 수의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윤년맞이 특별할인 판매

올해 윤년을 맞이해서 보성삼베섬유(주)는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수의를 특별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수의를 장만해두시면 무병장수하고 가내두루 평안하며 자손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명품 특1호]

2009년 보성삼베섬유(주) 수의품목 및 판매 가격

	정상가격	할인판매가격	할인율	원 사	원 단	제 조
수호천사 2호	~~97만원~~	→ 6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수호천사 5호	~~142만원~~	→ 99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명 품 특	~~218만원~~	→ 148만원	32%	중국	중국	한국
명품 특1호	~~398만원~~	→ 250만원	37%	중국	중국	한국
수호천사특삼베	~~398만원~~	→ 27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 수호천사 삼베수의를 구입하시면 시중에서 따로 구입해야 하는 매장베(멧베)를 추가로 드립니다.

수의 구매고객께 드리는 확정금액 장례서비스 (고객선택) (사후지불 확정금액)

150만원	수시복, 수시포, 베개, 혼백, 수시용품 일체, 향, 양초, 위패, 칠성판, 사진리본, 받침대, 양복(4세트),여상복(5벌), 도우미(2명), 꽃바구니(2개)	기본형
24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4명), 제단장식(1단), 꽃바구니(2개), 양복(4벌), 여상복(7벌), 유골함, 리무진 전국무료	고급형
35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6명), 제단장식(3단), 꽃바구니(2개), 양복(6벌), 여상복(10벌), 유골함, 리무진, 버스 전국무료	최고급형

✻ 보성삼베섬유(주) 수의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수호천사 회원자동가입이 되며 확정된 금액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치러드립니다.
✻ 장례서비스는 기존의 선불제 상조가 아닌 10년 후에도 위 금액으로 장례비 후불제 서비스 입니다.

수호천사는 삼베 재배에서 제조,
장례서비스까지 새로운 개념의
장례토털서비스의 이름 입니다.
27년간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수호천사로 여러분의 효(孝)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성삼베섬유(주)
전속모델 방송인 강 부 자

1 투명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원단쯤이야' 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제철에 한몫 크게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정직하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Q마크 품질보증지정업체)

2 품질이 우수합니다!
전통 기법의 가진 수의를 분리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원단을 아끼지 않아 수의 옷에 여유와 기풍이 느껴 집니다. 100% 면실로 정성스럽게 바느질하고, 일체의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수의 고유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ISO9001국제품질인증)

3 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구입 후 천재지변은 물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제품 손상이라도 50%까지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고객부담 50%)
보상 교환 서비스는 보성삼베섬유가 공장직영이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4 한번 구입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까지!
보성삼베섬유(주)의 제품을 구입하신 고객님은 철저한 회원관리 시스템으로 수호천사 장례서비스를 20년이 지나도 확정된 금액의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명품 특]

구입상담문의 전국 판매점 모집 문의전화 02-477-8060
1544-6609

보성삼베섬유는 선각종과 함께 합니다

보성삼베섬유(주)
BOSUNGSAMBE.Co., Ltd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6-1
TEL: 02-477-8060 FAX: 02-477-8061
장례서비스문의 1544-6607